

# 교과서연구

제 35 호

2000. 12

차 례

- 발행인 / 김효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재복
- 위원 / 박상돈, 김만곤, 김정호,  
송정현, 이경환, 이승구
- 간사 / 최해홍

## 권두언

교과서관의 변화/김재복 .....4

## 특 집

###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 편찬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학교 새 교과서 .....6

국어 / 박삼서, 도덕 / 이우용, 사회 / 김만곤, 수학 / 임광수,  
과학 / 김승익, 실과 / 윤기숙, 체육 / 최성식, 음악 / 김대원,  
미술 / 박은영, 영어 / 이병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의 활용/박제윤 .....28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 운영/이병호 .....32

한 선구자의 교과서관/김만곤 .....34

2 종 교과용 도서의 발전 방향/김정호 .....42

## 현장 교육

초등 학교 수준별 학습의 새로운 접근/이용재 .....48

## 논 단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의 의의/이현일 .....53

통일 교육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한만길 .....56

## 나의 제언

평생을 간직하고 싶은 꿈을 찍는 교과서/박은주 .....60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연재

미국의 교과서 제도/정국진 .....	63
----------------------	----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사회과 교과서편/김용만 .....	72
과학과 교과서편/정완호 .....	77
농업 교과서편/정성봉 .....	82
공업 교과서편/강기주 .....	87

## 단상

‘띄어쓰기 편람’을 개발하고서/이승구.....	93
교과서의 자유 발행보다 검정 확대를 서두를 때/한명희 .....	98
「교과서연구」 편집 회의를 되돌아본다(Ⅲ)/허 강 .....	102

## 연구 과제 소개

교과서백서 개발 연구 .....	109
교과서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	110

## 자료

교육과정 DB 구축 및 정보 서비스 개시.....	111
-----------------------------	-----

- 연구재단 소식 ..... 113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114
- 원고 모집 ..... 115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116

# 교과서관의 변화

김 재 복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교과서가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보는 견해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내용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누구나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자료인 교과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고, 외우는 일에 치중하는 학습 활동이 전개되고, 평가도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이와는 달리 교육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나 자료, 또는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이며, 학교 교육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력, 정보 처리력, 창의력, 조직력 등과 같은 사고력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에서 보면 교과서는 그러한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과서와 같은 학습 자료에 담겨진 내용을 고정되게 가르치고 외우는 것보다 그러한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가치롭게 된다. 그러므로 사고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실제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기능은 읽고,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으나 점차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돕는 기능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관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식론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관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른 교과서관의 변화이다.

오늘날 인식론의 가장 커다란 흐름은 객관주의 인식론의 토대가 붕괴되면서 진리, 실재, 인식 등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절대 불변하며,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실재와 객관적인 진리관으로부터 실재와 진리는 삶의 양식, 개념 체계와 패러다임, 사회 및 문화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포착된다는 주관적 진리관으로의 변화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

육관도 변화를 요구받는다. 그것은 첫째, 학습자의 주체적 해석의 과정을 중시해야 하고, 둘째, 학습자의 참여와 체험을 전제해야 하며, 셋째, 학습자의 내부에서 갱신되어 가는 목표의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과서의 내용이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실재를 표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구성된 의미의 표현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즉, 개인의 경험과 목표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에의 의미화 및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가치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 내용은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지식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 상황에서 정보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잡다한 정보나 사실적 지식으로 구성되기보다 근본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 또는 그 활용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 연결되어 직접적이고 통합적인 체험의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날 사회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컴퓨터 및 각종 통신 매체의 발달이라는 점이다. 컴퓨터와 통신 매체의 발달은 정보 양의 폭증과 영상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통신 매체의 발달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와 하이퍼미디어(hypermedia)란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다. 하이퍼 미디어는 하이퍼 텍스트를 포괄하는 용어이지만 이 둘은 그 기능으로 보아 비직선적(nonlinear)으로 읽혀지고, 다차원적으로 조직된 컴퓨터에 기초한 정보로서의 텍스트 또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들 정보와 자료는 문자나

그림뿐만 아니라 동작과 소리가 함께 결합된 교재로서의 자료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다중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신속하게 학습자 개인에게 접근하고 스스로의 통제에 의해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교과서 체계는 학습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가면서 읽도록 되어 있으나 하이퍼 텍스트 또는 하이퍼 미디어는 문자, 영상, 소리 등의 복합적 기제로 학습자에게 접근한다. 즉, 기존의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와 힘으로 학습자에게 접근한다. 이제는 교과서가 책자의 형태로만 구성되지 않고 CD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며, 심지어 무한한 웹사이트들이 교재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 목적, 학습 방식 등에 따라 다른 유형의 교과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의사 소통하려는 메시지를 검토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식별하고 종합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현재 교육의 요체요, 하이퍼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교과서관으로서의 변화이다.

이제 교과서는 학습자 개인적인 학습 경험의 역사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구체적인 학습 환경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정선된 자료나 정보의 하나이고, 교과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료이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내용관·교과서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 체계를 바꾸고, 교수·학습의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24

#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학교 새 교과서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영어

## 국 어

박 삼 서 (교육부 교육연구관)

### 1. 교육과정의 특징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강조하며,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정합성을 추구하였다. 학습량의 적정화와 국민 공통 교육 기간 동안 국어 교육의 내용 체계(기본·심화 과정의 위계와 활동의 연관성)를 각 영역별로 합리적으로 구조화했으며, 특히 국어 교육의 질 관리와 향상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① 성격 규정의 명료화, ② 목표 체계의 일원화, ③ 교육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

조화, ④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구체화, ⑤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개선(내용+행동), ⑥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정신을 그대로 교과서 편찬에 반영,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2. 교과서 구성상의 특징

#### 가. 단원 구성의 실제

먼저, 도입 학습면에서 대단원(마당)명을 제시하고, 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하단에 ‘누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등의 발문을 제시하여, 이 대단원에서 배울 학습 내용을 학생 스스로 추론, 상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습 목표 제시면에서는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본시 학습에서 배울 내용을 암시하는 삽화나 보조 삽화를 통하여 학생의

【대단원 전개의 기본 흐름도】

도입 학습면	소단원 1		소단원 2		한 걸음 더		쉽 터
	활동 1	활동 2	활동 3	활동 4	되돌아보기	더 나아가기	
1 차시		2 차시	3~4 차시	5~6 차시	7~9 차시		
도입 학습	원리 학습+적용 학습				평가 활동	보충 학습 심화 학습	

활동을 창의적으로 유도하도록 하였다.

다음, 소단원 1과 2에서는 단원 전단 부분에 원리 학습 제시면을 할애하고, 학습 활동 지시문 1→2→3(→4)의 단계는 학습 활동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는 과정임을 보였다. 적용 학습 제시면인 단원 후단 부분에서는 원리 학습을 바탕으로 실제 발전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읽기」의 경우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아이콘으로 학습 활동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한 걸음 더’에서 ‘되돌아보기’는 심화·보충 학습 활동 전 형성 평가 부분으로 분시 학습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학습 목표 도달 정도에 따라 ‘더 나아가기’에서 보충 학습, 심화 학습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쉽터’에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 나. 교실 변화를 유도하는 교과서

국어과 교육 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향상, ② 국어 사용 능력의 균형 있는 신장, ③ 언어 사용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④ 학습하는 방법과 평가의 방향 안내, ⑤ 최적의 학습량 제시, ⑥ 학습 목표 성취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언어 자료 제시, ⑦ 다양한 교수·학습과 교과서의 융통성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실의 변화를 스스로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 ● 국어 사용 목적에 따른 대단원 구성

교과서의 수준별 학습 구조와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해하기,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설득하기, 정서 표현의 글을 감상하고 쓰기, 친교적 반응 및 표현 등 네 가지의 국어 사용 목적을 중심

으로 대단원 체제를 도입하였다. 각각의 소단원은 학생 모두가 공통으로 학습하는 기본 내용으로 구성하고, 심화·보충 학습 과정을 이어서 제시하였다.

#### ● 학습 목표(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과정 제시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일부 학습의 과정으로 원용하고, 학습 목표 구현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을 반영하여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 안내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따로 하는 언어 학습보다는 통합적 언어 학습과 활동을 강조하고, 교과서 내에서의 학습의 연결과 연속성, 소단원과 소단원의 연계성을 고려했으며,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 간에는 유사한 학습 목표 제시를 통하여 횡적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 ● 심화·보충 학습은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

소단원 중심의 기본 학습 다음에 ‘한 걸음 더’를 두어, 이를 대단원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인 ‘되돌아보기’와,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과제를 제시한 단계인 ‘더 나아가기’ 둘로 구분, 제시하였다.

‘되돌아보기’에서는 단원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수행 평가 등의 평가 활동을 통한 자기 점검 능력과 평가 활동을 통해 얻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기’에서는 ‘선택 과제형’과 ‘공동 과제형’으로 구분하여 심화·보충 학습의 유형을 실제로 제시하였다. 선택 과제형의 경우는 앞은 보충 학습, 뒤는 심화 학습으로 나누어 기본 학습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되돌

아보기에서 살펴본 내용을 생각하며 ①과 ② (③과 ④)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공부해 봅시다.”로 학습 활동을 지시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어 심화, 보충을 선택하도록 했다. 공동 과제형은 대단원에서 이원화된 학습 목표인 경우 수준차를 두지 않고 내용을 구성하고, ‘더 공부하여 봅시다.’로 학습 활동을 지시하였다.

● 쉽고 재미있는 열린 학습 공간 마련

‘쉽터’를 설정하여 일상 생활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언어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학생이 딱딱한 교과서라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즉, 학습에 부담이 없는 국어 문화, 국어 의식, 국어의 가치를 고양하는 재미있는 내용과 쉬운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깔깔 웃으면서 국어에 대한 애착을 유발할 수 있게 하였다.

### 3. 학습량의 최적화

중복되는 학습 목표와 내용이 없도록 하고, 대단원 구성 체제의 장점을 살려서 학습량을 6차보다 30 퍼센트 목표로 감축하려고 노력했다. 창의성, 사고력 신장이 극대화되도록 학습의 과정을 구조화함과 동시에 단원 수를 감축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없이 국어의 흥미를 고양할 수 있는 학습란도 두었다.

즉,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 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재구성 학습을 통한 교육 과정 운영의 폭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교사의 교과서 활용 재량권을 확대하고, 학습량을 최적화하도록 노력하였다.

### 4. 교과서 활용 방법

● 교실의 변화는 교사의 창의적 교수·학습에서

교과서는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라는 열린 교과서관을 가지고 학생의 능력, 흥미 등을 고려,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뤄지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창의적으로 개발, 다양한 학습 상황을 설정해주는 것이 교실 변화의 관건임은 물론이다.

● 심화·보충 학습의 성공적 운영이 국어 교육 성패 가름

국어과 심화·보충 학습은 교과서 활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학습 자료를 개발, 이용하는 등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상호 진단 평가 과정과 학습자 스스로 또는 교사의 협력과 안내를 받아 심화·보충 학습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국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즉, 교실의 변화는 국어교육 패러다임의 발상적 전환에서부터 시작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도 덕

이 우 용 (교육부 교육연구사)

제 7차 초등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과 도덕성 쇠퇴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 교육적 대처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리고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보다 발전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도덕 공동체로서의 한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성을 지닌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강화된 학교 도덕 교육이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 개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 1.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및 방향

### 가. 기본 생활 습관의 강조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규범을 가르쳐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품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 나. 지도 내용의 적정화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지도 내용을 축소, 정선하는 것을 그 중점의 하나로 하였다. 그리하여 도덕과의 내용을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국가·민족 생활이라는 4개의 생활 영역을 축으로, 생명 존중, 성실, 정직 등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지도 요소라고 여겨지는 20개의 주요 가치·덕목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도 심화된 지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는 지난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약 30 퍼센트 정도 축소된 지도 내용이다.

### 다. 다양한 학습 방법의 강조

단순한 지식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실천과 활동,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라. 통합적 접근법의 모색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성과 인격의 형성을 지향하되,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을 조화롭게 육성하는 일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인

지적 접근과 정의적 접근, 그리고 행동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이른바 인격 교육적 접근 내지 덕교육적 접근의 관점에 입각하여 도덕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2. 초등 학교 도덕과 교과서의 구성상 특징

초등 학교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방향은 도덕과 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제7차 초등 학교 교육과정의 총론과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생활 예절, 기본적인 도덕 규범을 가르쳐, 바른 인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도덕성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화하여 도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실천과 활동, 적극적 참여와 체험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찬되었다.

셋째, 교과서의 획일적인 내용 구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사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활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교과서의 내용을 축소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실정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열린 교육적 구성이 된다.

넷째, 교사에게는 가르칠 거리가 충분하고 학생에게는 배울 거리가 풍부한 교과서로서, 도덕과가 아닌 다른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독자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도덕적 사고나 도덕적 판단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교과서를 통해 교사나 학생들이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시

제1차시 수업 (인지적 영역 중심)	제2차시 수업 (정의적 영역 중심)	제3차시 수업 (행동적 영역 중심)
<p>도덕적 문제 사태와 관련된 규범의 의미를 파악하고 도덕적 판단 연습하기</p>	<p>도덕적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과 관련지어 반성하고 평가하기</p>	<p>도덕적 실천 확인하기(도덕적 행동 및 습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명, 도입글</li> <li>○ 양쪽에 걸친 삽화</li> <li>○ 학습 목표 제시</li> <li>○ 도덕적인 판단을 위한 다양한 문제 상황 제시</li> <li>○ 문제 상황과 관련된 발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동적인 예화 제시</li> <li>○ 느낌이나 감정과 관련된 발문, 자신의 생활과 비교</li> <li>○ 감동을 주는 동시·동요·광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할 내용 제시하기</li> <li>○ 체험을 위한 활동</li> <li>○ 실천 다짐하기</li> <li>○ 관련된 명언 제시하기</li> </ul>

【도덕과 교과서에 적용된 제재 구성의 원칙】

하였다.

다섯째,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지도 요소의 3차시 구성을 각각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 도덕과 교과서의 각 제재는 위의 표와 같이 각각 3차시 즉,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 3. 도덕과 교과서의 활용 방법

첫째, 교과서를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한다. 도덕 교과서는 유일한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다. ‘도덕’ 교과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집필되고 다듬어진, 도덕과 교육을 위한 하나의 좋은 자료이다. 어떤 부분은 더 잘 된 자료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지역이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다.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들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다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도덕과 교수·학습이 되도록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훈련하는 교과서로 활용한다. 1차시의 수업은 대체로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사고를 시작하는 실마리로서, 또 어떤 도덕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나 훈화 위주의 방법보다는 의견을 토의하는 수업이 적절하다. 특히, ‘도덕’ 교과서에 실린 자료들이 국어과식의 독해 학습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도덕적 정서를 유발하는 교과서로 활용한다. 새 ‘도덕’ 교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 정서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주로 2차시 수업에 해당되며, 도덕적 행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배려와 민감성 등 도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교과서로 활용한다. 제6차 교육 과정의 도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새 도덕 교과서에서도 도덕적 행동의 실천을 계속 강조한다. 즉, 학생들이 도덕 규범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행동 실천을 가

능한 한 직접 교실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체험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 회

김 만 곤 (교육부 장학관)

### 1. 사회과 교육의 방향과 내용

사회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 경험에서 새로운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생각해보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구체적 생활 경험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 생활에 다시 적용해 보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과 학습이 쉽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회과의 내용 조직에 관한 원리를 알면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과의 내용 조직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사회과의 내용은 환경 확대법의 원칙에 따라 배열된다. 즉 3, 4학년에서는 생활 주변과 시·군, 시·도 지역을 범위로 하고, 5, 6학년에서는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우리 나라·세계를 범위로 한다.
- 사회과의 내용은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을 구체적 사례와 생활 주변의 문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주제 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탐구, 또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내용과 방법의 통합, 생활 경험과 지식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된다.
- 학년별 내용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성취 수준으로서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학습 활동을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관심·능력차에 대응하는 다

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 2. 새 교과서의 편찬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교육 과정에는 제시되지 않은 보충 과정도 교과서에는 반영되어 있다. 기본 과정은 제재별 본문 내용으로 반영하고, 심화·보충 과정은 주제 선택 학습과 단원 정리 학습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심화·보충 과정은 예시 자료로서 제시된 것이다.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신장을 돕는 교과서가 되게 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교과서의 안내에 따라 조사하게 하였으며,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지향적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과정 지역화의 수준이 더욱 심화되었다.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는 일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북돋우는 조건이 되고, 지역 자료의 적극적 활용은 조사, 문제 해결, 탐구의 실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과 교과서는 주제·프로젝트 학습을 뒷받침하고 통합적 접근의 교수·학습 원리와 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했고,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연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사회’와 ‘사회과 탐구’ 교과서, ‘사회과 부도’ 간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정보화 시대의 총아로 등장한 인터넷과 웹사이트 등으로의 연계 방법도 제시함으로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

### 3. 지역 교과서의 편찬 방향

사회과에서 지역화의 전형은 3·4학년 1학

【사회과의 내용 체계】

학 년	3	4	5	6
범 위	우리 고장의 생활	우리 지역의 생활	우리 나라의 생활	지구촌 시대의 우리
인간과 공 간	· 고장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과의 관계 · 고장의 중심지와 주민 생활 모습	·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 자연 환경과 주민 생활과의 관계 ·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 · 도시 지역의 생활 · 촌락 지역의 생활	· 우리 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 ·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인간과 시 간	· 고장 생활의 변화 · 고장의 문화적 전통	· 옛 도읍지 · 박물관의 기능 · 문화재의 가치	· 인간 생활과 과학 기술의 관계 ·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	· 국가의 성립과 발전 · 근대화와 민주 국가 건설 · 역사적 인물과 사건
인간과 사 회	· 물자의 유통 · 고장의 여러 기관에서 하는 일 · 고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	· 지역의 생산 활동 · 가정의 형태와 경제 · 취미와 여가 생활 · 주민 자치와 지역 문제의 해결	·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 정보화 시대의 생활	· 민주 정치의 원리 · 민주 시민의 권리와 준법 정신 · 평화 통일과 민족의 미래

기 지역 교과서의 개발과 적용이다. 3학년 1·2학기의 시·군·구별 지역화 자료 개발은 제 6차 교육과정기와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지역 교과서)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주 교과서로 활용되게 한 결과 ‘사회’ 교과서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문제점을 나타내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두 교과서의 기능을 분명히 해 ‘사회과 탐구’는 어디까지나 보조 교과서로서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 이 지역 교과서는 제 6차 교육과정기에는 시·도별 지역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주관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1종 도서로 개발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동안 각 시·도의 편수 인력이 어느 정도 양성된 것을 감안하고 지역별 특징을 살리는 방안으로 각 시·도별 인정 도서로 개발되고 있다.

#### 4. 새 교과서에 반영된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본문은 기본 과정에 따라 가능한 한 문제 해결형으로 구성하였다.

○ 주제별 ‘선택 학습’과 단원별 ‘정리 학습’은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들 학습 문제는 예시 자료로서 제시된 것이다.

주제별 ‘선택 학습’ 문제는 성취 수준의 난이도에 따라 제시되었다.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이 함께 제시되는 단원별 ‘정리 학습’은 선택 학습과 확인 학습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선택 학습으로는 보충 과정과 심화 과정의 두 과정을 반영하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 5. 사회과 교수·학습의 방향과 새로운 교과서관

사회과에서는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교수·학습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1) 교재의 재구성에 의한 수업 계획의 수립, (2) 사회 현상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통합적인 지도, (3) 핵심적 지식의 이해와 탐구 기능 및 사고력의 신장, (4) 다양한 교수 기법의 활용, (5)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6) 수업의 개

## 【사회과의 성취 수준】

1 수준	기초·기본적 사실 지식의 이해를 확인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
2 수준	기본적 지식의 이해와 적용·분석적 사고를 목표로 하는 활동
3 수준	고차적 사고 신장과 흥미, 시간·공간적으로 확대하는 활동, 학습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등

## 【단원 정리 학습의 구성】

과 정	과제 성격	활 동 명	성취 수준
심화 과정	선택 학습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	3
보충 과정	확인 학습	재미있어요	2
		무엇을 배웠나요?	1

별화와 소집단 협동 학습을 통한 민주 시민의식의 함양, (7) 학습자 중심의 수업, (8)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 (9) 교재의 지역화, (10) 시사 자료의 적극적 활용, (11)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지도, (12)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역사·심리 등 여러 영역의 통합적 지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사회과의 바람직한 지도는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만족해 온 지금까지의 ‘교과서 중심 교육 체제’를 탈피하여 위와 같은 관점을 반영한 학교별 사회과 교육과정 편성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 즉, 앞으로의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는 ‘지식의 보고’(금과옥조)로서의 교과서관을 버리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은 학습 자료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과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교과서관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 수 학

임 광 수 (교육부 교육연구관)

21 세기의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중점은 단순 기능인의 양성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학과와 역할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탐구하고 예측하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 영역에서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력, 창의력,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등의 수학적 힘(mathematical power)을 기르게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으며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 수학과 교육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수학과 교육은 학생들이 속하는 학년에 관계 없이 학생의 학습 능력 수준에 맞는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기본 교육 기간을 10개의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2개의 하위 단계를 두어 구성하였다.

각 단계 내에서는 주 과정인 기본 과정 이외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충 과정과 심화 과정을 두고 기본 과정 지도와 병행하거나 기본 과정 시간 이후에 남는 시간 또는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

본 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여야 할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정하였으며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발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소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량을 감축하여 수업 부담을 줄였다.

제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엄선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여야 할 기본 과정은 현행 교육과정의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다음 단계로 이동 또는 삭제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때 적정량의 내용을 최소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였다.

-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21 세기의 세계·지식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실생활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교사 중심의 일방적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탐구하고 토론하며 조작 활동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체험 활동을 통해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문제 풀이의 기능을 익히는 수학에서 탈피하도록 하였다.

- 학생들의 실생활 경험을 소재로 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과서로 편찬하였다.

지금까지 수학은 학교에서만 배울 뿐 실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험 위주로 공부함으로써, 흥미 없고 부담만 주는 교과로 생각하게 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는 모든 단원의 도입을 ‘생활에서 알아보기’로 시작하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수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수업 내용도 생활 주변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학습하게 하여 언제나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수학의 유용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생들에게 열린 질문을 통하여 토론을 중요시 하고,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과서로 편찬하였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제한적이고 단답형의 사고를 유도하는 ‘얼마입니까?’란 질문에서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와 같이 학생들의 자유롭고 수학적 사고와 대답을 요구하는 열린 질문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고정적인 생각을 벗어나게 하여 사고의 자유로운 활동과 서로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토론하면서 활동적인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식 수업 방법에서 벗어나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여 수업의 중심에 학생이 서 있고, 학생의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여 생각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수학적 학습 과정에 관심을 둬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게 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속적으로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교과서를 편

찬하였다.

추상적인 수학적 상황에서 학습을 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 전통적인 교과서에서 벗어나 수학의 개념을 학습 활동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실생활의 현상을 소재로 하여 수학에 대한 유용성과 실용성을 알게 하여 수학이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한 교과임을 인식하게 하고, 놀이와 퍼즐을 학습에 도입하여 즐겁고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갖고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로 편찬하였다.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함으로써 문제의 분석, 조직, 종합을 통해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하였다. 단순한 기능 중심의 문제 풀이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활동을 통하여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의 교과서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생활에서 알아보기’ 난을 만들어 각 차시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아동들의 생활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수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고, ‘준비물’ 난을 만들어 해당 단원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물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과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 난을 만들었다. 수학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이 알기 쉽도록 ‘약속하기’ 난을 만들어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였으며, 약속한 내

용을 익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약속을 익히기’ 난을 만들어 개념을 익히도록 하였다.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하기’ 난을 만들어 이미 배운 것을 상기하게 하여 새로운 학습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여 봅시다’ 난을 만들어 수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수학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을 점진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의 끝 부분에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난을 만들어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단원의 마지막에 기본 과정에서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을 두었다. 단계 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익힘책에 기본 과정의 내용을 익힐 수 있는 ‘기본 과정을 익히는’ 난을 만들고, 다음으로 단원 평가인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난을 두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는 보충 과정인 ‘다시 알아보기’와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좀더 알아보기’ 난을 만들어 기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발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수학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요구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 과 학

김 승 익 (교육부 교육연구사)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학교 과학 교과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수업 시수의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 교과서 판형의 4·6배판으로의 변화에 따른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변화 요인과 더불어,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서 학교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배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탐구 기회의 확대 등에 초점을 두면서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 1. 초등 학교 과학 교과서의 주요 개발 방향

기본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의 편찬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해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단원 전개 체제를 창의적으로 구안하며, 학습 과정 중심의 단원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새로 개편된 과학 교과서의 특징을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탐구 과정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내용을 구성

- 같은 탐구 과정이라도 학년에 따른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제시

예 표만들기의 경우 1 변인을 기록하는 표만들기에서 출발, 2 변인을 기록하는 표만들기로 수준을 높이고, 표와 변인을 다 기록해 주어 학생은 데이터만 채워놓게 하는 수준에서 점차 스스로 표를 만들어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수준을 높여감.

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 반영

- 교과서 및 실험 관찰, 지도서에 기본 과정과 관련된 적절한 보충 활동과 심화 활동을 제시

예 한 걸음 더(심화 내용), 되짚어보기(보충 내용), 이런 ○○도 있어요(대체 활동) 등

- 단원 정리를 위하여 별도 차시로 학습 내용의 응용 또는 발전, 심화 학습으로 구성
- 만들기, 조사, 실험 등 활동 중심으로 하여 학생의 수월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구성

다. 실험 관찰은 다양한 학습 전개가 가능하도록 구성

- 지나치게 구조화하여 제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탐구 활동을 저해하고, 실험 관찰을 채우기 위한 활동에 치우치게 되는 문제점을 탈피

예 기록란은 빈 여백으로 처리하여 학습 방법 및 학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지를 생각하는 학습을 꾀함.

라.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의 강화

-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수업에 활용하도록 구성

예 공룡 및 달 탐험에 관한 자료 조사 등

- 지도서에 차시별 관련 참고 자료를 제시

예 인터넷 사이트 명, CD-ROM, 기타 소프트웨어 등

마. 다양한 소재 도입으로 학생들의 흥미 유발

- 생활 주변의 환경, 자료나 주제의 도입

예 지하철 카드(자석 단원), 두부 만들기

- 만화나 동시 활용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

예 관찰, 실험, 야외 학습, 역할놀이, 조사, 만들기, 시청각 학습, 퍼즐(날말 맞히

기), 모둠 활동 등

- 과학사 및 우리 나라 과학 이야기 도입
- ④ 자격루, 우리 나라 최초의 전등, 견우와 직녀, 우리 나라의 지층이나 화석 등

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과서

- 학습자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갖고, 학습 과정과 절차를 계획,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
- 요리책 스타일의 학습 전개를 탈피, 학생의 능력에 따라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
- 단원 구성 및 전개 체제를 내용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 ④ -단원별 중심 질문, 학생 활동, 읽을거리 등 다양한 구성
  - 학생 활동을 실험, 관찰, 간단한 해 보기, 글쓰기, 소집단 토론, 자료 해석 등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지역에 따라 실제로 불가능한 활동은 제외하거나 대체 활동을 제시

사. 편집 체제를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구성

- 시, 만화, 컴퓨터 기법 등의 다양하고 과감한 제시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의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

아. 집필 실명제와 연구 개발형 개발 체제 도입

- 교사와 교수가 함께 집필 : 교과서 개발에 연구 결과와 학교 현장 경험이 조화
- 단원별 집필자를 표기 : 학습 지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집필자에게 직접 문의

## 2. 교과용 도서의 구성 방향

가. 교과서 각 단원의 구성 방향

- ① 단원의 수는 학생들의 흥미 지속도와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당 7~9개로 하였다(3학년 1학기 및 4학년 1학기는 8개 단원).

② 단원의 배열은 계절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다음으로 학습 개념의 선후 관계, 학습 자료의 안배 등을 고려하였다.

③ 단원의 명칭은 단원의 내용을 포괄하며,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소재 중심으로 하고, 교육과정의 영역명과 반드시 일치시키지는 않았다.

나. 실험 관찰의 구성 방향

- ① 과학 교과서를 보조·보충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② 단원의 명칭, 수, 배열은 교과서와 같게 하였다.
- ③ 차시 단위로 구성하였다.
- ④ 차시 구성은 내용에 따라 기록관, 참고 자료, 심화·보충 활동, 읽을거리, 만들기, 기구 사용법 등이 선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 교과용 지도서의 구성 방향

- ① 단원의 개관에는 관련 교육과정, 주요 지도 목표, 지도 방법 및 유의점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 ② 단원 학습의 계열에는 해당 단원과 밀접히 관련된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주요 지도 개념 및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 ③ 단원의 목표에는 핵심 목표를 5개 이내에서 일반 동사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식, 탐구, 태도 영역의 목표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 ④ 단원 지도 계획에는 단원의 차시별, 주제, 주요 학습 활동, 교과서 및 실험 관찰 쪽수, 다루는 주요 지식, 탐구 과정,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 ⑤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에는 단원 수준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 즉 지도 방법, 자료 준비, 오개념, 안전 사항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시하였다

⑥ 단위 학습의 평가에는 차시별 지도의 실제 앞에 제시하여 단원의 핵심 내용(개념 또는 탐구) 중심으로 평가 방법과 구체적인 평가 도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⑦ 차시별 지도의 실체는 차시별로 차시 주제, 학습 목표, 학습 개요, 학습 자료, 학습 활동 및 내용, 참고 사항을 2쪽 정도 제시하였다. 활용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차시마다 교과서 축쇄본을 함께 제시하였다. 학습 활동 및 내용은 특정 학습 모형을 도입하지 않고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총론에서 설명한 학습 모형 적용의 구체적 예를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1~2차시 정도 학습 모형을 예시로 적용하였다.

위에서 나열한 것처럼 학생들이 보다 재미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 교과서의 과정을 일선 교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제시된 심화 과정은 그 대상이 기본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예시 자료이므로 교사가 참고하여 재구성, 학생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기본 과정도 모든 교사가 일률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의 여건과 학생의 수준을 감안하여 교사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재구성,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실과

윤기숙 (교육부 교육연구관)

### 1. 실과의 성격과 내용

실과(기술·가정)는 학생의 실천적 경험과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교과로서, 5~

6학년에서는 자신의 일상 생활과 가정 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 주고, 7~10학년에서는 기술·산업과 가정 생활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며, 11~12학년의 심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과이다. 그 중 5~6학년에서 다루는 실과는 실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생활의 적응 능력을 기르게 하는 과목으로서, 자신의 일상 생활과 집안 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추출한 후, 흥미나 생활에의 유용성, 실용성, 적합성, 학생들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직함으로써 실천적 학습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 실과 교육 과정의 변화

제 6차 교육 과정에서 다루기, 만들기, 가꾸기 및 기르기, 건사하기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던 것을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지도 내용의 성격에 따라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술, 생활 자원과 환경 관리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10학년까지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농·공·상·수·정보·가사 등의 기초적 직업 경험을 가짐으로써 직업 선택의 기초를 제공하며, 자원을 아끼고 환경 보존의 생활 태도를 갖게 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와 가정 생활, 일과 직업의 세계, 재봉틀 다루기, 자원 활용하기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고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수 시간은 3, 4, 5, 6학년에서 각각 1시간씩 이수하던 것을 5, 6학년에서 각각 2시간씩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 내용(요소)을 30 퍼센트 감축하였다.

### 3. 실과 교과서의 편찬 방향

실과의 지도 내용은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

영역	학년	5학년	6학년
가족과 일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와 가정 생활</li> <li>· 가정 생활의 중요성 · 생활 계획과 실천</li> <li>· 가정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과 직업의 세계</li> <li>· 가족이 하는 일</li> <li>· 직업의 세계와 진로 계획</li> </ul>
생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영양과 식사</li> <li>· 아동의 영양과 식품 · 조리 기구 다루기</li> <li>· 간단한 조리하기</li> <li>○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li> <li>· 스킨 자수 · 뜨개질 · 손바느질</li> <li>○ 전기 기구 다루기와 전자 키트 만들기</li> <li>· 전기 기구 다루기 · 전자 키트 만들기</li> <li>○ 꽃과 채소 가꾸기</li> <li>· 꽃가꾸기 · 채소 가꾸기</li> <li>○ 컴퓨터 다루기</li> <li>· 컴퓨터의 구성 · 자판 다루기와 글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음식 만들기</li> <li>· 식품 고르기와 두리기</li> <li>· 밥과 빵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li> <li>○ 재봉틀 다루기</li> <li>· 기초 박기 ·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li> <li>○ 목제품 만들기</li> <li>· 목공구 다루기 · 간단한 목제 용품 만들기</li> <li>○ 동물 기르기</li> <li>· 애완 동물, 금붕어 기르기 · 경제 동물 기르기</li> <li>○ 컴퓨터 활용하기</li> <li>· 컴퓨터로 그림그리기 · 컴퓨터 통신 활용하기</li> </ul>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돈 관리하기</li> <li>· 용돈 계획 세우기와 용돈 기입장 적기</li> <li>· 금융 기관 이용하기</li> <li>○ 생활 환경 정돈하기</li> <li>· 책상과 옷장 정리하기 · 청소와 쓰레기 처리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활용하기</li> <li>· 생활 자원의 이용과 절약</li> <li>· 생활 용품 재활용하기</li> <li>○ 집안 환경 가꾸기</li> <li>· 실내 환경 꾸미기 · 나무심기와 손질하기</li> </ul>

## 【실과의 내용 체계】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 등을 고려하고, 가정 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정선하되 7~10학년의 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또, 연간 수업 시수, 재료 준비, 학교 현장의 실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고, 교수·학습의 개별화, 지역화를 고려하여 가능한 실습 제재를 복수로 선정하였다. 실습 제재의 복수 선정시에는 목표가 같아야 함에 유의하고, 내용 분량에 차이가 없게 하여, 선택 이수에 따르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단원 수, 비중, 배열 등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 후, 단원명, 주제명, 제재명 등은 학생 수준의 용어로 표현하였으며, 내용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급적 구조화, 도식화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특히, 실습 지시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정을 사진, 삽화, 설명 등으로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심화 학습이나 보충 과제를 단원의 끝에 제시하여 지역, 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선택

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읽을거리 등을 적절하게 곁들여, 학습 흥미를 높이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단원 정리 및 평가에 퍼즐 게임, 미로 학습, 점검표 등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흥미 있게 하였고, 집필진, 연구진 등의 명단을 게재하여 집필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 4. 지도서의 편찬 방향

총론에 실과 교육의 특성, 동향, 실과 교육 과정 및 그 해설, 실과 학습 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 학습 지도 이론과 방법, 실과 교과서 및 지도서의 편찬 방향 및 활용 방법, 연간 지도 계획의 보기와 이의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각론에는 대단원별로 단원의 개관, 내용 구조, 목표, 지도 계획, 소단원별(주제별) 지도의 실제, 총괄 평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소단원별로 구체적인 목표, 전개 계획, 차시별 지도의 실제 등을 제시한 후, 차시별로 목표, 학습 자료, 교수·학습 활동과 유의점, 내용 해

설 등을 제시하였다.

## 5. 교과서 및 지도서의 활용 방법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므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발굴,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고, 단위 배열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므로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순서를 조정하여 지도한다. 또한, 교과서 내의 실습 체제는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선택 과제 중 하나를 택하여 실습한다. 선택 과제로 명시된 것을 모두 지도하게 되면 지도 내용 30퍼센트 감축의 효과가 없게 된다. 심화 학습이나 보충 과제 등은 학교, 학생의 수준에 따라 변형하여 지도할 수 있다.

지도서의 각론에 제시된 대단원의 지도 계획, 소단원별(주제별) 지도의 실제, 총괄 평가 자료, 전개 계획, 차시별 지도의 실제, 학습 자료, 교수·학습 활동과 유의점 등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한다. 가능한 모든 단원에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능력에 따른 개별 학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한다.

# 체 육

최 성 식 (교육부 교육연구사)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교수·학습 방법의 안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질과 교과서의 질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초등 학교에서 활용되

고 있는 6차 체육 교과서는 교과서의 외형 체제 뿐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체육 교과서의 판형은 현재 국판이다. 이와 같은 크기는 면이 좁아 펼쳐서 보기가 불편하고 편집의 다양성을 구사하기가 어렵다. 특히, 사진과 삽화가 많은 체육 교과서의 경우 판형이 너무 작아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단원의 구성과 배열, 내용의 조직에서 현행 체육 교과서는 3~4학년이 30개 단원, 5~6학년이 31개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매우 많은 양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수업 시수는 1년 34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체육 교과서의 특성상 운동회와 같은 학교 행사와 날씨, 공휴일 등의 요인으로 34주를 모두 학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현실에 맞추어 단원의 수를 적절하게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체육 교과서의 단위 배열을 살펴보면, 기본 운동(3, 4학년), 리듬 및 표현 운동, 기계 운동, 게임, 계절 및 민속 운동, 체력 운동(5, 6학년)의 각 영역별로 약 3~9단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단원을 분산시켜 배열해 놓았다. 현행 교과서 단위 배열과 같은 조직 방법은 각 단원을 다루는 시기가 학년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 시설 및 용기구 사용에 학년별로 중복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현행 교과서는 1개 단원이 대부분 획일적으로 3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체육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움직임 교육 모형의 틀에 맞추기 위해 보건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위 내용이 움직임의 구성 요소인 신체, 공간, 힘, 속도, 관계 등의 요소

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즉, 대부분 ‘~하여 봅시다.’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단원의 특성이 잘 나타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제7차 체육 교과서의 특성을 알기 위해 먼저 체육 교과서 편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과서

둘째, 신체 활동을 통해 조화 있는 신체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과서

셋째,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실현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운동 능력과 체력을 기르는 데에 유용한 교과서

넷째,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능력을 길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발전시킬 수 교과서

다섯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습의 전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열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직된 교과서

여섯째,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과 수준을 갖춘 교과서

일곱째, 제시된 내용은 생활 안전과 건강 생활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

위와 같은 편찬 방향에 따라 만들어진 제7차 체육 교과서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체육 교과서는 판형이 현재 국판에서 4·6배판으로 변화됨에 따라 외형적 크기가 보다 크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서 판형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의 편집이 가능해져서 삽화 등의 내용 전달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가독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육 교과서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새로운 체육 교과서는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고, 체육 교과서의 활용도

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학생 자신의 능력이나 향상도 또는 자기 평가 등을 써 넣을 수 있는 워크북의 형태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셋째, 체육 교과서의 내용은 과거의 단위 배열 제시 방식에서 탈피, 내용 영역별로 제시되었다. 즉, 3, 4학년의 경우 체조 활동, 게임 활동, 표현 활동, 보건의 네 영역이, 5, 6학년의 경우 체조 활동, 육상 활동, 표현 활동, 게임 활동, 체력 활동, 보건의 여섯 영역이 각 영역별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영역별 제시 방식은 학교의 자율성을 충분히 살려서 학교 및 교사 또는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계절이나 학교 행사 등의 일정에 따라서 체육 교과서의 내용을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체조 활동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 각 영역의 내용을 시기별로 조정하여 각 영역의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한 달 동안 체조, 게임, 표현 활동의 내용을 섞어서 학습)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학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제7차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의 필수 내용’과 ‘선택 내용’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체육 교과서에는 필수와 선택 활동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 학년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최소 필수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의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한 학생들의 선택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체육 교과서를 활용할 때에는 필수 내용은 반드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 내용은 각 학교의 현실 및 교사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3학년의 ‘체조 활동’ 학습 내용으로 맨손 체조와 기구 체조가 있는데 이 가운데 맨손 체조는 필수 활동으로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기구 체조는 필수와 선택 활동이 각각 두 가지씩 있

는데 후프 운동과 막대 운동은 필수 활동이며, 줄 운동과 공 운동은 선택 활동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 학생 등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활동을 선택·학습하도록 하여 체육과 교수·학습의 폭을 넓혀 주었다.

이와 같이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체육 교과서는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교과서와 관련하여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므로, 교육 과정의 근본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간 계획을 비롯한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지역 사회나 학교 실정에 적절하도록 교사가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음 악

김 대 원 (교육부 교육연구사)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에 따른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교육적 수월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악과 내용, 성취 기준, 평가 방식을 과감히 개혁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변화되는 새 시대를 이끌어가고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라면 음악 교육의 내용, 방법, 그에 따른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바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 세계적 추세, 교육적 요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여 새 시대를 위한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 1.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방향

가.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 과정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초등 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나.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 교육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국악 교육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 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 유산을 비교, 각 음악 문화의 음악적 특질과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 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다. 활동 중심의 음악 교육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음악 자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음악 교육은 음악 개념의 이해나 기능 습득보다는 ‘음악하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등의 ‘음악하기’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음악 개념이나 기능은 이러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되도록 하였다.

라.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교육  
음악과 교육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하였다. 음악과의 교수·학습 접근은 통합적이고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실천적이고,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가창과 기악 활동뿐만 아니라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강화하였다.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음악을 듣고 구별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연주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 마.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

모든 학교는 신뢰성 있고, 타당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여야 한다. 수업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음악과의 경우, 학생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전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였다.

### 2. 교과서의 편찬 방향

가. ‘음악하기’ 중심의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① 지식 주입의 수업보다는 ‘음악하기’를 강조하였다. 의미 있는 음악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음악적 경험을 강조하는 학습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활동 형태로 제시하였다.

② 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이해와 활동의 통합을 중시하여 구성하였다. 음악 개념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습득되고,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이 두 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음악 개념의 이해와 음악 활동이 연계되게 하였다.

③ 흥미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악곡과 실생활이나 학생의 경험과 관련되는 과제 및 소재를 도입하였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적 이해를 높이고, 음악에 대한 가치를 높이며, 학생의 경험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여 생활에서 음악의 실제 적용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④ 전통 음악의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제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계속 강조되는 전통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미적 경험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학생 스스로 활동을 구성하고, 학생의 음악적 능력과 적성에 따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 과제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②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가 고려되고 주어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내용, 학습 과제, 교수·학습 자료로 구성되었다. 단순한 음악 지식이나 음악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학습 활동을 유도, 자극하는 유형으로 만들었다.

③ 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개별 학습, 협동 학습, 발견 학습, 탐구 학습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학습 활동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④ 학생들이 생각하고 활동하게 하는 탐구의 과정과 활동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교과서에는 학습 내용을 탐구, 이해하게 하는 학습 활동을 많이 제시하고, 설명적인 내용은 가급적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였다.

⑤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제시하였다.

다. 융통성 있는 체제의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① 단원 체제를 제재나 학습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구안하였다. 제7차 교과서는 제재

곡만 제시되는 경우, 제재곡과 감상곡이 제시되는 경우, 감상곡만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재의 특성에 따라 가장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제재의 특성에 따라 1차시~4차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② 재미있는 삽화·사진과 학생이 흥미 있게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악보, 악기 사진, 이야기 그림, 연주 사진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단원의 제재에 따라 교과서 전개를 다양하게 하였다.

### 3. 교과서의 활용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교과서는 하나의 모범이 되는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이므로 목표 중심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제시한 자료와 내용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되는 내용은 교사가 그 순서와 내용을 재조직하여 지도할 수 있다. 교사는 필요하다면, 교과서의 소재를 바꾸어 지도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꾸어 지도할 수도 있다.

셋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보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미술 교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 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아 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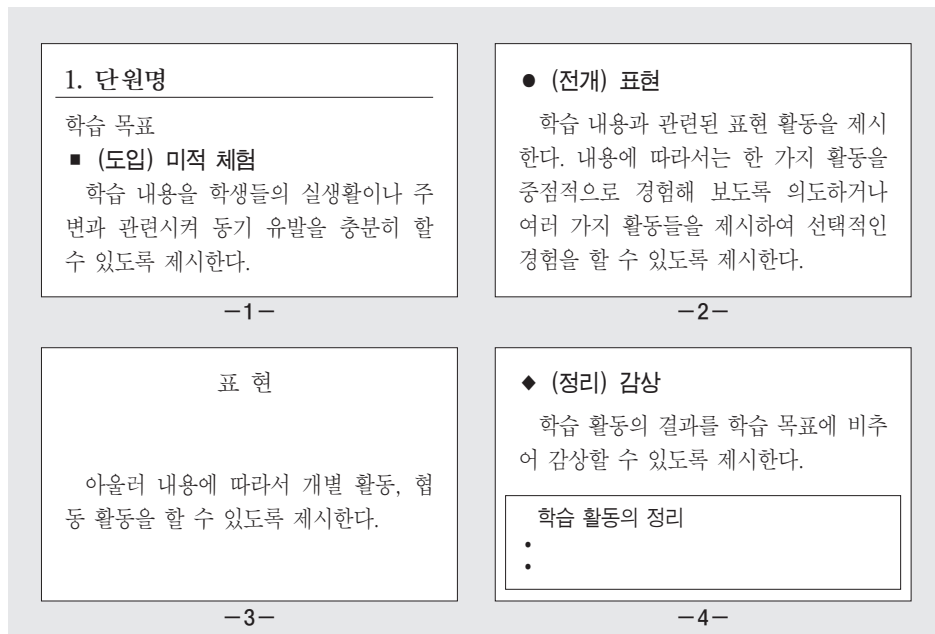
교과 내용은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제시되었다. 때문에, 새로운 초등 학교 3, 4학년의 미술과 교과서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7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양질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제작하였다.

첫째, 미술 교과서는 미적 체험 활동, 창의적·비판적 사고 능력 배양은 물론, 실생활의 경험을 주제로 미술 영역간의 통합적 제재 및 활동으로 조직되었다. 미술 교과서란 다양한 자료 중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신중하게 고려된 자료 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3, 4학년 미술 교과서는 미술 수

## 미 술

박 은 영 (교육부 교육연구사)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미술과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



【예 : 미술과 교과서 레이아웃】

업에서의 동기 유발 과정에서 교과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적 체험 활동이 제시된 자료,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자료, 학습해야 할 내용과 과정을 명료하고 친절하며 다양한 전개 체제로 제시하는 자료, 실생활의 경험을 주제로 미술 영역간의 통합적 체제 및 활동으로 조직한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제7차 미술과 교과서는 학습 분량의 최적화를 위해 6차의 7개의 영역 분류를 3개 영역으로 통합, 제시하였다. 미술과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 기본 방향에 따라 내용 구성에 있어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해 6차에서는 ‘미술과 생활’, ‘느낌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작품 감상’의 7개의 영역을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3개 영역으로 축소시켰다.

셋째, 각 학년별 목표나 내용을 3, 4학년과 5, 6학년 2개 군별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내용

의 중복을 피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년별 목표나 내용으로 분류했던 것을 제7차에서는 3, 4학년과 5, 6학년을 함께 묶어서 2단계로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중복을 피하면서 학습에 수준차를 두도록 하였다.

넷째,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와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교과서 단원의 구성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 및 활동 내용을 토대로 창의력, 상상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하나의 단원은 하나의 수업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단원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 및 활동 내용에서 핵심적인 요소나 활동을 다루도록 의도하였고, 단원마다 학습 활동의 정리를 제시함으로써 그 단원의 학습이 끝난 후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미술과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친절하게 반영한 하나의 예시 자

료이므로 학교 환경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안내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친절하게 반영한 하나의 예시 자료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주변에서 다양한 미적 체험 자료들을 준비하였다면 이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대체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 단원별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재구성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 7차 미술과 교과서와 지도서는 아이콘을 이용한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지도서 역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교과서 활용과 학습 지도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자료로 재구성이 가능하므로, 학교 환경에 따라 인터넷 등 다양한 참고 자료의 활용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다. 지도서는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과 학습 지도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도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 밖의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간 지도 계획, 그리고 단원 계획은 하나의 예시안이므로 이를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영 어

이 병 호 (교육부 장학관)

교

육부에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제 7차 교

육과정이 개정 고시(1997. 12. 30.)됨에 따라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고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의 경험, 사례 중심의 내용을 선정하여 실용적이고 유용성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교과서와 지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 도서(1종 교과서와 1종 지도서를 포함함.)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도서로 구분하는데, 이는 흔히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라 부른다. 1종 도서는 대체로 교육부에서 연구 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한다. 초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과서와 수요가 적은 실업계나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는 1종 도서로 개발된다. 2종 도서는 저작자가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과 집필상의 유의점을 바탕으로 집필한 후 교육부의 검정을 받게 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와 교과서는 대부분 2종 도서이다. 2종 도서가 편찬되어 학교에 공급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보통 3년 정도가 소요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학교 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는 제 6차 교육과정 때와는 달리 1종 도서로 개발·보급된다. 초등 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교과서, 지도서, CD-ROM 타이틀, 녹음 테이프)의 편찬 방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초등 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정신, 교육 목표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영어에 대한 생소함을 덜어 주고, 영어와 영미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심어 주어 학생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초등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사 소통의 상황과 소재를 중심으로 영어의 본질을 바르게 접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음성 언어 위주의 학습이 되도록

록 하였다.

(3) 초등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반복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놀이, 역할놀이, 게임, 노래, 챗 등 신체적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과정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다양한 시청각 매체, 특히 CD-ROM 타이틀이 가진 매체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는 언어 사용의 상황을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 재미있게 그려 학습 동기를 높이도록 하였다.

(5) 아무리 좋은 매체도 유능한 교사를 직접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충분히 숙지하여 교사가 아동들과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해 나가기에 편하도록 교과서의 내용과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 CD-ROM 타이틀이나 녹음 테이프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큰 교수·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6) 기존의 교과서와는 달리, 교과서의 '예비 학습란'에 가장 기초적이고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주제별로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각 단원의 학습에 들어가기 전이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각 단원의 학습 중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 학교 영어 교과서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을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 주고,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에 효과적이며 활동과 과업 중심으로 구성하되,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 교과서의 내용도 의사 소통 능력을 유의미한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관을 길러 주며,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활동 중심

으로 엮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임, 노래, 챗 등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를 외국에 이해시키는 데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과서는 8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단원의 기본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면서 들어봅시다(Look and Listen)'에서는 소리·식별력을 신장시켜 사실적 이해 능력과 추론적 이해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따라 말해 봅시다(Listen and Repeat)'에서는 원어민의 말을 듣고, 정확한 발음으로 발화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챗나 노래로 배워 봅시다(Let's Chant/Sing)'에서는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영어의 리듬이나 억양 등에 친숙해지도록 하였으며, '그림을 보면서 말해 봅시다(Look and Speak)'에서는 그림, 사물, 행동 등을 보고 그 내용을 영어로 표현해 보게 함으로써 가상의 상황에서나마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놀이나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Let's Play/Role-Play)'에서는 놀이나 역할극 등을 통하여 언어 사용과 관련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Let's Review)'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활동을 고루 정리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화·보충형 수준별 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교사에게 외국의 문화 이해 등 많은 정보를 주며 활용하기 편하고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적합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2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의 활용

박 제 윤

교육부 교육연구관

##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기본적인 논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기초·기본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기되는 주요 논의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학급당 학생 수는 양적인 지표이기는 하나 수업의 과정에서 개인차가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우선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러한 여건이 잘 갖추어지면 교육과정은 더 잘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학급의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조건이 바로 ‘교육과정의 개별화’ 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문제이다. 즉, 학생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그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즉 교육의 개별화는 실현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정의 개별화나 다양화는 학급의 크기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의 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준별 수업은 반드시 이동 수업으로 운영해야 하는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준별 반편성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수준별 반편성이나 동일 학급 내에서 수준별 분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 모두 수준별 교육의 한 가지 형태이기 때문이다.

수준별 반 또는 수준별 분단을 편성할 것인지, 수준별 집단 대신에 이질 능력 집단을 편성할 것인지 등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하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이동 수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반편성을 하여 학생을 배정하는 우열반 형태가 아니라 개별 학생마다 교과목별로

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수준의 반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을 편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과정 외에 보충·심화 학습의 기회 부여를 통하여 기초 학력을 확실하게 길러 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서 하위 수준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능력별로 학생을 구별하여 수업을 실시할 경우 일부 하위 수준 학생들은 피해 의식이나 소외감 또는 자신감의 상실 등의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체적인 학습 속도가 높아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더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소수의 학생이나마 스스로 피해를 입는다고 느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의 열등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른 논의 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학, 영어 교과는 모든 학생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에 최종 단계(수학 10-나, 영어 10-b 단계)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하며, 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1, 12 학년에서 이수해야 한다.

단계 진급 자격 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계 진급 자격 기준 설정은 전적으로 단위 학교에 일임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다만,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국가가 제시한 절대 평가 기준을 참고로 당해 학교의 교과별 진급 자격 기

준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단계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적 의의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서 단계 진급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을 걸러 내어 재이수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모든 학생이 도달하도록 의미 있는 수업을 제공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단계마다 기초 학력 이해 여부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한 후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교과 재량 시간을 활용하거나 특별 보충 과정을 편성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이수해야 할 목표에 모든 학생이 도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학교에 부여된 책무성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단계 진급 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학습 결손을 보충시켜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시기, 기간, 교사 배치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학생 수준을 고려한 보충 과정 교수·학습 자료 재구성에 노력해야 한다.

#### 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현재와 같이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학습의 양과 폭을 달리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국어, 사회, 과학, 초등 영어 교과에서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소 기준으로 기본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는 기본 학습 내용을 심화 확대하는 '심화 학습'을, 성취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기본 학습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지식을 보충하는 '보충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심화와 보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심화와 보충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내용이 아니라 능력이다. 즉, 심화와 보충은 학습 내용의 범주가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 학습 능력의 수준이 차별화되는 관계에 있다. 보충 과정은 기본 과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또는 단순화한 상태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낮춘 과정이 되고,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또는 복잡, 확대한 상태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능력 수준을 높인 과정이 된다.

심화, 보충 과정 간의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국가 기준에는 사회과의 경우에만 단원, 주제에 배당된 시간의 약 80%를 기본 과정에, 약 20%를 보충 및 심화 과정에 할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에서 제시한 시간 배분은 예시적 기준으로 다른 교과와 경우 이를 하나의 모형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과정에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의 교육 내용만 제시되고 왜 보충 과정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가?

심화 과정 내용은 기본 과정에 더하여 제시하는 ‘추가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수준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 과정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보충이어야 하는데, 국가 수준에서 미리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충 과정은 학교가 기본 과정의 중요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심화·보충 과정은 매시간 운영하여야 하는가?

심화·보충 학습은 가능한 단위 학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필요에 따라 단위 시간, 소단원, 주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학생의 특성이나 학교 현장

의 여건, 교과의 성격, 내용 영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의 판단에 따라 신중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원의 끝에서만 아니라 단원의 학습 중에 수시로 심화·보충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 결손이 오래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특별 보충 과정의 편성과 운영

특별 보충 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수학, 영어 교과에 있어서 학생의 학업 수준 격차가 크므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 보충 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학교가 고려할 사항은?

특별 보충 과정 대상자가 한 명도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일 것이다. 그러나 학습 결손이 발생하여 특별 보충 과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 학생의 수준,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시기 및 운영 시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대상 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일도 필요하다.

특별 보충 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학교 여건과 대상 학생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별 보충 과정 운영시 열등감과 위화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준별 교육과정은 기본 과정 외에 보충·심화 학습의 기회 부여를 통하여 기초 학력을 공교육이 보장하자는 것이다. 특별 보충 과정은 이제까지 학교 교육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학습 부진아에 대한 의도적인 배려를 통하여 학습

부진의 정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동시에 대상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요구 수준이 다양하므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 라. 수준별 수업에 있어서의 평가

수준별로 편성하여 이동 수업을 하는 경우 배우는 내용이 서로 다른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과과 평가시 기본 과정만을 대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심화·보충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평가는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심화·보충 학습의 활동 과정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를 파악하여 담임 교사가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수준별 수업에서의 교과서 활용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 교수·학습의 주된 자료로 활용된다.

전통적으로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배워야 하는 ‘금과옥조’로 이해되어 왔으나,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는 교과서의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는 먼저 교육과정을 숙지한 이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게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지도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감축할 수 있으며, 지도 내용의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교과서의 재구성을 시도한다면, 교육과정에 제시한 목표와 중요한 내용을 간과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기본 내용 중에서 보충 과정의 내용을 편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는 보충 과정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사는 학생에 대한 형성 평가를 통해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쉬운 수준으로 재구성하여 보충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심화·보충 학습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심화·보충 학습 자료는 시·도 교육청이 개발하여 제공한 것을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보충 자료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담당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거나 학습 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재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

다만, 학교에서 교재를 직접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 시·도 교육청이 교재 개발 및 활용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23

##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 운영

이 병 호

교육부 장학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실험·연구·시범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전국에 공개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험용 교과서와 지도서의 수정·보완을 위한 자료와 의견을 수집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에 대비한 시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 지정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의 주요 임무는 (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실천 가능하게 편성하고 시범 운영하여야 하며, (2) 교과용 도서 수정 보완 자료와 분석지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과용 도서 분석 관점'에 따라 세밀히 작성하고 동학년 및 교직원 협의회,

교과용 협의회를 통한 종합적인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3) 실험용 교과서와 지도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타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업 공개와 면담, 협의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교과용 도서의 관련 교과별 성취 기준이나 평가 기준의 적합성과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한 제언 등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연구 학교의 연구 추진 과정에서 연구 지도는 연구 과제를 부여한 기관인 교육부에서 실천하고, 학교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당해 학교에 적합한 현실적인 자료 개발 활용과 학교 교육 활동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 학교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육 효과의 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정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16개 학교와 국립 사범 대학과 교육 대학교 부속 초등 학교 17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연도(1999. 3. 1.~2000. 2. 28.)에는 1, 2학년 5개 교과 및 재량·특별 활동 등 59책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전국 33개 학교를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을, 2차 연도(2000. 3. 1.~ 2001. 2. 28.)에는 3, 4학년 9개 교과 및 재량·특별 활동 등 78 책을, 3차 연도(2001. 3. 1.~2002. 2. 28.)에는 5, 6학년 10개 교과 및 재량·특별 활동 등 72 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험·연구 학교의 실험·연구 방법에 관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대상 학교를 교체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다.

둘째, 1차 연도에는 교과 간의 통합 운영과 교과 및 학년 간의 관련, 계열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교과를 운영하고,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는 효율적인 적용과 자료 수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별로 집중 연구 교과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모든 교직원의 공동 참여와 현장 수업을 통하여 교육 계획, 내용, 방법, 평가, 자료의 연구 개발 등 교육의 질적 관리와 교수·학습 개선에 중점을 둔다.

넷째,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교과별 평가 기준 시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적합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일반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실험·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교육 행정 기관과 교육 연구 기관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부의 교과 편수 업무 담당자 및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연계 연구를 추진한다.

교육부에서는 실험·연구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으로 하여금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험·연구 학교에 우수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정기적으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장학 협의시 적절한 지도 조언 등을 통한 교육 조직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학교당 연간 800만 원을 국고(지방 자치 단체 경상 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 대학교 부속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소속 대학에서 필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은 기초 실태 조사, 도서 구입, 자료 제작 및 구입, 협의회 참석 여비, 집중 작업비 등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료 개발 등 실험·연구 추진에 부족한 비용은 시·도 교육비 특별 회계에 반영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연구 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 및 학교를 선정, 표창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 운영의 성공 여부는 실험·연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교과용 도서 개발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의 구축 및 효과적 운영에 있다고 본다. ☞

# 한 선구자의 교과서관

— 고 강우철<sup>1)</sup>의 생각을 찾아서 —

김 만 곤

교육부 장학관

## 1.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교육부에서는 교과서를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 정의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정의에 비해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과 영역의 학습 내용을 책자로 엮은 것”<sup>3)</sup> 혹은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인 동시에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sup>4)</sup>라는 정의 등 다른 정의도 많다.<sup>5)</sup> 교과서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은 교과서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획일적인 지식 전달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학생의 개인차에 맞추어 다양화해야 하며, 따라서 ‘교과서 중심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관점에 따라 오랫동안 ‘교과서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 중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라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교과서에 관심을 가진 우리 나라의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관점에 관심을 나타내기 보다는 대체로 교과서가 1종이나 2종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sup>6)</sup> 하루 빨리 모든 교과서가 자유 발행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

이 글은 교육과정 정책이 국가 수준 중심에서 지역과 학교의 자율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아직 2종 교과서나 인정 교과서, 자유 발행 교과서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도 거의 없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에 앞서 일찍부터 교과서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 고 강우철(故 康宇哲)의 교과서관이 나타나 있는 일부 자료를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 2. 어떤 교과서가 필요한가?

우리 나라의 경우 교과서관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석적인 연구는 실제적으로 1975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 같다.<sup>7)</sup> 그것은, 1777년에 발표된 다음의 표와 같은 내용이 지금까지보다 구체화되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교과서를 이미 학습의 도구인 자료집으로 보았던 이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새 교과서 모형 개발을 시

〈교육과정의 유형과 교과서관의 변화〉<sup>8)</sup>

교육과정 유형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지도 요소의 반영	○ 지적 체계	○ 생활 문제 ○ 기본 해결 과정	· 기본 개념 · 지적 탐구 과정
교수 절차의 반영		○ 연습 및 실습	· 체계적인 교수 절차 (수업 과정 모형)
교과서의 위치	원 전 (절대적 권위)	자료집 (학습의 도구)	자료집 (학습의 도구)

도한 1977년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sup>9)</sup>를 보면, 교과서를 ‘학생들이 지니고 스스로 탐구해 나가기 위한 ① 교재 내용의 일종, ② 자료의 일종, ③ 학습 방법의 지침, ④ 일반 수업 절차의 지침 등’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과서 자체의 빈약성, 학급 인원의 과다, 교구 시설의 빈약, 자료의 부족, 교사의 지도 능력 문제 등으로 교과서를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머리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학습 자료를 넉넉히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교과서는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일 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목표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

이와 같은 교과서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꼭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고, 둘째는 지적 발달을 자극하고 촉구해 주는 일이다. …….

교과서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 중의 중심적인 자료의 하나로 그 위치가 달라져 가고 있다. 적은 양의 지식을 배워 가지고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 창조해 낼 수 있게 하는 효능을 가진 그러한 “적은 양의 지식”을 수록해야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교과서는 ‘지식을 전수’하는 교과서에서 ‘지적 발달을 자극하고 촉구하는 중심적인 학습 자료의 하나’로 그 위치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77년의 연구에 이어 1979년 12월에 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sup>10)</sup> 이 세미나의 자료에서 강우철은<sup>11)</sup>, 교과서가 무풍 지대에서 성경이나 고전과 같이 신성하고도 권위 있는 자세를 지키고 있는 현실에서의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 ① 교과서는 한 학년 한 교과에 한 권씩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관념상의 문제
- ② 교과서관 만드시 활자로 인쇄된 책, 그것도 국판형이어야 한다는 생각
- ③ 교과서관 “학생들이 집과 학교 사이를 내왕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 책”이라는 정의

등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제도상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 ①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이 적절하지 못하다.
- ② 인쇄 업계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두어야 할 것이다.
- ③ 일부 교과에는 전국판과 지역별 교과서를 구분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는 것을 들어, 이러한 요구 조건을 교과서 모형에 집약시켜 보면 ‘새 교과서 모형에의 기대’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① 교과별로 특색과 개성이 강한 교과서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종전에 국어와 사회(도덕)는 교과서로서의 개성을 잃은 것들이었다. 교과별로 개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학습 지도에서도 그만큼 책임 있는 수행을 하게 될 것이며, 국민 학교 고학년에서는 교과 교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 ② 아래와 같은 종전의 미신은 단연 타파해야 할 것이다.

- 교과서의 이름과 교과명의 일치
- 1 교과 1 교과서(책)주의
- 국판 이외의 크기에 대한 기피증(4·6판, 크라운판, 4·6배판 등의 구사)
- 색도가 많을수록 좋다는 미신
- 학생 자습서와 교과서를 애써 구분하려는 태도
- 교과서는 내용을 간추린 골자이기 때문에 매력 없고 재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책임 회피증
- 일본식 교과서 모형에 대한 공감
- 미국식 교과서 모형에 대한 열등 의식 내지는 자포자기
- 교과서는 학생 전원이 고루 구비해야만 한다는 생각
- 교과서는 학교와 집 사이를 반드시 지니

고 다녀야 한다는 고정 관념

-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에 더 편리하게 만들려는 의도
  - 교과서에 대한 지나친 신성시 내지는 권위 부여
  - 교과서의 내용은 시험에 낼 주요 사실의 조직이라는 관점
  - 교과마다 교과서는 반드시 있어야 편리하다는 생각
  - 미술, 음악 등은 자료와 이론을 따로 편찬하기 어렵다는 단정
  - 도덕 교과서는 사례집, 예화집으로 구성하면 교과서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생각
- ③ 새 교과서의 모형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되 교과 개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 흥미 유발
    - 내용의 개념 구조
    - 개념의 설명 및 최소한의 사실
    - 탐구 과정
    - 자학 자습의 기회
    - 탐구를 돕는 자료
  - ④ 교과서 제작에는 최소한 다음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 교육과정 이론가
    - 교과 교육 전문가
    - 해당 학교 교과 교사
    - 교과 내용 학자
    - 교과서 삽화(그림, 사진) 전문가
    - 교과서 연구가
    - 교과서 레이아웃 전문가
    - 윤문가 또는 국어 전문가
    - 문교부 교과 연구관
    - 기타(사회, 학부모의 의견)

그는 또 ‘추상적이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 좋은 교과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 ① 가르치기에 편리하고
- ② 배우는 데 유용하고
- ③ 교과 교육 목표의 특성을 잘 반영시켜야 하며
- ④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하며
- ⑤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경주된 것

그는 이 글에서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교과서의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 편찬 기준 및 계열별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2)</sup>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또 1985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 교과서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 교과서관을 정립하겠다는 목적으로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간 고사, 기말 고사 등 각종 학교 교육의 평가 기준 또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교육적 현실은 우리 학교 교육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여 당시의 교과서관을 지적하고,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할 표준적인 내용을 담은 것, 학생들이 배워야 할 유일무이한 자료로 생각하는 고정 관념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3)</sup>

이 보고서는 또 교과서관의 변화에 대한 함종규(1963)<sup>14)</sup>, 강우철(1979)<sup>15), 16)</sup> 등의 주장을 인용하여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습 내용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전통적인 서적 중심의 교육에서와 같이 교과서 위주의, 또는 교과서 하나에만 의존하는 학습을 위한 것이 되어서

는 안 된다.”고 하였다.

1986년 11월에는 한국2종교과서협회에서 ‘2000 년대의 한국 교과서의 미래상’이라는 주제의 교과서 개선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강우철은 발표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sup>17)</sup>

-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한다. 교과서를 논어, 맹자격으로 보는 선생님이나 저자가 있는가 하면, 교과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가르치는 사람이 그 중에서 교육의 방침과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교과서를 배우는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는 아니며 교과서도 하나의 교육(수업) 매체이고, 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도구이다. 교과서를 논어, 맹자격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교과서를 활자 매체로 볼 것이고, 기본적인 내용의 서술로 볼 것이며, 간결하기를 원할 것이나, 보는(또는 듣는) 교과서, 생각하고 스스로 조작하는 교과서, 학습 자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주는 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교과서는 대학 교수가 쓰는 것이 손쉽게 신임을 받기 편하다는 통념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 필자, 심사자, 정부측 모두 ‘좋은 교과서’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 1종 교과서 복수 간행, 국어와 도덕, 국사의 2종화, 1종과 2종의 병행 및 선의의 경쟁 유도,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방 교육 자치 단체의 공헌, 출판사의 계속적인 서비스제 등이 정부의 교과서 정책에 도입될 수도 있다. 컴퓨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수업 매체를 전체적, 구조적으로 재검토하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3.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상과 같이 강우철의 20여 년 전의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 있는 자료의 일부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개발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점, 명심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의 생각이 정책적으로 실현된 것과 실현될 수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다.

#### 가. 교과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

-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한다.’, ‘교과서를 배우는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는 아니며 교과서도 하나의 수업 매체이고, 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도구이다. 교과서를 논어·맹자격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교과서를…… 기본적인 내용의 서술로 볼 것이며 간결하기를 원할 것이나, 보고 듣는 교과서, 생각하고 스스로 조작하는 교과서, 학습 자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주는 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의 생각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일관되게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라는 관점을 유지하여 왔으나, 학교 현장이나 일반 국민들은 이 관점을 아직 잘 수용하지 않고 있다.<sup>18)</sup>
- 교과서는 ‘꼭 필요한 지식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지적 발달을 촉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확산되었으나 아직도 전자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초등 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심하다.
- ‘교과서별로 특색과 개성이 강한 교과서가 나타날 것이다. 종전에 국어와 사회(도덕)는 교과서로서의 개성을 잃은 것들이었다. 교과별로 개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학습 지도에서도 그만큼 책임 있는 수행을 하게 될

것이며, 초등 고학년에서는 교과 교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일부 실현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교과서에 관한 정책의 변화

- ‘교과서는 한 학년에 한 권씩 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비판)은 초등 학교의 경우 제 5차 교육과정기 이후 ‘1 교과 다교과서주의’라는 정책에 따라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교과서가 많거나 두꺼우면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1 교과 1 교과서주의’가 고수되고 있다.
- ‘교과서는 반드시 활자로 인쇄된 책, 그것도 국판이어야 한다.’는 생각(비판)은 제 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크게 개선되었다. 교과서의 정의도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 저작물 등(보완 교재)’으로 바뀌었으며, 교과서의 판형은 4:6 배관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 ‘일부 교과에는 전국판과 지역별 교과서를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그가 초등 학교 사회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을 맡아 4학년 1학기 ‘사회’와 ‘사회과 탐구’ 교과서의 1단원 ‘우리 시·도의 생활’을 시·도별로 각각 다르게 편집함으로써 ‘지역단원’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제 6차 교육과정기 이후 이것이 한 학기를 단위로 하는 ‘지역 교과서’로 발전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 ‘교과서의 이름과 교과명의 일치’, ‘1 교과 1 교과서(책)주의’, ‘국판 이외의 크기에 대한 기피증(4:6 판, 크라운판, 4:6 배판 등의 구사), ‘색도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교과서는 내용을 간추린 골자이기 때문에 매

력 없고 재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책임 회피증' 등 그가 미신이라고 한 일부 고정 관념은 어느 정도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집필진이나 심의진 중에는 현장 교원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교과서는 대학 교수가 쓰는 것이 손쉽고 신임을 받기 편하다'는 통념은 고쳐지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책 중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에 의한 것이다.
- '컴퓨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수업 매체를 전체적, 구조적으로 재검토하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1986 년의 그의 생각은 제 7 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각 교과별 교과서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을 넣도록 한 조치에 따라 비로소 실현되고 있다.<sup>19)</sup>

다. 아직 개선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

- 교과서에 대한 정부 컨트롤의 수준(적절성)을 높여야 한다.
- 인쇄업계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미신은 단연 타파되어야 한다.
  - －자습서와 교과서를 애써 구분하려는 태도
  - －일본식 교과서 모형에 대한 공감
  - －미국식 교과서 모형에 대한 열등 의식 혹은 자포자기 의식
  - －교과서는 학생 전원이 고루 구비해야만 한다는 생각
  - －교과서는 학교와 집 사이를 반드시 지나고 다녀야 한다는 고정 관념
  -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에 더 편리하게 만들려는 의도
  - －교과서에 대한 지나친 신성시 혹은 권위 부여
  - －교과서의 내용은 시험에 낼 주요 사실의

조직이라는 관점

- －교과마다 교과서는 반드시 있어야 편리하다는 생각
- －도덕 교과서는 사례집, 예화집으로 구성하면 교과서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생각
- 새 교과서의 모형은 어떤 형태로든지 흥미 유발, 내용의 개념 구조, 개념의 설명 및 최소한의 사실, 탐구 과정, 자학자습의 기회, 탐구를 돕는 자료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되 교과서의 개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 교과서 제작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최소한, 교육과정 이론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해당 학교 교과 교사, 교과 내용 학자, 그림과 사진 등 삽화 전문가, 교과서 연구가, 교과서 레이아웃 전문가, 운문가 또는 국어 전문가, 문교부 교과 연구관, 사회와 학부모).
- 다음과 같은 생각이 정부의 교과서 정책에 도입될 수 있다.
  - －1 종 교과서 복수 간행
  - －국어와 도덕, 국사의 2 종화
  - －1 종과 2 종의 병행 및 선의의 경쟁 유도
  -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방 교육 자치 단체의 공헌
  - －출판사의 계속적인 서비스제 등 <sup>20)</sup>

1. 필자는 故 康宇哲 선생의 약력을 잘 모른다. 정년 퇴임 기념 문집 발간 축하연 때에도 약력이 적힌 자료를 배부하지 않았고, ‘달라져야 할 사회과 교육’ 등 5 권의 문집 어디에서도 약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미국 조지 피버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였고, 제 1 차 교육과정기에 교육부 편수국 역사과 편수관을 지냈으며,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재직한 정도만 알고 있다.
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대통령령 제 8660 호 : 16 차 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 16040 호) 제 2 조(정의) 제 2 항.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 저작물 등(이하 “보완 교재”라 한다)을 말한다.
3. 홍웅선(1979),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세미나 보고서」, P. 1.
4. 중앙교육연구소(1969), “교과서 내용 분석과 행정에 관한 연구”(프린트), P. v 및 이영덕 외 2 인(1968), “국민 학교 교육 과정과 학습 지도의 분석적 연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프린트), P. 129 에서 인용한 한면희 외 6 인(1977. 2.), 「새 교과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제 54 집), P. 1 에서 재인용.
5.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 외에, 편수 업무 참고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더 나열한 적이 있다(문교부 편수국 교육과정담당관실, 1987,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 : 미간행).
  - 교과서는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알맞게 편집된 학습 자료로서 학생용 도서이다.
  -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교재 중에서 가장 계통적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교재의 하나이다.
  - 교과서는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담고 있는 공식화된 교수·학습 자료이다.
  - 교과서는 교과가 지니는 지식, 경험의 체계를 쉽게,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이다.
  -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등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알맞게 풀이하고 편집한 학교 학습의 도서이다.
  -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으로 구성된 학생용 도서이다.
6.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1 종이 검정인 2 종보다 절대적으로 더 많으나, 1 종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초등 학교 교과서와 검정 신청이 거의 없는 특수 학교 교과서 및 고등 학교 전문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특징적인 것은 중·고등 학교의 국어, 국사, 도덕 교과서가 1 종이인 점이다.
7. 한국검정교과서발행인협회에서 1963년에 「교과서회지」를 발행하여 교과서관에 대한 연구물이 실리고, 중앙교육연구소에서는 1969년에 ‘교과서 내용 분석과 행정에 관한 연구’(프린트물)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8. 강우철 외 8 인(1975), “사회과 교육과정의 유형”, 「사회과 교육」(교과 교육 전서 5, 능력 개발사), PP. 23~28. 을 인용한 한면희 외 6 인(1977. 2.), 「새 교과서의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 54 집), P. 14에서 재인용.
9. 한면희 외 6 인(1977. 2.), 상계서
10. 신세호 외 16 인(1979. 12.),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부록) - 국민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제 109 집) :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홍웅선), 국민 학교 교과서의 성격과 기능(한종하), 교과서의 개발(강우철), 교과서 평가 기준(강우철), 교과서 정책(함종규) 등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11. 강우철(1979), “교과서의 개발”, 신세호 외 16 인(1979), 상계서, PP. 23~32.
12. 강우철(1979), “교과서 평가 기준”, 신세호 외 16 인(1979), 상계서, P. 33~46.
13. 이영덕 외 7 인(1985),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RR 85-30). PP. 21~22. 14. 교과서회지 제 1 집(1963)에 게재된 함종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라는 글에서 “학교에서 달성하려는 학습 목표 및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 내용의 변화로 인하여 교과서의 비중을 종전의 학교 교육에서와 같이 무겁게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교과서라는 말 대신에 학습 자료 또는 학습 참고용 도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의 역할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인용하였음.

15. 강우철(1979), “교과서의 개발”, 신세호 외 16인「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부록) -국민 학교를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를 위한 세미나 자료), PP. 23~46에서 새로운 교과서의 출현을 막고 있는 강력한 요인 세 가지를 인용하였음.
16. 교과서가 유일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내용을 선정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관한 지식을 모두 제시해 줄 수 없으며,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없다. 둘째, 교과서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이나 지역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고 한 견해(Deighton, 1971)와 교과서를 사용하는 의의는 학생들이 읽고 활용할 자료를 가지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어떤 교과나 학년에 있어서는 하나의 표준적인 교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교나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Stephen et al., 1978)를 더 인용하였음.
17. 강우철(1986. 11.), “사회자의 맺는 말”, 한국2종교과서협회,「2000년대 한국 교과서의 미래상」(교과서 개선 연구 세미나 보고서), PP. 68~75에서 요약함.
18. 교육부의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려 있다.(1998~2000년도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 참조)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서

구 분	전통적인 교과서	바람직한 교과서
① 교과서관	· 금과옥조형 교과서 ·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 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서	·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주된 자료)인 교과서 ·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 기능·태도 영역에 유익하고 창의력, 사고력을 배양하는 교과서
② 진술 형태	· 지식 요약형, 개념 압축형, 강의 요강형	· 다양한 사실, 사례 제시형 · 학습 과정(절차, 방법) 중시형
③ 단원 전개 체제	· 전 교과서에 하나의 전개 체제 적용	· 단원, 주제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전개 체제 적용
④ 내용 선정	· 지식 중심, 교사 중심 · 실생활과 유리된 내용	·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경험·사례 중심, 학생 중심 · 교과서 내용의 실용성, 유용성 추구
⑤ 내용 조직	· 지식 체계별 단선형 조직 · 문장, 삽화의 단조로운 구성	· 관련 지식과 실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조직 · 다양한 편집 체제의 도입
⑥ 개발 과정	· 기초 연구가 소홀한 교과서 개발	· 기초 연구를 보다 중시한 교과서 개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과서 개발

19. 이 조치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편찬에 처음부터 반영된 것은 아니며(초등 학교 1, 2학년의 교과서는 1998년에 시작되었음.), 2000년도 대통령 신년사의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국민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에 따라 교과별로 약 10% 정도의 학습 활동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되게 하자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적절한 것인지, 수용의 정도는 알맞은 것인지, 그 방법은 적절한 것인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종 교과용 도서의 발전 방향

김 정 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1. 중학교 1학년 2종 도서 검정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용 도서 검정(본검정과 재검정)을 2000년 2월부터 11월까지 교과서·지도서의 기초 조사, 1차 심사, 2차 심사 등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검정연구위원회와 검정심의위원회는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교육부 1998, 1999)을 준거로 도서의 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본검정에서 교과서는 출원 도서 312종의 33.7%인 105종이 합격되었으나, 지도서 심사에서 7종이 탈락되어 최종 합격본은 교과서 98종, 지도서 92종이었다. 본검정에서 불합격 결정을 받은 저작자가 출원할 수 있는 재검정에서는 신청 도서 65종 중 41종만 합격(64%) 되었다.

검정 과정의 특징은 기초 조사(내용 오류, 표현·표기, 편집 디자인, 어휘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하여 판정함으로써 심사 자체의 질적 수준을 높였으며, 교사 참여(연구위원 전원, 검정심의위원의 1/2)를 확대한 점이다. 교과

용 도서는 내용의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그 진술 방식과 외형 체제 등 총체적인 면에서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조사를 강화하였으며, 교과용 도서는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정을 하고자 하였다. 검정 결과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낮고 지도서도 불합격된 점이다. 사전에 합격 종수를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판정을 한 결과 불합격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교과검정심의위원회가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질 높은 도서를 선별하고자 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며, 교사용 지도서의 불합격 결정은 지금까지 지도서를 교과서의 부속물 정도로 보아 저작자가 그 질적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관행 때문인 듯하다.

### 2. 검정 합격 도서의 경향성

#### 가. 검정 교과서의 특징

검정 과정에서 교과서는 주로 ‘제 7 차 교육과정의 준수, 교수·학습·평가, 참신한 내용·독창적 구성, 내용 오류, 편집·디자인’ 등을 보았고, 지도서 심사는 ‘교과 교육 동향·교육과정·도서 편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

지도 방법 및 평가의 다양한 사례 제시'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내용과 외형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 이번 검정의 특징이다.

교육과정의 준수란,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제시된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모두 반영하되 그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맞도록 한정하고 수학과 영어 및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수준별 내용을 실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지가 심사의 초점이었다. 그리고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자료를 제시하였는지, 특히 실생활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소재를 도입하고, 정보화 교육을 위한 자료나 학습 과제 및 컴퓨터 사용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내용 자체의 정확성과 실용성, 체제 구성의 참신성 및 학습 방법의 다양성 등이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에서는 전과 다르게 편집·디자인과 표현·표기 부문도 전체 질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였다.

‘교과서인가, 잡지인가?’, ‘이것 교과서 맞아?’ 지난 10월 27일자 모 일간 신문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관련 기사 제목과 같이, 새 교과서는 읽는 교과서에서 보는 교과서로 외형 체제면에서 달라진 점이 많다. 확대된 판형(4·6배판)에 4색도로 인쇄한 교과서는 지면 구성이나 사진·삽화의 선명도에서 첨단 편집 경향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외형 체제의 혁신에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에 비한 편익이 더 클 것이다. 아무리 영상 매체를 사용하는 가상 공간 시대라 하여도 교과서라는 서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의 체제 개선은 우리 나라 교과서사에 새로운 차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외형 체제가 아무리 화려하여도 내용 열개가 교과서답지 못하면 그 구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내용과 형식을 고르게 갖춘 교과서를 선별하였다. 내용상의 특징을 범교과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구현코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교육과정이 밝힌 ‘학습 자료 중심형 교과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례와 탐구 과제를 통하여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 핵심 개념과 실생활 경험을 연계시켜 학습의 유용성을 높이는 학생 중심 교과서, 학습량 경감 및 수준별로 차별화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문장 진술, 교수·학습 내용 구성 및 평가 등 여러 부문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학생들이 교과서를 문장 공부의 모델로 삼아도 될 정도의 문장 표현·표기를 바로 잡았다. 국어 어문 규정에 맞추어 표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비문(非文)이나 외국어 번역투, 과도한 장문 등을 고치고,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말과 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우리 교과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주장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주로 꼬인 문장이나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학생 수준에 맞도록 걸러 내지 않고 사용한 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사실을 나열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설명 중심 방식으로 전개하던 체제 구조를 의문 유발형 구성으로 전환하여 정답주의를 벗어나는 동시에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 도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기존 지식을 맹목적으로 암기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나 평

## 교과서 개선은 곧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 21세기 교육 혁신을 교과서 개선에서 찾으려는 것이

### 이번 검정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가 과제를 도입해야 학습 과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많이 제시한 점도 검정 교과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과 연계되는 부분으로서 정보 매체 활용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윤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검정 심사의 기본 방향은 어느 과목이든지 공통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 과학 교과서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을 보면 그 방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 활동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 개인의 과학적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따라서, 과학 교과서의 내용은 과학의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여러 탐구 활동을 통해 기본 개념의 구조적 이해, 수렴적이고 발산적인 탐구 능력과 바람직한 과학적 태도의 함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의성 및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학습 내용은 단계적으로 심화하도록 하고, 기억하고 있는 과학의 원리와 법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보다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험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습 소재는 실생활, 과학-기술-사회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학생들

이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하 생략)”

(과학 1 교과서 부적격 판정 이유서의 도입 부분)

이 예를 보면, 교과서는 학생들이 암기해야 할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안내하는 사고와 활동의 징검다리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본 개념은 교과서에 따라 이해하되 그것을 응용하는 활동 과정은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며, 교과서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을까 하는 비판적인 분석도 해 보고 스스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도 구성해 보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되고 학습 능력과 그 성취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교과서는 한 교과 안에서 그 지식 체계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범교과 관련성이나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등을 강조하여 배운다는 활동의 실용성과 사고 차원의 확장을 대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개선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21세기 교육 혁신을 교과서 개선에서부터 찾으려는 것이 이번 검정의 기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나. 검정 교과서의 한계

검정 과정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교과서를 선별하고자 하였지만, 검정 과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우선 기대하는 것만큼 독창적인 교과서를 많이 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저작자가 새로운 체제 혁신을 하는 데에 위험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혁신적으로 체제를 구성하여도 심사 위원들이 보수적인 경우에는 그런 특징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현행 교과서 체제를 그대로 지키려 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사용하는 사진이나 삽화 또는 설명을 위해 도입한 사례는 다름지 모르나 전체 흐름은 비슷하다는 점이 검정 기대 수준과 맞지 않았다. 현행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놓아 내용 자체에 틀린 부분은 적지만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독창성과 참신성 등이 없어 불합격된 도서도 있고, 지면 활용이나 사진·삽화 등 편집 체제는 다소 부족하지만 도입한 소재와 학습 전개 방법이 참신하다고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교과서는 잘 만들었지만 지도서에 쏟은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듯한 경향도 검정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도 검정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도서가 교과서보다 더 크다. 교사가 교과서를 가르칠 때 그 내용의 설명이나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방법 및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지도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전공 교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지도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므로 지도서를 정확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는 공개적으로 그 잘잘못을 비판할 수 있지만 지도서는 교사 개개인만 활용하기 때문에 평가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이번 검정에서 지도서를 별도로 심의한 이유는 바로 그 질을 높이하고자 한 때문이다. 지도서는 교과 교육의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교육과정 개편 배경을 해설하며, 교과에 적합한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교과서와 지도서의 개발 방향을 설명하여 교

사가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 방향을 빼 놓은 지도서도 있고, 별 설명도 하지 않고 교과서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지도서도 있었다. 그 축쇄본을 선호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지만, 이미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지면 활용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교사가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와 같이 검정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살리고 한계점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앞으로 교과서 혁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 2종 도서의 과제와 발전 방향

교과용 도서 검정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교과 내용에 따른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선별하여,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도서만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종인 국정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자유 발행체에 비해 엄선된 상품만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검정 제도의 장점이다. 교사의 교육권을 가르칠 교재 제작이나 선택의 자유라는 권능까지 포함하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검정 제도하에서는 교과서 제작을 원하는 교사는 누구든지 검정 출원을 할 수 있고, 또 합격된 여러 종의 도서 중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검정 제도는 그 자체 합리적 타당성을 가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여러 나라가 자유 발행체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검정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다.

**교육은 기존 문화의 사회화 과정이면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다.  
그 어느 한쪽만으로 교육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교과서도 결국 이 개념 체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개념을 반추해야만 한다.**

검정도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한 출원 도서의 시장 진입 여부를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1종과 같이 국가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결과 검정을 거친 여러 종류의 도서 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지만 교과서 저작자는 교육과정이라는 틀 속에서만 집필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가 이데올로기란 사실상 허상이며, 집필상의 융통성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한계가 있다. 우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종 도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교사와 교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다만 명목상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종 도서 검정도 독창성과 창의성을 중요한 판단 항목으로 설정한 검정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검정위원의 보수성을 예단하고 전통적인 교과서상을 상정한 저작자는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받기 쉽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 검정도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민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라는 공공재 시장에 양질의 상품만 공급하려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저작자와 출판사가 1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도서의 질을 소수 위원들이 단기간에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좋은 교과서를 선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저작자의 처지에서 보면 충

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점이다. 검정 과정에서 저작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교과서 철학을 교과서 자체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소수의 위원들이 교과서에 실린 전문 분야의 모든 내용을 검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정해 놓은 일정에 따라야 하는 심사 과정으로 인하여 반복 검토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판정 결과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믿지 못하는 저작자도 있을 것이다. 현 검정 제도에는 기초 조사와 검정 심사의 2단계 검토 절차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고 2심까지 반복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적 지적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2종 교과용 도서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교과서 관련 문제란 교과서 발행 제도나 검정 절차 운영면보다 먼저 교육과 교과서를 보는 눈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그 다양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곧 올바른 교육인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무제한 공급되는 여러 상품을 놓고 좋은 상품을 골라 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지를 같이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2종 도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코자 한다.

첫째, 교과서와 관련된 주체들이 교육이나 검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교육은 기존 문화의 사회화 과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기도 하다. 그 어느 한쪽만으로 교육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

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기본 개념이 달라질 수는 있다. 교과서도 결국 이 개념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개념을 늘 반추해야 한다.

그리고 검정 심의란 원론적으로 보면 어떤 도서가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가려 내는 일이다. 이론상 그 판단의 목표는 이상적인 도서만 선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결정적인 흠이 있는 잘못된 도서만을 제외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좋은 교과서와 흠이 있는 교과서를 가름할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란 학문적으로는 학계를 통해 기존의 준거를 검증하여 설정해야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검정 기준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 더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교과든지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적용해야 할 방법 및 확인해야 할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일은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교과서를 개발할 때마다 주기적으로만 할 일이 아니다. 사회 상황과 교육관 및 배경 학문의 변동은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10여 년의 주기로 논의하면 시대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교사 모임과 교과 교육 학계가 상설 팀을 조직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검정 기준, 그리고 현행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나 출판사도 검정 제도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도상의 개선책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현존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많은 저작자가 심의 도서를 출원하지만 시장 진입을 인정받은 것은 소수라는 점에서 자원의 과도한 낭비와 이해 관계자의 민원을 사

전에 막거나 사후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쉬운 실정이다.

출판계는 어느 교과에 특화하여 우수한 도서를 개발하는 것이 자원 집중 효과를 통한 비교 우위 창출에 도움이 된다. 교과서 시장에 교과별로 특화된 공급자만이 참여하면 품질 개선과 수익성 향상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므로 이를 경영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자가 새로운 교과서상이나 독창적인 구성 방안을 미리 연구해서 집필해야 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그 동안 잘못된 예단 — 다른 것과 너무 다른 책은 배척받는다 — 을 버리고 자기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체제를 구안해야 한다. 이는 이번 검정 과정에서 독창적이고 참신한 도서가 주로 합격된 사실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셋째, 검정 운영 주체는 그 진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 관계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검정 과정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정성이 곧 합목적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기 전에 전국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고, 저작자의 도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교사는 저작자가 미리 제출하는 집필 계획서와 한 단원 정도의 사례를 놓고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고, 저작자도 심의에 앞서서 공개 설명회에 참여하여 자기 철학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면 단기 검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도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작품만을 가지고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검정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대한 신뢰 및 그 결과에 승복하는 시민 사회의 기초 규범이 전제될 때에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㉞

# 초등 학교 수준별 학습의 새로운 접근

이 용 재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교사

## I. 들어 가는 말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수학과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개별화 교수·학습 형태의 일종이다. 이는 전통적인 일제식 수업, 획일화된 수업 편제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거나 자기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차별화,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자주적 생활 능력과 평생 학습의 태세를 갖춘 유능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 활동을 전개할 만큼 교육 현장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 수준별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시설이나 학교 편제, 자료, 교사 수급 등 여러 모로 여건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교에서는 1996년부터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학 학습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초등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준별 학습의 효율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본교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초등 학교 고학년에서 시도할 만한 수준별 학습 형태의 한 모델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II. 초등 학교 수학과 수준별 학습의 형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 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학교급별 지침에서 밝히고 있다. 초등 학교에서는 일반 학급에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차를 고려한 수학 학습을 전개하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실제 실천하기가 어렵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중·고등 학교에서 행해지는 수준별 이동 수업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수준

별 이동 수업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교재나 지도하는 학생 수준의 폭이 작아져서 실천하기에 수월한 형태이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력 수준의 우열이 비교되는 관계로 과잉 경쟁심을 부추기거나 이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부담감과 피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 Ⅲ. 본교 수준별 학습 형태

본교에서 이제까지 실천한 수준별 학습은 6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과에 한정하여 실천하였는데, 시도한 학습 형태로 보면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가 첫째 번 시기인데, 이 때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직형 수준별 학급 편성에 의한 이동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5학년 말에 수학과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여 전체 석차를 내고 우수아부터 A, B, C, D, E 반으로 구분하여 각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수학 학습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훨씬 덜어졌으나, 학생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알력과 좌절감,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개인 면담, 집단 상담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줄여 보려는 노력을 담임과 지도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학습 형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우수아 욕구에 맞는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부진아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수학 학습 부진아로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본교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매년 설문을 통한 반응을 보면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비하여, 학생들은 과반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99년부터 개선된 수준별 학습 형태를 시도하였다. 이 해에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육연구회 지원금을 받아서 3년에 걸친 실천 결과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개선 방법을 연구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당시 본교가 실천하고 있던 수직형 학급 편성의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본 과정은 담임이 직접 지도하고 기본 과정에서 지도하기에 부담스러운 우수아와 부진아만 따로 모아 특별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일반 학급의 기본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의 수준은 대폭 좁혀져 동질 집단화되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수업 자료 부담이 덜어지고 학습 초점을 맞추기 쉬워져 학습의 능률이 향상되는 효과와, 학생들의 경우 우열에 의한 반 편성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더 나아가 심화 과정, 보충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자기 교실에서 담임과 함께 학습하기를 본인이 희망하면 희망대로 자기 교실에서 학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보충 과정 대상자의 경우는 더욱 자상한 배려를 하였다.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을 보내 개별 면담을 추진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면담하여 학생이 처해 있는 입장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희망한 경우에만 특별 지도를 받도록 했다.

보충 과정의 특별 지도 인원 수를 10명 이하 소규모로 하여 꼭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습 결손

아를 대상으로 하고 개별 지도를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기본 과정에서 학습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도 교사가 판단되면 즉각 자기 소속 학급으로 환원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급의 명칭도 심화 과정은 ‘가우스반’, 보충 과정은 ‘아인슈타인반’으로 불러서 우수, 부진의 느낌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하였다. 더불어 기본 과정도 수학자의 이름을 붙여 부르도록 하였다.

심화 과정 학급 편성 규모는 대상 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되, 경계선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보통 학생들보다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2학기 때에는 규모를 더욱 늘이도록 했다.(1학기 : 25명, 2학기 : 30명)

심화 과정의 경우, 교과서 수준의 학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정규 학습 활동 시간 이외에 추가로 심화 과정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경우에는 대상을 심화 과정인 가우스반뿐만 아니라 기본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6명 필요한데, 학교 교사 수급 사정상 교과 담당 교사를 포함하여 5명만 가능한 관계로 해서 심화 과정을 담당할 교사의 학급은 다른 기본 과정 학급에 분산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교과 담당 교사가 특별 교실에서 보충 과정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수준별 학습 형태를 수행하려면 6학년 수학 시간을 고정하여 함께 실시해야 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를 수학 시간으로 고정,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급 조직

수 준	인원(명)	대상 학생
심화 과정 (가우스반)	1학기 (25)	○ 수학 성적 상위 해당자 중 희망자
	2학기 (30)	
기본 과정 1 (피타고라스반)	34	○ 심화 과정, 보충 과정을 제외한 자기 반 아동과 2반 아동 약간명
기본 과정 2 (파스칼반)	34	
기본 과정 3 (칸토르반)	34	
보충 과정 (아인슈타인반)	1학기 (9)	○ 개별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습 부진아 중 희망자
	2학기 (4)	

#### 나. 편성 방법

(1) 1학기 초 : 5학년 2학기 수학 경시 성적, 배치 고사 성적 1, 2의 성적을 합산하여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 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구성한다.

(가) 배치 고사 1 : 3월 4일(목) 1교시, 보충 과정 대상자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능력 진단 평가

- (나) 배치 고사 2: 3월 5일(금) 1교시, 심화 과정 대상자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 해결력 평가  
(2) 2학기 초: 총괄 평가의 수학 성적, 배치 고사 1, 2의 성적을 합산하여 편성한다.

#### 다. 운영 방법

##### (1) 지도 시간

(가) 수학 시간을 1교시에 고정하여 실시한다.

##### (나) 학습 형태

###### ① 심화 과정 (가우스반)

㉠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중에서 희망자로 구성한다.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토의 학습을 위주로 하는 학습 형태를 적용한다.

###### ② 기본 과정 (피타고라스반, 파스칼반, 칸토르반)

㉠ 정상적인 학습 방법에 의한 학습 형태를 적용한다.

###### ③ 보충 과정 (아인슈타인반)

㉠ 학업 성취도가 부진하고 학습 계열에 결손이 있는 학생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구성한다.

㉡ 부진아 개인의 성취도에 맞는 개별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다.

㉢ 성취도가 빠른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반에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지도 교사가 판단되면 일반반으로 환급할 수 있다.

## Ⅳ. 본교 수준별 학습의 실시 결과

수직형 학급 구성에서 절충형 학급 구성으로 전환하여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한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 가. 학생의 정서적인 불안의 감소

수직형 학급 구성에서 오는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자기 학급에서 담임과 함께 정상적인 지도를 받게 되어서 현격하게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심화 과정에서 아깝게 탈락된 학생들의 동요가 걱정되었으나 담임의 상담으로 극소화되었고 학급 내에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상쇄되는 효과를 보였다.

보충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면 보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의외로 강했다. 또한, 학부모와 3자 면담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여 수월하게 보충 과정으로 편성된 것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였고, 학습 의욕이 증대되는 효과를 올려서 학기 중간에 6명이 자기 학급으로 환급되는 현상을 보였다.

#### 나. 개인 능력에 맞는 학습 활동 전개

심화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토의 학습과 개인 탐구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형태를 전개하여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학습 능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심화 과정에 속한 학생들의 수준은 기본 과정보다도 더

육 폭이 넓은 관계로 방과 후 특별 시간을 통하여 우수아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기본 과정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습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었고, 직소우 학습,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활용하여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보충 과정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별 지도를 받는 관계로 뒤쳐졌던 학력을 단시간에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기본 과정으로 환급된 이후에도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능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부진아가 일소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 다. 교사의 업무 경감과 자료 개발의 효율성

지도하는 학생의 수준이 축소되어 학습의 초점을 맞추기 쉬워짐에 따라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에서의 학습 자료 준비가 축소되었고, 기본 과정에서는 자료 제작을 분담하여 예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실제 업무 분량은 경감되는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수준별 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발적인 교재 연구 및 상호 정보 교환의 기회가 많아져 교사 자체로도 수학과 학습 지도 기술 축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Ⅴ. 결론 및 제언

요즈음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된 논쟁은 수준별 이동 수업이 일으키는 부작용이다. 본교의 경험에 비추어 당연한 논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 수업을 수직형 학급 구성과 같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은 수준별 학습이라도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본래 취지에 맞는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본교에서 실시한 방법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효율적인 학습 형태가 구안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상적으로 본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교사 구성에서 학년 담임 교사 이외에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을 지도할 교과 담당 교사가 2명 확보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들 특별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특별 교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 학교에서는 5, 6 학년을 묶어서 교과 담당 교사를 확보하고, 실시 시간을 학년별로 달리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한 학습 형태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별 학습은 어찌면 우리 학교와 교사가 넘어서야 하는 또 다른 숙제이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 형태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본교의 경험이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 ☞

##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의 의의

이 현 일

교육부 교육행정사무관

교육부는 2000년 8월 16일 교과용 도서 공급 제도 개선안을 마련, 그 동안 ‘교과용도서예관한규정’ 제 32조에 의거 대한교과서(주)가 맡아 오던 교과서 공급 대행권을 2001학년도 교과서 공급시부터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원(현 연구재단)이 대한교과서(주) 지역 공급 조직을 흡수,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의 공급은 해방 직후부터 1977년 2월까지 발행사별 지정 공급인 제도로 민간이 담당하여 오다가 검인정 교과서 파동 이후 국정교과서(주)를 공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급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급 제도는 발행사별 주문과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배제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최종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께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서 주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채택 비리, 금품 수수 및 부교재 끼워 팔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였다.

그러나 1998년 국정교과서(주)가 민영화되어 교과용 도서 공급 제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그 동안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정책 결정 막바지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가 엇갈려 공급 제도 개선안 마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교과용 도서 공급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교과서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 의한 교과서 공급체제로 전환, ▲교과서의 적기 안정적 공급 최우선 ▲학교 현장인 학생 교원의 불편 최소화,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의 최소화, ▲개별 구입 불편 및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교과서 보관, 창고, 분류, 운송 체계 등 현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 ▲교과서 발행사 전국서적상연합회, 공급소장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과서 공급 제도 주요 개선 내용 중 먼저 교과용 도서 공급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사들이 공동으로 ‘중앙공급총괄기관’을 만들어 공급 업무 위탁, 즉 발행사는 발행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한국교과서연구원(현, 연구재단)을 ‘중앙공급총괄기관’으로 하여 발행사 책임의 교과서 공급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둘째, 지역 공급 단위는 발행사별 독자 조직을 지양하고, 현재의 공급 단위를 활용하되

학생 수,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교과서연구원 책임하에 적정 규모로 통합·분리 재편토록 함.

셋째,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지역과 대도시의 일부 분리 지역 등 신규 공급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2001 학년도부터 서적상들에게 교과서 공급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종전의 공급 소장과 서적상의 경쟁 체제를 유도함.

넷째, 지역 공급 조직은 일정 규모의 개별 창고나 공동 창고 확보 또는 물류 회사 창고 이용 계약 체결 등의 창고 확보를 의무화함.

다섯째, 한국교과서연구원을 개편하여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변경, 이사장이 책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사장 선출 방식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자”에서 “교과서 출판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발행사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확대 부여하며, 또한 법인 이사진에 출판사 참여 확대 및 상임 이사제를 신설하도록 함.

다음으로 교과서 공급 제도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사와 ‘중앙공급총괄기관’ 사이에 교과서 공급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공급 소장과 해당 지역교육청 간에 무상 교과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둘째, 각급 학교는 지역 공급소장에게 교과서를 주문하고 해당 지역 교육청에 보고하며, 지역 공급소장은 이를 집계하여 각 발행사에 주문함.

셋째, 발행사는 자기 비용으로 ‘중앙공급총괄기관’ 지정 창고까지 교과서를 운송하고 공급소는 이를 보관, 분류하여 학교에 공급한다. 무상 교과서는 지역 교육청에 공급 상황을 보고토록 함.

넷째, 개별 학생에 대한 교과서 배부는 학교 사정에 따라 교사가 하거나 행정실에서 배부를 담당하되, 배부 경비를 현실화하여 학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함.

다섯째, 교과서 공급 비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1년차 운영 후 검토하기로 함.

이번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현재의 교육부 장관이 공급 대행사를 지정하는 관 주도 공급 체제를 발행사가 ‘공급총괄기관’을 지정하는 자율 공급 체제로 전환하였음에 그 특색이 있다. 교과서 공급 업무와 관련된 의사 결정 등에 발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으나 발행사의 협의체 또는 교과서연구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교과서 공급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까지는 특정 발행사가 공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금 정산 등에 오해 소지가 있었으나, 발행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공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위치에서 대금 정산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상 살펴본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공급 제도 개선은 교과용 도서 공급의 완전무결한 제도로서의 의미보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비영리 단체인 교과서연구재단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의 안정적 적기 공급과 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이 제도 정착의 성공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자사 위주의 이기적 자세에서 벗어나 한발씩 양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협조에 달려 있으며, 특히 발행사와 교과서연구재단의 긴밀한 협조와 일선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번 교과용 도서 공급 제도 개선안이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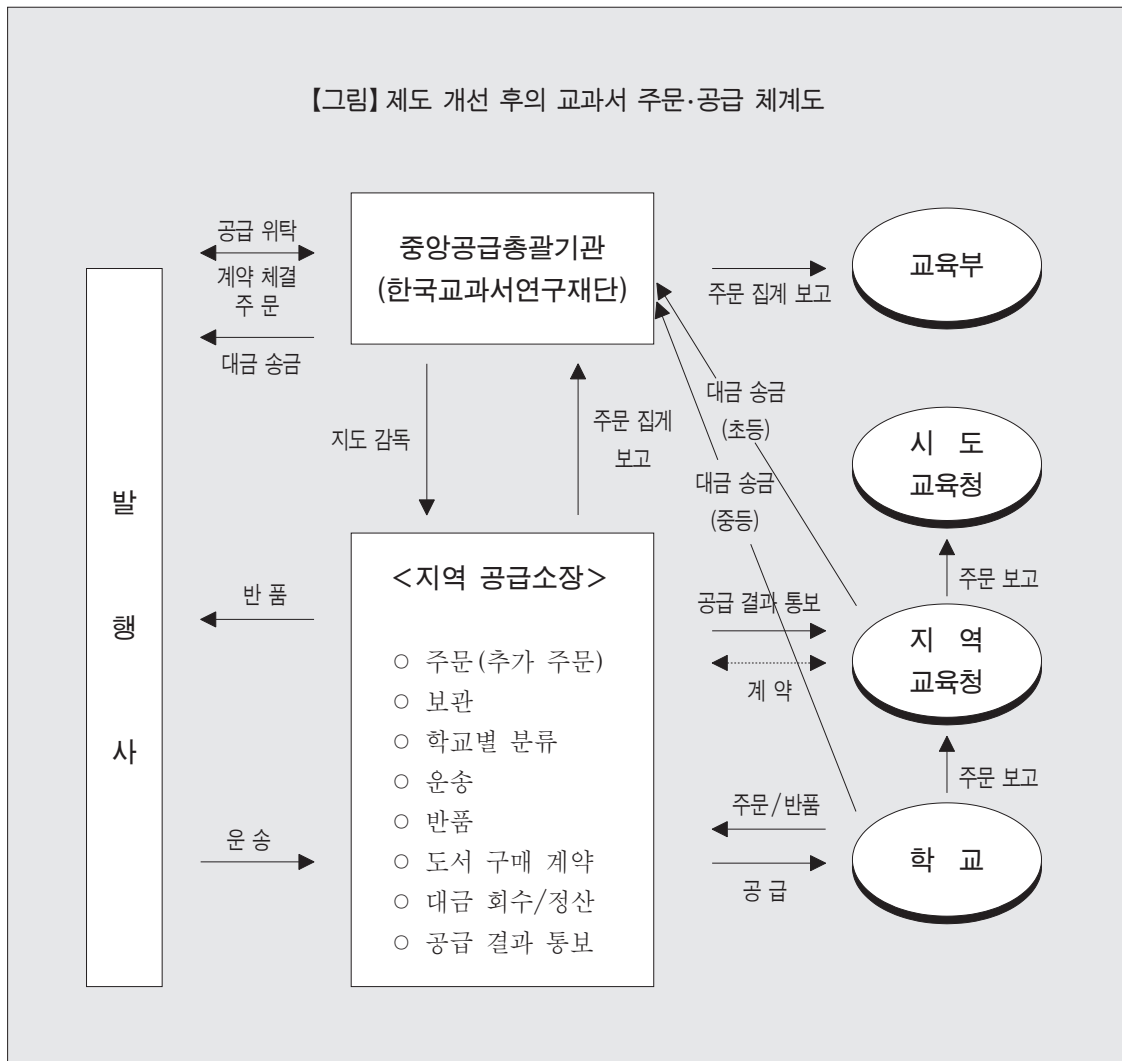
겠지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서로 협의하여 개선 보완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여하튼 2001 학년도 교과서 공급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함은 우리 교과서 공급 업무 관계자 모두의 필연적인 임무이다. 다시 한 번 각 발행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과서연

구재단의 분발을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과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마지 않는다.

【그림】 제도 개선 후의 교과서 주문·공급 체계도



# 통일 교육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I. 남북 관계의 변화와 통일 교육

지난 6월 13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감격하였으며, 세계 모든 이들이 주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통일 후계 세대인 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통일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새 천년 언젠가는 남북한의 통일이 실현될 것이며, 통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동안의 상호 이해와 화해,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친숙해지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만이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동안 1970년대까지 반공 교육, 그리고 1980년대의 통일 안보 교육을 거치면서 통일 교육은 지난 1992년부터 명칭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통일 교육의 방향은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

한 사회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통일 교육의 방향은 우리 사회 안의 평화를 만드는 능력의 배양,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식 함양을 추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 교육의 방향은 평화 능력을 배양하고 남북한의 화해 협력 의식을 증진함으로써 단계적인 통일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 II.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

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

통일 교육은 북한 사회와 통일 환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개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통일 문제는 우리들 개인의 삶과 무관한 먼 문제로 인식할 때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통일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이라면 통일은 영영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 나. 남북한의 화해 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

통일을 성취하고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면 지금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불신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존속한다면, 통일의 길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남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상호 불신감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분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뼈아픈 민족 내부의 전쟁을 경험하였다. 이는 남북한 양측의 주민들 가슴 속에 지워질 수 없는 원한과 분노, 불신과 적대감을 심어 주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가 있다. 그러한 고통은 세대를 통하여 전승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족 내부의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족적인 화해와 통합은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남북한 주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원한과 분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다.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통일 저해요인을 밝혀 내고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나 통일이 실현된 이후의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남북 간의 화해 의식은 동포라는 사실로부

터 출발한다. 남북한은 오랜 역사를 이어 오면서 언어, 문화, 생활을 공유하였다. 무엇보다도 어느 다른 국가보다 긴밀한 혈연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이것이 동포이고 민족으로서 하나로 이어 주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민족 국가로서 다시 설 수 있다.

### Ⅲ. 학교 통일 교육의 범교과적 접근

현재의 통일 교육은 도덕·윤리과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교과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통일 교육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북한 및 통일 문제를 각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반영하는 것이다. 통일 교육은 각 교과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교과서 개편 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가. 통일 교육 내용의 일반적 구성

##### 분단의 현실과 북한 사회 이해

분단의 현실 인식은 통일이 요구되는 기본적인 맥락으로서 분단 현실의 비극, 그리고 북한 사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남북으로 분단된 배경과 분단 이후 남북 대립이 심화되어 온 과정을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해 관계의 복잡성과 국내외적 이데올로기의 대립, 남북 당국의 정치적 이해 관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사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주민과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의 역사적 전통의 확립, 민족적 역량의 극대화과 국제 평화에의 기여라는 이상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 삶의 질의 개선, 경제적 발전의 실현, 이산 가족 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실주의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 관계의 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고, 남북 간의 신뢰와 균형을 꼽을 수도 있으며,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려는 개인의 태도를 포함할 수도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질성을 축소하거나 동질화해야 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질성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공존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과 특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통일 사회의 전망과 대비

통일 이후의 사회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통일 이후 국가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통일 후유증을 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사실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보다 이상적인 방향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적인 통일 국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하는가에 대하여 제시해야 한다. 통일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도 괄목할 만큼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통일 교육의 교과별 내용 구성

교과 영역별로 통일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일 교육을 범교과적 접근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도덕과를 비롯하여 관련되는 모든 교과에서 통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의 통일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사회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분야로 구분하여 통일 교육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0 과목 중에서 통일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는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교과에서는 각 교과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든지 아니면 보충 자료의 형태로 다룰 수 있다. 단원 말미에는 문제 또는 참고 사항과 같은 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국어과는 북한의 언어와 문학을 소개하고 남북한 국어 문학의 차이점도 이해하도록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분단과 통일에 관한 문학 작품을 실어 통일 정서와 의지를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과 사회과에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남북한 사회의 비교를 통하여 북한 사회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남북한의 교류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준비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예·체능 교과에서도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통일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들 교과에서 통일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은 단원의 본문에 관련되는 내용을 구성하

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단원의 마지막에 보충 자료의 형태로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음악의 경우에는 북한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나 북한 음악 가운데 전통 음악, 미술에서는 북한의 미술품에 대한 설명이나 감상, 과학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배우는 과학의 내용들과 북한의 과학 수준 등에 대한 설명, 체육에서는 전통 민속, 집단 체조 등을 들 수 있다.

#### 다. 수준별 교육과정과 통일 교육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재량 활동으로 할당되어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 교육의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본다. 또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통일 교육의 내용 반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국어, 사회과, 도덕 등의 교과목들에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라 통일 교육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국어과와 사회과의 심화·보충형 교과에도 반영할 수 있으며, 윤리 사상에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 교육 관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 관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재량 활동 시간에는 통일 및 북한에 관하여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소재를 선정,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교과 수업, 단체 활동, 현장 견학, 현장 체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제작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 Ⅳ. 맺음 말

남북한 교육은 독자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지역을 막론하고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 우리의 국가 발전은 전적으로 교육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의지는 대단하다. 북한의 교육 수준은 동일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그만큼 주민들의 지식, 기술 수준 또한 높다.

이제 남북한은 서로의 역량을 융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한 교육에 대하여 균형 감각을 갖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북한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단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까지도 비하하는 자세는 삼가야 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북한 교육의 장점은 인정하고 단점은 비판하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체제의 우월성만을 강조하거나 우리의 약점과 단점까지도 애써 은폐하려는 태도는 삼가야 할 것이다.

북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와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한 교육은 각기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을 서로 조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오늘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갖추고 있는 국가 발전의 역량과 자주적 저력을 함께 융합하여 21세기 새로운 민족의 도약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22

# 평생을 간직하고 싶은 꿈을 찍는 교과서

박 은 주 (김영사 대표)

## 1

얼마 전 새롭게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책들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벌써 한 자리에서 십년 가까이 있다 보니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고 각각의 책들은 모두 당시의 기억과 고민들을 떠올려 주는 것들이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새삼스레 추억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큰 맘 먹고 책들을 많이 내다 버렸습니다. 그 중 대다수는 지금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이고, 어느 한 가지 면에서조차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낡은 책들의 경우 지금 나의 눈을 사로잡기에는 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서가(이 서가는 우리 김영사 가족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에는 아직도 귀하게 놓여 있는 낡은 책 15권 있습니다. 이 책들은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것들인데, 당신이 학교 다닐 때, 개구쟁이였고 까까머리였을 시절의 모습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책은 지금으로 치면 당신이 초등 학교 5학년 때 배웠을 “농사짓기”로 단기 ‘4285년 박음’이라고 흐릿하게 자국이 남아 있으니, 계산을 해 보기도 전에 이 책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느낌부터 옵니다.

국제 연합 한국 재건 위원단이 문교부에 기증한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책의 맨 앞에 인쇄되어 있고, 책의 맨 뒤에는 다 쓴 다음에 아우들에게 물려줄 것이니 깨끗하게 아껴 쓰자는 말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걸로 봐서 당시 우리의 생활과 교과서의 탄생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물건을 아껴 쓰는 것도 전쟁에 이기는 생활의 하나입니다.”라고 표현한 문장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이 책들을 잘 보관하고 계셨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서가에 이 책들을 보관하게 하였을까?

## 2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는 무엇보다 동창회 관련 사이트들입니다. 이 중 한 사이트는 세계 50대 안에 드는 대형 사이트로 성장했고, 국내에서는 3위였는데 1위를 위협하고 있더군요. 학창 시절의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끌어당기는지 저는 사실 그 느낌에 둔한 편이지만, 서가에 있는 이 교과서를 보자면 나와 우리를 키워 준 많은 것들은 그 시절이었으며, 마음의 많은 부분이 그 때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련되지 못하였고, 지금 바라보면 불합리한 게 많았고, 그 때 당시에도 거부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교과서와 학교, 그리고 각종 규정들 그리고 권위…….

하지만 그런 거부하고 싶었던 것들조차 교과서는 나를 성장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가장 많이 혼났던 선생님을 즐겁고 그렇게 떠올리듯이.

내가 가진 교과서에는 그런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주경야독하던 한 소년의 모습도 있고, 그분의 어머니와 그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그 시절 우리는, 이것들은 우리가 거부하려 하는 어려운 시절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성장한 지금 우리의 모습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 3

얼마 전 나는 교과서에도 글이 실렸던 한 바닷사람(지금은 한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원고를 읽어 보기도 전에 이분의 책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이분이 쓰

신 교과서의 구절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만큼 그 글이 힘이 있고, 감동이 있었으며,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태평양에서, 드넓은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며 큰 꿈을 품었던 그분의 글은 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원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는 매력과 힘이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학생 때는 몰랐습니다. 그 교과서의 글들이 문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학습해야 할 대상, 시험 문제를 위한 대상으로 우선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교과서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따분한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살찌우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 다른 어떤 책보다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았고 값싼 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문들은 다른 어떤 많은 글들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큰 삶의 기둥이 되고 있다는 것.

## 4

최근에 나온 한 고등 학교 교과서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참고서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참고서는 또 더 많은 것을 담고서 학생들을 찾아가겠지만, 이 책들은 우리의 튼튼해진 지적 자산과 인쇄술, 그리고 경제 성장의 결과인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선생님의 책과 비교하면 정말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 세월 동안 우리 교과서만큼 변화하고 발전했는가를 따져보면서 자연스레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책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부침도 많았겠지요. 정치적인 목적에 좌우되기도 했

고,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이용당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도 했겠지요.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그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또 반듯해 보이는 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출간하면서 국사 교과서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일본 역사책과 우리 역사책을 비교해 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역사의 왜곡을 지적하고 우리 교과서의 한계도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역사 연구가 온 자취이고 우리 역사가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교과서의 잘못이 아닌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이지요.

## 5

하지만 이런 부끄러움을 벗고 이제는 교과서가 훌쩍 커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나무는 몇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가도 어느 해가 되면 단숨에 쑥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책들이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한 많은 조건들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우리 교과서의 앞날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종이책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동안 보조 자료조차 불충분했던 공간을 뛰어넘어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을 교실에서, 바로 교과서로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목도 필요 없습니다. 가방에 무거운 여러

권 책을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꿈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이 책을 만드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얼마나 꿈들을 많이 가져야 할지 벌써부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내가 어찌 좀 해 볼 수 없나 안달이 나기도 합니다.

## 6

사실 별다를 게 없는 시간의 연속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흔적들을 보면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서가에 놓인 15권의 옛 교과서는 지금의 우리를 가능하게 한 것들이라는 점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마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그런 점에서 이 책들을 잘 보관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그리 하라고 일러 주셨는지도 모르지요. 참 아름다운 분들이고 이분들은 꿈을 잘 키워 가실 줄 알았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어디 기쁜 기억만 있지는 않을 테고 아픈 기억들이 더 많이 묻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슴에 안으실 줄 아셨던 것이지요.

졸업식 날이면 교복을 찢거나 그 동안 지켜왔던 것을 깨뜨려야 비로소 그것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쉬웠을 시절에 교과서에 얹힌 자신의 꿈을 소중하게 간직한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들은 김영사의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억이고 역사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일하고 사회에 역할을 다하라고 선생님께서 회사의 서가에 이 책들을 꽂아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3

# 미국의 교과서 제도

—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

정 국 진

구로중학교 교장

## I. 서론

다양한 민족, 광활한 영토, 그리고 풍부한 자원—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를 새삼 놀라게 해 주는 것들이다. 어디를 가나 세계 곳곳에서 이민 온 다양한 소수 민족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들은 낯선 미국 사회 생활에 적응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바로 이들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다. 미국의 광활한 국토를 여행하면서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임을 부러워하게 된다.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끝없이 전개되는 광활한 국토,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시민 정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끼고 절제하는 모습, 질서지키기를 황금률로 삼고 봉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미국인을 볼 때면, 선진국이 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미국은 그 규모나 다양성에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대륙이라는 인상을 깊게 심어 주는 나라이다. 행정 조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 정부이며, 외교와 안보 정책은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수행하지만,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관련 정책은 주 헌법에 따라 각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철저한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Big Four States 주(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가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이나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인데, 그 이유는 이들 4개 주가 경제력, 인구, 면적, 정치면에서 다른 주보다 비중과 영향력이 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과서 심의 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미 전역에서 22개 주가 검·인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법규나 절차는 대체적으로 4개 주의 것을 따르고 있다. 나머지 주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 발행제를 택하고 있거나, 4개 주에서 합격한 교과서를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전국적으로 제도, 정책 및 법령이 동일하지 않고 주 및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다양하여 한 마디로 미국의 어느 분야를 안다는 일은 그리 쉽지도 않은 일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소개하게 될 미국의 교과서 제도 역시 전국적인 자료 수

집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교육성의 자료(1999.10.)를 근거로 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려 한다.

## 2. 교과서 패러다임의 변화

통신 기술 공학의 발달은 지구를 하나의 조그마한 촌락으로 축소시켜 놓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문자에 의한 지식 전달 매체의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21 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세계 각 국가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식 강국·두뇌 강국이 되기 위한 교육 개혁 사업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지식·정보 보유 능력은 곧 국가 경쟁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PC를 통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누구에게나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와 접촉이 가능하며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화 시대는 질보다 양이 중시되던 시대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습득이나 이동은 주로 서류나 교과서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은 금과옥조로서 사전적으로 정리하여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무조건 많이 외우도록 강요하였다. 이제 대영 백과 사전의 그 방대한 양의 지식은 CD 몇 장에 입력되어 누구든 필요시에 접근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는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며, 개인은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공급자인 교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가고 있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통한 창의력 신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수·학습도 일제식 수업(Whole Class Teaching)에서 학생 중심의 그룹 활동(Group Activity)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과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이나 체제에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식 중심의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가는 힘을 길러 주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이 등장하고 있다. 교과서도 종이만 고집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교과서 심의에 Software를 포함하고 교과서 보급에 PC를 포함하는 교육구가 늘어나고 있다. 교과서 패러다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3. 미국의 교육 개관

미국의 공교육은 주 정부 교육성, 시와 카운티 교육청, 지역 교육청을 축으로 하는 교육 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고등 학교 3학년까지(k-12 학년)는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 학교에 유치원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학제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k-6

-3-3-4 제가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 학교 5년제, 고등 학교 4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제를 운영하도록 융통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 전역에는 86,000여 개의 공립 초·중등 학교와 18,000여 개의 사립 초·중등 학교가 있으며, 16,000여 개의 지역 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지원·관리하고 있다.

초등 학교에서의 수업 형태는 능력별 소그룹 활동 중심으로, 중·고등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능력별 반 편성을 하여 수업을 하며, 우수한 학생은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 능력 및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치 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뢰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배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결정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

미국의 대학 입학은 우리 나라와 같이 치열하지는 않다. 일류 대학의 주요 입학 사정 자료는 9학년부터 11학년(고 2)까지의 내신 성적, SAT 성적, 클럽 및 봉사 활동 실적, 추천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Essay와 학교 지원서이다. 이들 서류를 1월 1일까지 우송하면 학교 당국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4월 1일까지 회신하여 합격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해 준다. 면접 시험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지만, 아이비 리그(Ivy League)에 속한 일류 사립 대학교에서는 지역 동창회 간부를 활용하여 지원 학생들을 면접한다.

대체적으로 초·중등 학교에서는 1년을 2학기로 구분하는 Semester제를 도입하는데, 1학기는 9월 초~1월 말이며, 2학기는 2월 중순~6월 초순까지이다. 대학에서는 1년을 4학기로 하는 Quarter제나, 3학기로 하는 Trimester제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도 많다.

미국의 보통 교육은 18세기까지 교회 부설 학교(Parochial School)나 사립 학교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 때부터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제(Partnership)를 구축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여하는 전통을 이어 왔다. 공립 학교는 호레스 만이 1800년 매사추세츠 주에 설립한 것이 시초이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전통과 정서 때문에 지금도 학교 현안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카운티 교육청, 주 교육성 순으로 협의를 거치고, 연방 정부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연방 정부가 교육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를 취해 온 것은 1979년 카터 대통령 재임시에 우여곡절을 거쳐 교육부가 탄생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은 교육 천국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고등 학교까지 무상으로 배울 수 있으며 큰 돈 안 들이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고, 학생이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과 기준은 매우 정직하게 그리고 엄격하며 공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것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 내에서는 학교를 포함하여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일도 까다롭지 않으며 매우 쉽고 절차도 간편하다. 그래서 이 또한 교육 천국이라고 말을 한다. 미국에서도 신설 교육 기관이 수도 없이 많이 설립되었다가 사라지곤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선정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외형만으로는 학교의 질을 신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현혹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협회에 등록되어 공식 인가(Accreditation)를 취득한 학교나 교육 기관을 다녀야 사회나 학교가 학력을 인정해 준다.

#### 4. 교과서 심의 제도

##### 가. 개 요

미국의 모든 교과용 도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하며 주 교육성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우리 나라의 검·인정제와 유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과서 심의와 관련하여 미국이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은 교과목별 순환 심의제 (Adoption Cycle) 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를 전과목 일시에 심의하지 않고 연도별로 돌아가며 해당 교과서를 심의하는 제도이며 발행 주기는 6 년에서 8년이다. 교과서의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한 주기를 더 사용하도록 연장해 주거나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발자와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인 듯하다. 대체적으로 2년마다 발표하는 주 교육성 고시문 (Proclamation) 에 포함되는 내용은 교과서 심의 일정과 교육과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안내와 지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심의 대상은 교과서를 포함하여 Computer Software, On Line Program, Video-disc 등 학생 교육용으로 개발한 모든 교재를 포함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개발권을 갖는 국정 교과서는 없다.

##### 나. 교육과정 개발·교과서 심의

##### 캘리포니아 주 사례

교육과정은 한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교육에 대한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며,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주 단위 교육 자치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 교육성이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심의를 주관한다.

교과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토대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지식 (Knowledge) 과 기능 (Skills) 을 표준화한 교재이며 교사가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기초 역할을 한다. 교과서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책으로, 개발 방식, 내용 구성, 선택 방식, 사용 및 보급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채택 절차를 보면 (1) 교과 내용 기준 및 수행 기준 채택 (Adoption of Content Standards and Performance Standards) (2) 교육과정 제정 (Adoption of Curriculum Frameworks) (3) 교과서 심의회 (Textbook Review Panels) 구성 (4) 적격 교과서 목록 (Textbook List) 고시 (5) 교과서 채택 (Adoption of Textbook by Schools) (6) 보급 (Distribution) 등의 순서를 거친다.

##### (1) 교과 내용 기준 및 수행 기준 채택 (Adoption of Content and Performance Standards)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4 개 핵심 교과의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을 채택한다 (Education Code Section 60605). 따라서, 1997년 11월과 12월에는 영어, 수학의 내용 기준을, 1998년 10월에는 사회, 과학의 내용 기준을 각각 선택하였다. 내용 기준은 대부분 학년별로 구성하지만 교과목별로 구성하기도 한다. 수행 기준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은 주 전체의 학교 평가,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서 선정에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캘리포니아 주는 각 교과 내용 기준과 학생들의 수행 평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확정된 후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2) 교육과정 채택 (Adoption of Curriculum Frameworks)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유치원~12학년까지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전 교과의 최소 기준과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다(Education Code Section 51002). 위에서 언급한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4개 핵심 교과목 이외에도 주 교육성은 외국어, 미술, 보건, 체육의 교육 과정도 제정한다.

캘리포니아 교육과정은 교육 개혁에 매우 강력하고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의 교수·학습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인정을 받고 있으며 기여를 하고 있다.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을 구현한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학습 자료를 평가하는데 출판사가 알아야 할 방향과 평가 척도이기도 하다. 이 척도는 주교육법 60200-60206에 의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사용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1927년에 교육과정위원회(The Curriculum Commission)가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의 자문기구로 발족하였다.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교과서 심의업무를 자문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내용 수정이나 개정을 요하는 일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교육과정 시안은 현장 검토, 관련자에게 우송, 인터넷 공개, 지역 교육 센터 전시 등의 과정을 거친다. 내용 관련 자문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주 교육위원회는 확정된 교육과정을 인수받아 교과서 심의 업무에 관한 검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3) 교과서 심의와 채택 (Instructional Materials Evaluation and Adoption)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1~8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채택할 권한을 주 헌법에서 부여한다(Article IX, Section 7.5 of the California Constitution). 주 교육법 60200-60204는 “1~8학년의 교과서 심의 절차에 관한 법규로서 검정에 출원된 교과서는 교육과정, 내용 기준, 평가 기준(1997년 실시한 영어 1학년 교과서 평가 기준은 100개 항목으로 구성)에 일치하여 심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대상은 교과서,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 기타 학습 자료, 시험 문제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위원회(The Curriculum Commission)는 주 교육위원회의 자문 기구로 교과서 심의, 평가하는 일을 돕는다.

4개 핵심 과목에 대한 본심의(Primary Adoption)는 6년 주기로 실시한다. 주 교육법 60200은 아래와 같이 심의 과목과 연도를 고시하고 있다: 역사(1999), 과학(2000), 수학(2001), 영어 독해(2002). 외국어, 미술, 보건, 체육 과목에 관한 심의 주기는 8년으로 되어 있다. 본심의가 없는 연도에 후속 심의(Follow-up Adoption)를 실시하는데, 운영은 본심의 때와 같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와 같이 교과서 심의 및 채택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

도하고 있다. 교과서 심의는 아래 3 가지 절차를 공통적으로 거치게 된다.

- **준법 심의 (Legal Compliance Review)** - 사회적 내용을 검증하는 ‘준법 심의’는,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 학교에서 사용 중인 모든 교과서가 주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심의 가이드 라인 「사회 내용과 관련한 교과서 심의 기준」 및 주 교육법 60040-60044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법규를 따르지 않는 교과서는 탈락시키거나 내용 수정 지시를 받게 된다.

- **시민 심의와 의견 (Public Review and Comment)** - 주 교육위가 선정한 교과서에 대하여 시민이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교과서 전시본은 지역 학습자료센터에서 시민에게 공개되며 교과서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주 교육위로 보낼 수 있다. 또한, 최종 선정에 앞서 3 회의 공청회를 갖는데, 각각 교과목별 교육과정위원회 회의, 합동교육과정위원회 회의, 주 교육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최한다.

- **교육 내용 심의 (Education Content Review)** - 교육 내용 심의는 주 교육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가 채택한 내용 기준,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주 전역에서 심의 요원을 모집하고 교과서 출원 응모를 마감한 후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습 자료 자문 심의 위원(IMAP: Instructional Materials Advisory Panel)과 내용 심의 위원(CRP: Content Review Panel)을 임명한다. IMAP는 주로 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지만,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대학 교수, 학부모가 참여하여 평가 항목에 따라 교과서를 심의한다. CRP는 인정받는 교과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시된 자료가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근에 확인된 자료인지를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CRP는 전문 지식에 속한 자료를 부분적으로 심의하며, IMAP를 위하여 심의 자료를 제공한다.

심의 위원은 교과서 평가 기준에 관한 연수를 받으며 개인적으로 할당받은 자료를 심의한다. CRP는 출원한 교과서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제출하는 반면, IMAP는 출원한 교과서에 대하여 적격, 수정 보완, 부적격 판정권까지 갖는다. IMAP의 보고서는 교육과정위원회로 회송되어 CRP 개인 보고서, 출판서 답변, 공청회 의견, 시민 서면 평가서와 함께 각 출원 교과서에 대한 종합 보고서로 주 교육위원회의 교과서에 대한 최종 판단 자료가 된다.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일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최종 문서로 인쇄하여 각 지역으로 보급한다. 최종 교과서 심의 보고서는 출원한 교과서의 합격·불합격을 포함하여 서열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교과서 선택 안내 자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4) 교과서 심의 위원 선정 (Nomination of Textbook Review Panels)

심의 위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MAP(학습 자료 심의 자문 위원)와 CRP(내용 기준 심의 위원)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심의 위원 임명 과정에서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우선 지원을 통한 모집을 하여 적격한 사람을 선별하여 임명하는 인력 관리 체계(Pool)를 활용하고 있다. 모두 12 장으로 되어 있는 심의 위원 지원서는 위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심의 위원 공모 기간은 5개월이며 교과서 심의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원서에 나타난 주요 자료는 아래와 같다.

Part I. Background Information(지원자 기초 자료)

- ① 지원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전화, Fax, E-mail 주소 등)
- ② 직장 주소, 현재 지위, 고용주(교육감)의 성명 및 주소, 전화 등
- ③ 현재의 업무(상세하게), 교사의 경우 지도하고 있는 학년 표시
- ④ 학부 이상의 교육 경력(학위, 전문 자격증 등 포함)
- ⑤ 지역 사회 기여도 및 봉사 활동(연도, 일자별로 기술)
- ⑥ IMAP를 희망하면 심의를 원하는 과목 표시
- ⑦ CRP를 희망하면 내용 기준에 대한 정확성과 학문 여부
- ⑧ 이전의 심의 경력 기재
- ⑨ 과목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배경과 경험 여부
- ⑩ 교사로서 학교 급별 지도 경험
- ⑪ 최근에 참여한 연수, 훈련 경력
- ⑫ 심의 자료 배달 주소

Part II. Acknowledgments(숙지 사항)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일은 상당한 전문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와 책무성을 수반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주 정부는 법규에 따라 위원에 대하여 여비, 일당(숙박, 식비, 사고시 치료비)만을 제한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원래 직장에서 받는 그 이외의 수당이나, 대치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법적으로 지급이 금지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람.

—심의 위원 지원자용

이 지원서는 공적인 자료로 제출한다. 2개월 간 심의 위원으로 작업하는 일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한다. 이 점을 인정하고 만약 심의 위원으로 임명되면 본인은,

- 심의 위원 책무성 강화 연수, 심의 절차에 관한 연수, 교과서 개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설명회에 참석한다.
- 출원한 교과서에 대한 개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
- 심의 위원 협의회에 모두 참석한다.

—고용주용(심의 위원의 근무처)

- 우리는 교과서 심의는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매우 힘들고 벅찬 작업으로 이해한다.
- 심의 과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우리는 심의 위원 지원자는 유능하며, 창의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책무성이 강하며 업무 추진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
- 이 지원자가 심의 위원으로 임명되면 우리 기관은 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 Part III. Short Written Response Questions(지원자에 대한 간략한 질문)

아래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고 사려 깊게 답변하고 필요하면 첨가하여 쓸 수도 있음.

- ① 심의하려는 영어와 국어 교과목에 대한 학문적, 전문적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심의 과정에 공헌할 것인가?(이번에는 영어, 수학의 심의 위원을 모집하는 지원서임.)
- ②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영어와 수학의 내용 기준에 대하여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 당신이 교육자라면 내용 기준과 관련하여 누구와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 ③ 국어, 수학 지도에서 어떤 형태의 활동이 좋은 교수법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는지, 당신이 시도하고자 하는 교수법을 설명하고, 어떤 평가 기법으로 결과를 측정할 것인가?

### Part IV. Professional References and Letter of Recommendation(추천서)

가급적 귀하가 하고 있는 업무와 익숙하면서 심의와 관련이 없는 3인의 추천서

### Part V. Conflict of Interest(업무와 관련한 이해 관계)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모순된 일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임.

- ① 최근 교과서 출원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가?
- ② 심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특별한 수당을 받기를 희망하는가?
- ③ 저자, 기고가, 편집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텍사스 주 사례

### (1) 교과서 관련 법규

텍사스 주도 교과서를 심의하여 채택하는 22개 주의 하나이며, 텍사스 주 헌법은 교과서를 심의하여 주 공립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 헌법 7조 3항).

### (2) 심의 위원 구성 및 교과서 심의, 채택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는 교과서 심의와 관련한 심의 법규 및 절차를 고시한다. 고시문(Proclamation)에는 연도별 심의 과목, 심의 일정 및 절차, 교육과정, 교과서 권수 및 교과서 예상 단가 등이 포함된다. 주 교육위원회는 교과서 심의와 관련한 고시문(Proclamation)을 적어도 심의 실시 24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하며, 60~90일 전에 공청회를 거쳐 고시문을 확정한다.

#### ○ 심의 위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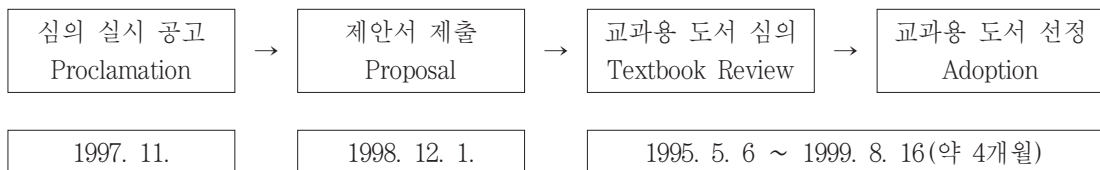
위원 자격, 과목별 위원 수, 의무와 행동 강령,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등은 주 교육법에 따르며 심의 위원은 텍사스 주 거주자여야 하고, 출판사 직원, 저자, 교과서 창고업자, 지역 대리점 직원은 모두 배제한다(주 교육법 66.27. Proclamation, Public Notice and Schedule).

### ○ 교과서 심의

출원 출판사는 완전하게 제본된 교과서 견본을 20개 교육서비스센터와, 주 교육성 장관이 임명한 심의 위원에 우송한다. 교과서는 텍사스 주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과정일치본(Conforming)과 비일치본(Nonconforming), 2개로 분리하여 심의한다. 교육과정일치본은 주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교육과정의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s)을 100% 반영하고, 제작 지침도 모두 준수한 오류 없는 교과서이다. 비일치본은 교육과정을 50%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출판사가 재량으로 꾸민 교과서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일치본이나 비일치본 어느 것이든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비일치본을 채택할 경우 주 정부는 교과서 값의 70%만을 지원해 준다(Texas Education Code, Chapter 32).

기초 교육과정(국어, 수학, 과학, 사회, 세계사, 미국헌법, 지리)의 심의 주기는 6년이며, 심의 과목 수는 기초 교과목의 1/6을 넘지 못한다. 교양 교육과정(외국어, 보건, 체육, 미술, 경제, 직업, 컴퓨터)의 심의와 주기도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주 교육법 66.21. Review and Adoption Cycles).

### ○ 교과서 심의 절차



## 5.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교과서 검정에 순환 심의 제도(Cycle Adoption)와 주기 연장제(Cycle Renewal)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려는 차원에서 마련한 듯하다. 교과서를 공정하게 심의하려는 의지와 장치가 법규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심의회 또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매우 투명하고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책이며 직접적으로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21세기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길러 주고, 살아가는 데 힘을 길러 주는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은 국가가 조금도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여기에 소개한 미국의 교과서 심의 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에 불과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 사회과 교과서편

김 용 만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장

### 1. 머리말

필자는 1973년 3월 20일에 용산 공고 교사로서 편수국에 파견 근무하게 되었다(실제 발령은 1973. 4. 10. 자). 편수국 입국 계기는 당시 서울 여고의 민병선 교감(작고)과 서울시 교육청의 이영교(작고), 양주석 장학사의 추천(서울시 교육청에서 3명 추천)을 받아 문교부 편수국의 파견 교사 선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이 계기였다.

필자는 편수국에 입국하자마자 은용기(사회·상업) 편수관 밑에서 주로 일하게 되었고, 간간이 이영택(지리) 수석 편수관의 일을 도왔다.

제3차 교육과정기는 당시의 국가·사회 체제의 영향으로 국가 주도력이 그 후의 어느 시기보다 강했던 시기였고,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하는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착을 교과서를 통해서 달성해 보려는 의지가 깔려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제3차 교육과정 시행 시기를 전후로 하여 도덕, 국사 교과와 사회과로부터의 분리 탄생, 검정 교과서의 단일본화, 국가 사회 정책 추진 관련 내용의 교과서 반영 등이 그러한 정책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적 교과서 정책에 터한 편수관 중심의 교과서 개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1977년의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탈세) 사건’ 이후이고, 그 이후 등장한 것이 지금과 같은 ‘연구 개발형’ 1종 도서이다.

제3차 교육 과정의 사회과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가 초등 사회, 중·고등 국사, 실업고 세계사, 지리였고, 단일본 교과서가 중학교 사회와 사회과 부도, 고등 학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었으며 세계사와 국토 지리·인문 지리는 제3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공고가 늦어서(없어서)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검정본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1978년 이후에 1종 도서로 개발되었다.

### 2. 초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

제3차 교육과정기의 초등 교과서는 1973년에 1~3학년, 1974년에 4~6학년이 공급되었으나, 사회과만 전 학년분이 1973학년도부터 공급되었다. 이것은 1972년 유신 헌법 공포와 유신 체제하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사회과의 학습 대상인 사회적 사실과 현상의 중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교과서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의

지를 실현시킨 것이었다. 4~6 학년 교과서는 담당 편수관인 은용기 편수관의 교장 전출 이후, 1973년에 공급된 사회과 교과서가 일 년 앞당겨 공급하느라고 졸속 편찬되었다는 외부 인사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1974~1975년 중에 전면 수정을 하여 1976년에 개정 교과서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체제, 단원 전개 체제, 내용 등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내용을 보다 바람직하게 재편성한 것이었다.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부터 실험 과정이 교과서 개발 과정에 포함되어, 실험본이 먼저 개발되고 1년간의 실험을 거쳐 공급되는 제도가 정착되었는데, 사회과 교과서는 1972년에 1~6 학년의 실험본 교과서가 한꺼번에 공급되어 전국 30여 개 실험 학교의 실험을 거쳐 1973년에 정본이 공급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과 교과서는 단원 전개 체제나 내용면에서 종래의 교과서와 크게 달라진, 과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제 2 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가 서술형 내용 전개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였던 것에 비하여, 제 3 차 교육과정기부터의 그것은 이른바 탐구형 모형이 적용된 것이다. 즉, 단원의 전개 절차가 한 단원 또는 주제 내에서 크게 도입, 탐구 과제, 본문, 정리의 4 단계가 뚜렷하게 제시된 이른바 탐구형, 문제 해결형 전개 모형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 3 차 교육과정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지만, 모든 학습 내용을 탐구 모형으로만 일률적으로 전개시킨 점, 가르칠 내용이나 학습 방법이 어렵게 편제되었다는 점 등 비판도 많았으나 사회과 학습을 탐구형, 문제 해결형, 자기 주도적 학습형으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초등 사회과 교과서 중에서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종래에는 통합 사회과의 내용 구성 원칙상 사회과를 구성하는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이 단원 내에서 혹은 교과서 내에서 통합되어 있었는데, 제 3 차 교육과정기부터 국사 내용은 따로 분리하여 사회 5-2, 6-2를 「국사 5(생활·문화사 중심)」, 「국사 6(통사 중심)」으로 하여 전적으로 국사 내용만 분리 편찬하였다. 이것은 국사 교육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중·고등 학교의 독립 교과화에 부응하는 것으로써, 초등 학교 사회과가 지닌 통합 사회과로서의 간판을 유지하면서 국사 교육 중심의 교과서만 따로 편찬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편제는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한 핵심 인사는 구연무, 박환이, 권석주, 조광준, 이원순 씨였고, 심의 위원으로는 이정인, 이원순, 강대현, 조광준, 임민영, 이종항, 박정서, 지용근, 구연무, 박환이, 권석주 씨 등이 활약했다.

교과서의 개발 체제는 국정 교과서 개발 체제로 1973~1974 년판 교과서는 은용기 편수관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1975~1976 년판 교과서는 필자가 중심이 되어 편찬했다. 1974년에 공급된 사회과 부도는 이영택 편수관이 편찬 도중에 충주 공전 학장으로 전출하는 바람에 이한국과 필자가 맡아 편찬했다.

### 3. 중·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목은 중학교의 국사, 사회 1·2·3, 고등 학교의 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사, 국토 지리, 인문 지리 등이었고, 개발될 교과서는 중학교의 국사(2, 3 학년용), 사회 1·2·3, 사회과 부도 등과 고등

학교의 각 교과목(6개 교과목)과 지리 부도, 역사 부도이었다. 이들 교과서를 당시의 법과 정책에 의해서는 중·고 국사만 국정 교과서이고 나머지는 모두 검정 교과서로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편수 당국은 새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검정 공고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늦추면서, 단일본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단일본이라는 것은 1972년 유신 헌법 공포 직후 1973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관련 교과서들(중 3 사회, 고등 학교 일반 사회 등)의 내용 개편을 검정 교과서(제 2차 교육과정으로 합격된 검정 교과서) 모두에 적용할 경우 번거롭기도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각 교과서에 수록하는 문제, 입시 출제상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각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교과서로 재출판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교육 내용의 통일, 신속한 교과서 공급 등의 이점(利點)이 있었고, 검정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도 번거로운 수정 작업을 직접하지 않고 저작권의 이권(利權)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제 2차 교육과정에 의한 사용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그 권한 유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본화 정책은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과 교과서는 일차적으로 단일본 대상이 되어, 중학교 1·2·3은 국정화된 국사와 함께 1973년 중에 개발하여 1974 학년도에 사용토록 하였다. 이어 중학교 사회과 부도도 단일본화 되었고(1976년 공급), 고등 학교 정치 경제(1975년 공급), 사회 문화(1976년 공급)가 단일본으로 공급되었다. 1973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이 단일본 편찬을 위해 정부 종합 청사 뒤의 대경 여관에 전용방을 얻어 은용기, 이한국, 김철, 필자, 최완기 편수관이 편집 책임자로 와 있던 남병길 씨와 함께 고생했던 일이 생각난다.

교과서 단일본화 정책은 당시의 법규정(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없는 변칙적 정책으로 완전한 국정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정도 아닌 어정쩡한 형식의 교과서 정책이었다. 이것은 국정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검정 교과서 저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정책이었다고는 하나,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의 연합체인 검인정 교과서 주식 회사(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한국 교과서 등의 이름으로 있었음.)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되어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의 단일화 조치는 새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을 고시하지 않고, 구 교과서의 저자와 출판사에게 기득권을 주고, 교과서만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한 변칙적인 것으로, 교과서의 종류를 줄이고 정책 의지를 반영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그 근거가 모호한 과도적 행정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 절차는 문교부가 저작자 및 발행자에게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고 그렇게 되면 저작자 및 발행자는 각자 교과서를 수정하는 형식이었으나, 각 출판사가 각각의 교과서를 대폭 수정할 경우 원고 집필 및 심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적기 생산이 어려우므로 각 출판사 및 저자가 공동으로 단일 발간 건의를 하고 문교부는 공동 저작의 발행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추진된 제도였다.

단일본화 정책은 출판 인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교과서의 적기 생산, 공급이 용이했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도 여러 종의 교과서를 하나의 교과서로만 지도함으로써 입시 지도 등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낳았다. 즉, 이 제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로써 기존의 검정 교과서의 저작자 및 발행자에게 계속 특권을 설정하는 불합리한 제도였으므로, 새롭게 교과서 시장에 참입(參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출판사로부터의 민원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문교부는 단일본화 정책에 말려들어 일관되고 명확한 교과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7년의 ‘검인정 교과서 파동’을 겪게 되고, 그 후에 종래의 ‘교과용 도서 검·인정령’을 폐지하고, 1977년 8월 22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새로운 교과서 정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규정의 핵심은 교과용 도서의 종류를 1종, 2종,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1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따라서 검정 교과서는 대폭 축소됨.)하였으며,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문교부가 직접 담당하여 오던 것을 연구 기관이나 대학 또는 학술 단체에 위탁하여 질이 높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길을 튼 것이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문교부는 1종 도서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연구 개발 기관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 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기능과, 개발되어 제출되는 교과서의 원고본과 완성본에 대한 심의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다.

단일본화 교과서 개발을 전후로 사회과 교과서를 담당했던 편수관은 은용기(1967~1974: 사회), 이영택(1961~1973: 지리), 이한국(1972~1977: 사회), 김철(1973~1977: 역사), 박창규(1974~1976 순직: 지리), 필자(1973~1994: 사회, 지리), 김성환(1974~1983: 사회, 도덕), 최완기(1973~1975: 역사) 등이었다. 이를 교과서 담당별로 보면, 초등 사회: 은용기, 김용만, 박창규, 중학 사회1: 은용기, 김용만, 중학 사회 2: 김철, 최완기, 중학 사회 3: 은용기, 김용만, 정치·경제: 이한국, 김성환, 사회 문화: 이한국, 김성환, 국사(중·고): 김철, 최완기 등이었고, 단일본이 아닌 국정 교과서인 실업고 세계사: 김철, 최완기, 실고 지리: 박창규, 김용만 등이었다.

이 시기의 국정 교과서의 발행권은 국정 교과서(초등 사회), 고려서적(초등 사회과 부도), 한국교과서(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가 세운 회사: 중·고 국사)에 부여되고 있었다. 특기할 것은 국사 교과서 발행권을 가진 한국교과서(주)인데, 이는 중·고 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검정의 이권을 잃어버린 저자와 출판사 중 출판사 쪽이 한국 검인정 교과서 발행인 협회 산하의 한국 교과서 주식 회사에게 그 발행권을 부여받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득권을 유지한 케이스였다.

1977년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패닉 상태로까지 간 편수 행정은 장기옥 국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진 편수 행정진에 의해 재건되었다. 국장 장기옥, 편수 과장 김정남(곧이어 정총회), 주무 사무관 김상동, 발행 과장 이보령 등이 행정팀의 주축이었고, 사회과 편수진은 기존의 임덕순, 김용만, 김성환 외에 새롭게 공채되어 들어온 박용진(역사), 박병호(사회), 정태위(도덕)씨 등이 있었다. 당시 사회과 담당관(후에 사회과 교육 담당관, 사회 과학 편수관으로 명칭 바뀜.)은 초대는 박용진 씨이고, 그 다음이 이영교 씨였다.

새롭게 짜여진 편수 및 편수 행정진에 의하여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대통령령 제 8660호)에서는 1종 도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회과의 경우 초·중·고등 학교를 통하여 검정 교과서는 고등 학교의 사회과 부도(고등 학교의 경우 역사 부도와 지리 부도를 통합하기로 1978년 2월에 결정)만 남게 될 정도로 1종 도서 일색이었다.

당시 편수 행정진들은 단일본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의 판권을 소멸시키고, 모든 교과서 관리를 국정교과서(주)에 맡겨 국가 관리하에 적기 공급을 위해 애썼다. 그래서

단일본 교과서가 가장 많았던 사회과의 단일본 및 검정 교과서를 먼저 전면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중학교의 사회 1·2·3, 사회과 부도와 고등 학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개발하게 되었고, 고등 학교의 인문 지리는 서울대 인문대에, 국토 지리는 서울대 사범대에 위탁하여 개발하게 되었는데, 모두 1979년에 공급되었다. 이 때 1종 도서로 개발된 교과서는 교사용 지도서가 동시에 공급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교사용 지도서를 교과서보다 일 년 늦게 편찬, 공급하던 것에 비하여, 교과서의 편찬 취지나 지도 방법 등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일선 교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나, 개발팀들은 교과서 편찬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지도서 원고를 의뢰해야 하는 등 개발상의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 4. 맺는 말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개발은 1977년의 「김인정 교과서 사건」을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대별하여 교과서 개발 체제, 개발 방법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 즉, 1977년 이전에는 종전의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72. 11. 대통령령 제 8281호)」에 의해 국정 교과서는 편수관 중심의 개발 체제였으나, 새로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대통령령 제 8660호)」에 의한 1종 도서로 되어 개발 기관에 위탁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형 교과서 개발 체제로 바뀌었고, 많은 검정 교과서가 1종 도서화되어 검정 교과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회과 교과서는 초등의 경우 1973년에 일괄 공급되고, 이어 1974~1976년에 걸쳐 전면 수정·보완의 개편 작업에 의해 공급된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개발, 공급되었다. 중등의 경우는 제 3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을 국정도 검정도 아닌 단일본 체제로 중학교 사회 1·2·3, 사회과 부도, 고등 학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편찬 공급되었다. 단일본은 교과서 내용은 새 교육과정에 맞게 편찬된 것이나 저작권은 제 2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가 가진 편의적(?)인 교과서였다. 이것은 새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검정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기존 검정 교과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들의 반발을 사 결국 ‘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시 문교부는 1977년 모든 검정 교과서의 저작권을 정지시키고, 대부분의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1977. 4. 5.), 초·중·실업계 전 교과목을 1종 교과서로(1977. 7. 29.)함을 발표하고, 종래의 교과서 중앙 공급 업무를 폐지하고 1978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주)에게 업무 대행함을 발표(1977. 8. 6.)함으로써 김인정 교과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새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종 도서로 개발된 사회과 교과서는 대부분 단일본이었던 중학교 사회 1·2·3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 고등 학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새로이 검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세계사, 국토 지리, 인문 지리 과목이었다. 검정 교과서는 고등 학교 사회과 부도뿐이었다.

이들 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편수진들은 해당 분야에 비교적 오래 근무하면서 편수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른 분들이 교과서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㉔

〈1973~1994 사회과 편수관〉

## 과학과 교과서 편

정 완 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교육과정 시기로 본다면 제 3 차 교육과정기에 속하는 1973년부터의 이야기를 쓰는 것인데, 필자가 문교부 편수관으로 온 것은 1977년 6월 10일이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상황을 문교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본 내용을 엮어서 진술한 다음,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 과정에 얹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을 위주로 살펴본다.

다른 교과와 달리 과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가 195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미국의 초·중·고등 학교 과학 교육이 너무 진부하고 지식 위주로 되어 있으며 과학을 암기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던 중 1957년 10월 소련에서 스푸트니크이라는 이름의 인공 위성이 미국보다 먼저 발사되면서 강대국 미국은 자존심에 대단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안으로 과학 교육 내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때에 밖으로부터의 자극이 워낙 강하여 그 즉시 초·중·고등 학교 교육과정부터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과학 교육의 두드러진 결함은 과학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탐구 과정보다 결과 위주로 되어 있으며 지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그 주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학으로부터 초등 학교로 내려오면서의 개혁이 아니라 초등 학교에서부터 중·고등 학교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왜냐 하면 아래로부터의 기초 교육이 몸과 마음이 굳어진 대학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그 개혁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일어났다. 기존의 진부한 교육과정이 대폭 개정되고 그에 따른 수많은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그것은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과학 재단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수십 명의 현장 교사와 대학 교수가 머리를 맞대고 몇 개월에 걸쳐 그 틀을 완성하였다. 그것은 너무 커다란 혁신이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 나라가 미국의 과학 교육 혁신 운동을 교실 현장에 받아들인 것이 바로 1973년에 공포된 제 3 차 교육과정인 것이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는 미국의 과학 교육 혁명 운동이 일어난 지 15년 정도 뒤에 교실 현장에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앞다투어 새 과학 교육 운동을 연구하고 분석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이다. 그것은 대단히 빠르고 치밀하게 대처한 예이다. 그러므로 제 3 차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과는 대단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과학 교육 혁신 운동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역사가 있는 이래 1950년까지의 지식의 총화는 1950년부터 1960년까지 10년 동안의 지식의 누적과 같다고 본다. 그리고 다시 1960년까지의 지식의 총화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의 지식의 누적과 같다. 즉, 매 10년마다 지식의 양은 배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그 많은 지식의 양을 학교 현장에 모두 교육 내용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므로 지식을 구조화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첫째 번 이유이다. 둘째로 과학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도 대등하게 중요하다. 그러나 종전에는 그 과정은 거의 무시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과정, 즉 탐구 과정(inquiry process)을 중요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과학을 탐구하려는 과학적 태도를 중요시하여야 과학을 과학답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이유들이 기존의 과학과 두드러지게 다른 면모로 변하여 나타난 명분들이다.

그러하여 초등 학교에는 ESS, SAPA, SCIS의 3 가지 교육과정이 대두되었다. ESS는 Elementary Science Study의 약자이고, SAPA는 Science — a Process approach의 약자이며, SCIS는 Science Curriculum Improvement Study의 약자이다. SCIS는 과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고, SAPA는 탐구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ESS는 소재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시 말하여 과학의 중요한 양대 산맥은 개념(concept)과 과정(process)으로써, 과학의 개념을 찾아내기까지의 전 과정, 즉 탐구 과정(inquiry process)과 탐구 과정의 결과 얻어진 개념(concept)으로 양분된다. 개념은 지식, 정보, 원리, 법칙 등과도 때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탐구 과정에는 관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추리하기, 예상하기, 변인 통제하기, 자료 해석하기, 가설 설정하기, 실험 설계하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고등 학교에서 초등 학교 쪽으로 갈수록 지식 위주로 가르치기보다는 탐구 과정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초등 학교는 탐구 과정 위주로 과학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한다.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탐구 과정 요소 중에도 관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추리하기, 예상하기 등과 같은 기초 탐구 과정 요소(basic inquiry process skill)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러므로 1973년부터 새로 개발되는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광합성은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물과 잎의 기공으로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엽록체에서 햇빛의 힘을 빌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광합성의 정의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잘 외우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제 3 차 교육과정의 광합성 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림과 같이 수조에 물을 붓고 물풀을 넣은 다음 20 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백열등을 비춰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이야기하여 보자.”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학생들이 실험 장치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예상하고 그 예상이 맞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대답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실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도 없고 탐구 과정을 설명할 수도 없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이다. 학생들이 줄 곳과 외워서 과학을 공부하던 기존의 과학과는 180° 달라진 방법이다. 그러므로 과학다운 과학을 제 3 차 교육과정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의 교과서는 이들 미국의 SAPA, SCIS, ESS의 교육과정을 조화롭게 적용시켜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그것이

**당시 문교부에 발을 들여놓고 가장 바쁘게 준비한 일은  
바로 고등 학교 검정 심사 기준을 만드는 것이었다. 회의와 토론의  
연속……. 그 산고 끝에 5종씩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교과서가 선정되었다.**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자연 교과서 내용이다.

초·중·고등 학교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초등 학교 과학, 즉 자연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그러한 충격은 학교 선생님,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그리하여 4년 정도가 지난 1977년까지도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내용에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겪었다. 왜냐 하면 필자가 1977년 6월 문교부 편수관으로 들어갔을 때 교실 현장에서 불협 화음의 소리가 계속 피드백되어 들어왔다. 그리하여 1978년부터 시작된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있을 때에 이 개혁 운동을 그대로 지속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세 명의 과학 편수관은 오래도록 하였다. 결국 몇 년을 지속하여 실시해 온 변화를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합의를 문찬호, 김동식, 필자, 세 사람이 내렸다. 이것은 한국의 과학 교육 운동으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다. 만약에 교육 현장에서 새 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려우니 재고하여야 한다고 했다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는 과학 교육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현장에 도입하기 이전 1960년대 후반부터 SAPA는 인천교대에 서 연구 개발하였는데 김기웅 교수, 한안진 교수, 김현재 교수, 그리고 마산교대의 김창식 교수 등이 주가 되어 인천 지역의 초등 학교에 적용시키면서 개발하였다. ESS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 교육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최종락 교수, 권병규 교수, 오대섭 교수, 오철환 교수, 경북사대부국의 김영수 선생님, 경북과학교육원의 도태기 연구관, 서보상 연구관 등이 주축이 되어 월성군의 여러 학교에서 적용 실험을 하였다. SCIS는 공주교대의 김종성 교수와 청주교대의 김영대 교수, 문찬호 교수, 조선형 교수 등이 주가 되어 연구 개발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학교 과정에는 IPS, 즉 introductory physics study라는 물상 교육과정이 있는데 서울사대에서 김대식 선생님이 실험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제 3 차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 물리, 화학 분야는 IPS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초등 학교 과학, 즉 자연 교과서는 예나 지금이나 국정 교과서로서 단일권이지만 중·고등 학교는 2 종이므로 검정 과정을 거쳐 몇 권의 교과서가 선발되었다. 그런데 제 3 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교과서가 검정 심사 과정에 심한 과다 경쟁으로 갈등이 있어 이들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국정 교과서로 통일하여 단일권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1977년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중학 과학 교과서를 개발할 기관으로 우리 세 명의 편수관은 합의 끝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를 선정하였다.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는 1종 도서 과학 교과서 개발 기관으로 위촉되어 분주한 개발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 당시 과학교육연구소장인 정연태 교수가 1종 도서 개발위원장이 되어 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과 교수들을 주축으로 전국에서 집

필진을 선발하여 1978년부터 중학 과학 교과서는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세 명의 편수관은 거의 매일 서울대학에서 원고 검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하여 제 4 차 교육과정까지 몇 년 동안 새 과학 교과서가 탄생하여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 당시 물리와 화학의 내용은 미국의 IPS의 탐구 내용을 많이 활용하였다.

고등 학교 제 3 차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공포되었건만 그에 대한 교과서 개발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 선배 편수관들이 모두 나가 버려서 우리는 문교부에 들어와서 가장 바쁘게 준비한 것이 고등 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기준을 만드는 일이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어떠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서 빈 집에 들어간 우리들은 몇 개월을 회의하고 토론하고 다듬어진 내용을 다시 축조 심의하였다. 그러나 고등 학교 2 종 교과서 검정 심사 기준을 완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결국은 충무로에 있는 대원 호텔에서 모든 것을 잊은 채 협의와 토론 끝에 심사 기준을 완성한 것이 기억에 새롭다. 그것에 의하여 선정된 교과서가 제 3 차 교육과정에 따른 5 종씩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교과서이다.

고등 학교는 제 2 차 교육과정까지 문과와 이과의 교과서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제 3 차 교육과정 때에는 문과, 이과 공통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의 교과서가 각각 단일권으로 구성되었다. 8~10 단위로 된 4 개의 과학 과목 중 문과가 2 과목을 선택하고 이과가 4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각 과목은 기본 개념을 위주로 5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최신의 과학 내용을 현상 위주에서 원리와 법칙 위주로 구조화하였기 때문에 단위 수는 줄었더라도 내용은 대단히 어려워졌다. 제 3 차 교육과정의 과학 내용이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즉, 이제까지 현상적이고 기초적인 과학 개념에서 미시적이고 원리 위주의 과학 개념을 배움으로써 종전의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 배우던 개념들을 고등 학교에서 배우게 되었다.

고등 학교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물리의 PSSC(Physical Science Study Committee), 화학의 CHEM study (Chemical Education and Material study)와 CBA(Chemical Bond Approach), 생물의 BSCS(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y), 지구 과학의 ESCP(Earth Science Curriculum Project) 등의 내용은 제 3 차 교육과정 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생물은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생물상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3 종으로 개발하였다. 책 표지를 하늘색으로 포장한 Blue version은 molecular biology에 역점을 두고, 노란색으로 포장한 Yellow version은 cellular level에, 녹색 표지로 된 Green version은 생태계에 역점을 둔 교과서로 그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이들 중 Blue version은 우리 나라 생물 교육과정 개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 예가 항상성(Homeostasis), 생명의 연속성(Genetic Continuity), 물질 대사(Metabolism) 등과 같은 단원이 신설된 예이다.

1977년 8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이것에 의하여 교육과정은 매 5 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꾸도록 규정된다. 그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에 많은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제 3 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매듭지어지기도 전에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1978년부터 시작하였다. 과학과의 경우 초등 학교와 중학교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다만, 초등학교 자연의 경우 탐구 과정과 기본 개념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만 가져

왔다. 예를 들면, 단원이 너무 길어서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여 단원의 길이를 짧게 나누고 단원 수를 늘리도록 하여 하나의 단원으로 한 달 정도 학습할 분량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관심이 긴 단원으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 학기에 2개씩 있던 단원을 4개로 늘려서 각 학년마다 1, 2학기 모두 8개의 단원으로 하였다.

더욱 커다란 변화는 4학년에 새로운 내용의 단원이 하나 삽입되었다. 작은 생물이란 단원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날파리보고 하루살이라 하고 곰팡이, 초파리, 솔이끼, 플라나리아 같은 생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주변에서 보는 생물을 정확히 알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처음으로 이 단원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때부터 많은 교수, 현장 선생님들에게 저항을 받았다. 오랜 토론과 논쟁 끝에 그 타당성과 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년간 실험본 사용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정리된 후 정본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

1982년 실험본 적용 때에 음료수병에 표시된 상표가 그대로 교과서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그 상표가 특정 회사의 선전물이 된다는 지적이 들어와서 과학 편수관들이 각 시도에 있는 42개 자연 실험 학교에 모두 가서 직접 그 상표를 지우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지금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78년부터 개정 작업이 시작된 제 4차 고등 학교 과학 교육과정은 제 3차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여론에 의하여 좀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자는 명제가 우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관이나 사업가가 될 문과 학생들도 과학 중 두 과목만 배우고 나감으로써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력 형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과학의 4 과목을 알고 넓게 조금씩은 배우고 나가야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다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여 문과는 과학의 4 과목을 4 단위로, 이과는 4 단위를 이수한 다음에 다시 6 단위의 4 과목을 이수하도록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 쉽고 알게 그리고 폭넓게 구성되었으나 과목수가 대단히 많아진 것은 가장 큰 단점의 하나가 되었다.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장의 평가를 정리해 보면 너무나 그 분량이 많아서 단위 시간 내에 도저히 이수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이과는 과학 교과만 8개의 책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1981년 공포된 제 4차 교육과정에서 과학과의 교육과정은 내용 구성과 조직에서 커다란 시련을 겪은 예라 본다.

〈1977~1988 과학과 편수관〉

## 농업 교과서편

정 성 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1. 문교부 편수관실과의 인연

필자가 문교부 편수관실에 들어간 시기는 1973년 7월 10일이다. 이 때, 전임 과장만 편수관계서 장학실 장학관으로 가시고 공백이 있는 기간에 파견 교사로 처음 편수국에 발을 들여 놓았다. 편수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는 터에 경기도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계서 편수국장(정세문, 작고)으로부터 농업 편수 업무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자를 추천하여 수석 편수관실에 갔다. 그 곳에 가 보니 농업 분야의 다른 한 분이 추천되어 와 있었다. 그 분과 함께 간단한 면접을 하고, 바로 논술과 영어 시험을 치르고 내려와서 한 달쯤 지난 후에 편수관실에 발령(1973. 7. 10.)을 받았다. 그것이 현 정부 종합 청사 10 층 사무실이었으며, 그 곳에는 이미 4월에 부임한 몇 분의 파견 교사가 있었다.

필자가 부임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선배이신 박승희 편수관이 부임하게 되어 농업 관계 업무를 승계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빨리 편수관을 총원할 계획이었다면 농업 파견 교사는 불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편 절차를 보면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실업계 고교 포함)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경제 발전 계획이 추진되어 공업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다른 학교급별보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971년에 개편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바로 교과서 편찬에 들어갔는데 이 때, 실업계 전문 교과목도 검정을 한 교과가 상당히 많았다. 필자가 교육부에 들어갔을 때는 농업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목의 교과서 검정 업무를 이미 마친 시기였다. 이 시기의 국정 교과서는 검정 신청이 없는 과목의 교과서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교과서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아울러 이 때는 초등학교 실험용 교과서를 편찬하여 투입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당시 실과는 이육임 편수관이 맡고 있었는데 이 과목도 전임 과장만 편수관이 맡다가 업무가 인계된 상태였다. 이 시기에 실과 교과서 편찬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자연과를 맡고 계시던 임병기 편수관의 일을 많이 도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제 3차 교육과정 시기는 우리 나라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수학에 집합 개념이 도입되고 자연(현재 과학)은 생활 중심에서 개념 중심으로 바뀔에 따라 교과서 체제에 대변화를 가져온 시기이기도 하다. 자연은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교과서도 탐구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여 실험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교과서 체제와는 아주 다른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이 때, 필자는 농업보다는 자연 교과서 개편에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다. 교과서를 편수관이 직접 주관하면서 편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내용 구성과 사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장해야 하는 시기라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집필자에게서 써 온 내용이 송두리째 바뀌고, 원고를 다시 집필하느라고 여관에서 보낸 날이 빈번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편찬에 관한 과정과 업무의 중요성, 진행 과정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때는 짧은 시기였기에 업무 진행 속도도 빠르고, 원고 집필이나 수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 2. 편수국 사건과 농업 교과서 개편

2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학교급별로 시차를 두고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의 순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해 왔다. 앞서 실업계 고등 학교는 1971년에 먼저 개정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 후에 1973년 2월에 초등 학교(당시 국민 학교), 1973년 8월에 중학교, 1974년 12월에 고등 학교 순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완료되었다. 초등 학교 교과서는 모든 교과가 국정 교과서로 편찬되기 때문에 국가 기본 계획에 의하여 예산도 확보하고, 담당 편수관이 편찬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초등 학교 교과서가 이 때부터 실험본 교과서를 먼저 만들고 이를 전국의 실험 학교에 투입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본 교과서에 반영하는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이런 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후속 조치로 검정 교과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연장 조치와 함께 차후에 2차 교육과정에서 합격한 출판사 위주의 단일 교과서 개편이 추진되면서부터 문제가 잉태되었다. 교육과정이 9~10년만에 개편되어 지금까지 검정에서 불합격한 출판사가 인제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있던 차에 검정을 실시하려는 조치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처사로 보고 이에 불만을 가진 출판사가 요로에 투서를 하는 등 민원이 세차게 제기되었고, 급기야 검찰 수사가 전개되어 이른바 편수국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때의 언론과 매스컴은 편수관들이 상당한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쳐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일로 인하여 기존의 편수관이 모두 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나와 몇 분의 과견 동료들은 이를 목격하며 분루를 삼켜야 했다. 전호에서도 언급했지만,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너무 열악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필자는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역사 대하 드라마 1회분을 촬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이겠는가? 그런데 교과서 1책을 개발하는 데 책정된 예산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예산은 그것에 비하여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다. 교과서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도 그 내막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너무도 적은 예산이며, 지금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그 당시의 교과서 예산은 원고료와 삽화, 사진

**편수국 사건 이후의 개혁은 편수 요원의 충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되었다. 농업 전문 교과가 국정으로 환원되었고,  
1종 도서의 개발 방식이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연구 개발형 체제로 바뀐 점이 바로 그것이다.**

제작료가 고작이었는데 그것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 편찬 작업을 할 때 쓰는 경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2종 교과서 조합에서 그 일부를 지원받아 작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세상에 알려진 것이 1976년의 편수국 사건이다. 지금 대형 수뢰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구조적 원인에 의하여 일어났던 사건에 의해서 선배 편수관 전원이 퇴진하는 일을 목도하면서 그 일을 계승해야 하는 괴로움을 맛보아야 했다.

그 때 있었던 한 가지 가슴 아픈 일화를 소개한다. 앞에 언급한 전임 편수관이셨다가 장학실 장학관을 거쳐 그 후 안성 전문 학교 학장으로 부임하신 곽상만 선생님께서 전화가 와서 댁으로 갔더니 사표를 주시면서 총무 과장한테 주라는 말씀을 하셨다. 1973년 초에 편수관실에서 장학실 장학관으로 다시 전문 학교 학장으로 나가신 분까지 사표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 전달하는 후배로서 면구함을 금할 수 없었음을 여기에 밝혀 둔다. 그 후 필자는 1977년 3월에 정식 편수 요원으로 발령을 받고 본격적인 실과와 농업 교과서 업무에 들어갔다.

편수국 사건 이후의 개혁은 편수 요원의 충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되었다. 모처럼 농업계 전문 교과가 검정 교과서로 되었다가 다시 국정 교과서로 환원되면서 많은 변화를 맞게 된다. 이 때, 제도적 장치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종래의 국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로 구분하던 것을 1종 도서(국정 교과서), 2종 도서(검정 교과서)로 구분한 것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때의 핵심적 제도 개선은 1종 도서의 개발 방식이 종래 편수관이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던 개발 체제에서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위탁하여 개발하는 연구 개발형 체제를 채택한 점이다.

이런 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때까지 검정 교과서인 농업계 고등 학교 전문 교과서를 모두 1종으로 전환해서 개발해야 했었는데 그 당시 필자가 한꺼번에 개발해야 할 책이 36책에 이르렀다. 이런 기록은 편수국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6책의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농업계 전문 과목의 검정 교과서 수가 27책이었으므로 1종 도서로 전환되는 책도 27책이어야 마땅하지만 그 중 ‘종합 실습 일지’라는 책이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의 형태가 실습 일지 형태였으므로 이 책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느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3차 농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설정된 종합 실습이란 교과목은 각 과에서 배운 것을 종합해서 현장과 연결된 활동을 하도록 설정한 교과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검정 교과서를 1종 도서로 전환하면서 실습 일지 형태로 개발하여 모든 과에 적용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효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당시 농고에 설치된 10 학과마다 각기 특징을 살리

면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실습 교과서 10 책을 편찬하도록 계획을 세움에 따라 개발할 책 수가 36 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편찬될 교과서가 확정된 후에 어느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공업계 전문 교과서는 편수 담당자가 많이 있어서 분야별로 대학에 위탁하면 되었고, 다른 계열도 분산하여 개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농업은 성격이 좀 달랐다. 필자 혼자서 농업 분야 모두를 맡았을 뿐 아니라 농업 분야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업 교육과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송해균 교수님께 위탁을 하였다. 이 때, 문제된 것이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것도 아니고, 법정 연구소도 아닌 곳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위탁받은 기관의 책임자는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위원장이 되고, 위탁받은 교과서 편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우리 나라 연구개발형 교과용 도서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후에 문교부와 위탁받은 연구 기관(대학 포함)과의 업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게 되었다. 그 당시 필자 혼자서 36 책을 맡아 개발해야 하고 한 대학에 농업계 전문 교과 모두를 개발하도록 하는 데 따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발 예산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편수국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그 때의 36 책 개발 예산이 1억 원을 넘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업무를 주관하던 김상동 사무관(그 후 강원도 교육청 관리국장, 작고)과 편수국장(장기옥, 그 후 차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검정 교과서에서 1 종 교과서로 전환된 교과서의 편찬 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후의 추진은 위탁받은 연구 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책의 집필진 선정 작업을 착수했다. 1종도서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책마다 집필진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때,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각 교과서마다 최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인사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농과 대학, 연구 기관을 망라해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집필진이 구성된 도서는 교육 과정에 터한 집필 세목을 작성하고, 이를 교과목별 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집필 세목을 확정된 후에 집필에 들어갔다. 그 후 대표 집필자와의 추진 사항을 협의하고 계획된 일자에 집필을 완료하도록 하였지만, 무슨 원고든지 제 기일 내에 완성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1종도서 개발위원회 대표자이신 송 교수님과 필자가 집필자 연구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한 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여기서 밝히지만 송해균 교수님께서 그 후 정년을 하실 때까지 농업계 고교 1종 도서 편찬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과서 원고 집필이 완료되면 위탁받은 연구 기관의 자체 협의회를 소집하여 원고 내용을 협의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집필진에게 다시 보완토록 한 후 심의본을 완성하여 문교부에 제출하면, 문교부는 과목별 편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하고, 보완 내용을 연구 기관에 통보하여 수정을 한 후, 현장 교사에게 현장 검토를 위탁하게 된다. 현장 검토는 일선 농업계 고등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가 검토하여 그 문제점이나 개선 의견을 교과서 내용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그 후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원고를 2 차 문교부 편찬심의회에 회부하여 확정된 후

결재를 받음으로써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다.

그 때는 아침에 문교부에 출근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본 후 바로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대 위탁 기관으로 출근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다. 그 당시 출장비나 활동비도 없이 전철로 뛰어다녔던 것을 회고해 보면 사명감과 열정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77년 이후에 정작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실행하면서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직도 1종 도서, 2종 도서로 구분하여 실행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교과서관에 있어서 닫힌 교과서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과서는 절대적인 학습 자료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린 교과서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학생이 학습하는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다. 교육 과정에 터하여 제공되는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 그 중에서 학생이 배우는 주된 자료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쇄 매체인 교과서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 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전달 매체가 다양해진 현재 교과서를 보는 시각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사이버(cyber) 공간에서의 활동이 특징인 현재는 이에 부합되는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자유 발행 제도는 어렵겠지만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제 위주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창의적인 교과서 출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과서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 이하의 교과서는 현장에서 걸러질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볼 때 과거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1

〈1977~1992 실과·농업과 편수관〉

## 공업 교과서편

강 기 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객원 교수

1977년 3월 14일 문교부 총무과 인사계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보니, 양재면 교수, 안상덕 교수, 이상혁 교수가 대기하고 있어 인사를 나누었는데, 매우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인사계장(성정균)의 책상 위에는 편수 사건을 알리는 큰 활자의 조간 신문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잠시 후 차관실로 안내받고 고광득(高光得) 차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편수국으로 안내되었다. 이와 같이 필자가 문교부와 인연을 맺고 근무를 시작한 날은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알려진 날과 일치한다.

### 1. 공업계 편수 요원 대폭 증원

필자가 문교부 교육 연구관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은 공고 교과서 편찬 및 교육과정 개발 계획(1976. 3.)에 따라 기계·전기 부문을 비롯한 중화학 공업 관련 학과의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편찬한다는 편찬 방침에 의한 조치로서, 편찬 5개년 계획(1977~1981년)으로 138책을 편찬하기 위해 편수관(연구관)과 연구사 등의 편수 요원의 충원에 따른 것이었다. 편수관에는 기계, 금속, 전기, 건축 담당 각 1명씩 4명을, 연구사에는 기계, 전기, 전자, 토목, 화공, 담당 각 1명씩 5명과 기타 부문 담당 연구사 5명 등 전체 15명이 증원되었다. 이는 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증원 조치였다.

그 당시는 공고의 경우 197 과목 287 책을 편수관(화공 전공)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었으며, 기계, 전기,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실습 교재 포함) 개편 등을 위하여 편수관 및 연구사의 증원이 이루어졌다.

### 2. 공업계 학과의 증설 운영

한편, 공고 교육과정 개정 및 보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여기에는 그 시기에 개정 공포된 공고 교육과정을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 사회에 부합되게 계속 검토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1971년 8월 24일자 전면 개정으로, 조선과와 식품공업과를 신

설하여 1972학년도부터 시행해 온 17개 학과를, 둘째, 1976년 2월 23일자로 제철과를 신설하는 등 부분 개정하여 1976학년도부터 일부 시행함으로써 총 18개 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셋째, 1978년도에는 공업계측, 배관, 정밀 기계, 건설 기계, 정보 기술, 통신 설비, 설비 공업 등 7개과가 신설되는 부분 개정으로 총 25개 학과가 운영되었다.

이것은 중화학 공업화와 공업 입국을 지향하던 1977년 후반기에 공고를 중심으로 한 고급 기능 인력 양성을 목표로 공고 중점 육성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공고를 기계 공고, 시범 공고, 특성화 공고, 일반 공고의 4개 유형으로 각기 특성 있게 육성하였다. 이는 기능 인력 양성 계획을 공고로 중심으로 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요구에 의해 학과의 증설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겪은 일화를 소개한다.

1977년 5월 18일 경남 교육청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개정(신설)에 관한 공문을 편수와 담당 사무관(작고하신 김상동)이 검토 의뢰를 해 와서 다음날 검토 결과를 건네 주었다. 그러나 2일 후에 또 다른 교육청(전남, 인천)이 요청한 교육과정 개정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뢰를 받고, 고심하게 되었다. 내용인즉, 유사한 학과에 대한 승인 신청이 각 시·도에서 2중 3중으로 편수과에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끝없이 이어지는 학과의 신·개폐 승인 요청 작업에 매달릴 수 없어,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 교육과정에 준하되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는 교육과정(학과)은 기 승인된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확정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 교육과와 협의하고, 이를 각 시·도에 시달 조치하였다.

1979학년도의 설치 학과는 교육과정 제시 학과 18개 학과를 포함하여 67개 학과에 달했으며 학교마다 특성 있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학과의 개설과 폐과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학과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4차 교육과정에 기존 학과 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 기간 동안에 공업계 학과의 개편·증설되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과정상 제시 학과

- (1) 1971년 8월 24일 전면 개정 → '72년도 시행 (17 학과)
- (2) 1976년 2월 23일 부분 개정 → '77년도 시행 (18 학과)
- (3) 1979년 3월 1일 신입생 모집 중지(제철과) (17 학과)

#### 나. 학과 개편 증설

- (1) 1977년 5월 28일 공고 학과 조정 계획 승인 공업 계측과, 배관과 등 7개 학과 (공업1040-282)
- (2) 1977년 9월 26일 공고 학급 개편 계획 승인 15 학과 (공업 1030 - 557)
- (3) 1978년 5월 26일 특성화 공고 개편 (기계 공작, 판금 용접 등 37 학과)

그 밖의 학교는 교육과정 승인 없이 관련 교육과정과 산업 교육국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음.

#### 다. 1979학년도 설치 운영된 학과

- (전국 공업 고등 학교 일람 - 산업 교육국)  
- 신입생 모집 학과 수 63 학과

이상과 같이 학과의 변화는 공고의 질적 향상과 산업 구조의 성장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력 수급 계획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상의 18개 기존 학과가 1981년 현재 75 학과로 세분되어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세분화된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은 좁은 영역의 직업적인 기능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보다 넓은 기초 지식과 기본 기술의 습득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고 교육은 1970년도 후반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 합리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노동 관리 체제의 형성, 직무의 노동 내용과 조직의 급속한 변화 등에 따라 종래의 숙련 기능자는 노동의 상대적 독자성을 잃게 되어 단순한 작업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공고 졸업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이 1980년 7월 30일 단행된 교육 개혁 조치에 힘입어 우리 실정에 맞는 미래 지향적 공고 교육과정 개정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 3. 교과서 편찬

필자가 문교부에 인연을 맺고 근무를 시작한 날은 이른바 김·인정 교과서 사건이 알려진 날이며, 이로 인하여 문교부는 교과서 제도의 일대 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동년 7월에 ‘교과서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교과서 편찬은 한국교육개발원을 활용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 뒤 1978년 11월에 문교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 체제의 강화 방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체제로 강화하여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교과서 편찬 과정 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차 교육과정기('73~'81) 동안 문교부 편수국은 교과서 제도의 개혁이 진행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기구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는 1978년 3월에 편수국이 장학실에 흡수 통합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개발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1979년 1월에 교육과정 연구부에 교과별 연구실을 강화하였다. 두 번째로, 1980년 2월에 다시 편수국이 장학실에서 분리되어 종전대로 환원 개편되었다.

또한,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 대통령령 제 3018 호에 따라 1973년 2월 1일 검정을 거쳐 1977년 8월 21일까지 적용할 공업계 2종 교과서인 기계 제도, 기계 공작 일반 등 26 책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8660 호- 1977. 8. 22.)에 의해 1종 도서로 전환 출판되었다.

1977년도 이후에 수행한 편찬 5개년 계획에 따라 필자가 담당한 학과와 편찬 교과서는 다음 표와 같다.

【공업계 교과서 편찬 5개년 계획(1977~1981년)】

연도별	편찬 책 수(전체)				학과별 편찬 계획(필자 담당)						
					광산		금속		제철		계
	이론	실습	계	책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977	19	9	28	책	3		3		2	2	10
1978	17	11	28	"	3	1	1		1	1	7
1979	15	19	28	"		1	1		2	1	5
1980	13	15	28	"		2				1	3
1981	17	9	26	"	1	1					2
	81	57	138	"	7	5	5		5	5	27

필자가 문교부에 근무하던 시기의 편찬 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과는 크게 다른 어려운 실정이었다. 우선, PC가 없는 시대로 원고지에 직접 한 칸 한 칸을 메워나가는 어려움에, 수정 사항이 생기면 이를 새로운 원고지에 정리하여 옮기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삽화가 많고 도면이 있는 공업계의 전문 교과서는 삽화나 도면을 트레이싱 페이퍼(투사지)로 옮기는 일이, 복사기와 스캐너를 사용하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이었다. 여기에, 원고료는 200자 원고지 기준 300원에서 400원, 1976년에 수립한 5개년 계획에서 특별히 상향 조정한 것이 600원이었다.

또한, 집필자와의 관계도 어려움이 많았다. 첫째는 실기를 다루면서 이론에 밝고 필력이 있는 분, 둘째는 문교부가 요구하는 편찬 기준에 잘 따라 주시는 분, 셋째는 현장 검토와 심의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적절히 수용하여 반영해 주시는 분이라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나 ① 집필하신 원고 내용을 한자도 고칠 수 없다는 고집, ② 외국책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100% 번역에다 그림 번호까지 같게 옮겨 놓고는 이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집념, ③ 집필하시겠다고 수락한 다음, 원고 마감일 1~2주 남겨 놓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집필이 불가하다고 반납하시는 여유(?) 등, 원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충격을 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협조하여 주시는 집필자가 많이 계시기에 그 많은 공업계 교과서가 차질 없이 적기에 개발되고 인쇄·발행되어 일선에 공급 활용할 수 있게 한 업적은 많은 집필자의 귀중한 기여의 몫으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변화 과정에서 필자가 담당하여 편찬한 27책 중 기억에 남아 있는 몇 가지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금속 화학

- 저 자            오재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이원해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이한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    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연 구            이용학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이영호   서울직업학교  
                      강기주   문교부
- 편찬자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초판 발행        1980년 3월 1일

### ○ 지도 목표

금속 제련에 필요한 화학의 기초 지식을 이해시켜, 바르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지도 내용

(가) 화학의 기초적인 방법, (나) 화학 방정식, (다) 화학 반응 및 평형, (라) 결정 화학, (마) 금속 화학, (바) 금상학 등 금속 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학문으로 금속 화학의 기초가 되는 열역학을 서술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이것을 토대로 학생들이 상평형, 제련 반응, 전기 화학 및 반응 속도 등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 문제점

현장 검토 과정에 논의된 내용은 화학 평형에서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반응 속도에 반응 속도론을 설명하는 수식과 내용 수준이 높아 지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해도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 공업교육과 출신 교사는 수준이 적정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 ○ 대 책

지도 내용과 수준의 하향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의 협의 끝에 지도서를 발간하기로 확정, '금속 화학 교사용 지도서'를 1981년도에 개발, 일선에 공급 활용하게 하였다.

## (2) 광산 기초 실습 2

○ 저 자            정영식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김웅수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주석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이석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 연 구            김재극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두영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김영달    삼척공업전문대학            강기주    문교부

○ 편찬자            한양대학교 산업 과학 연구소

○ 초판 발행        1980년 3월 1일

### ○ 지도 목표

광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의 학습을 기초로 하여 광물의 식별, 분석 및 기본적인 측량 기술 능력을 기른다.

### ○ 지도 내용

#### I. 측 량

(가) 간략 측량, (나) 측쇄 측량, (다) 평판 측량, (라) 컴퍼스 측량, (마) 트랜시 측량, (바) 수준의 측량

#### II. 채 광

(가) 굴착, (나) 발파, (다) 운반, (라) 동발매기, (마) 기타

### ○ 문제점

실습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론 교과서 체제로 서술됨으로써 지침에 제시한 [과제명], [목적], [재료], [사용 공구와 측정 기기], [실습 순서], [안전 및 유의 사항], [익힘 문제] 등에 대한 편찬 체제와 서술 내용 등이 집필자마다 다르고, 특히 목적과 실습 순서를 서술적으로 장황하게 기술하는 등 실습 교재 체제와 맞지 않았다.

## ○ 대 책

저자 책임자(작고하신 정영식 교수)와 협의 끝에 영등포역 앞 영화호텔에서 3박 4일 간에 걸쳐 필자와 집필자 간에 협의 조정 작업을 거쳐 재작성하였음. 이 작업에서 서울 공고 조성문 과장(현 한서고 교감)이 작업 결과를 원고지에 정리하는 수고를 하였는데, 그 후 본 실습 교과서는 광산과 실습 교과서의 편찬 모형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 (3) 압연

○ 저 자 박용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양훈영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김석윤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 연 구 홍종휘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이성재 포항실업전문대학

오규만 일신제강주식회사 강기주 문교부

○ 편찬자 홍익대학교 중화학 공업연구소

○ 초판 발행 1980년 3월 1일

## ○ 지도 목표

압연에 관한 기초 지식과 조작 방법을 이해시키고, 압연 기계 기구의 설치, 운전 및 보수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른다.

## ○ 지도 내용

(가) 압연의 기초 이론

① 압연 재료의 흐름, ② 압연 조건, ③ 압연에 의한 조직의 변화

(나) 압연

① 분과 압연, ② 강편 압연, ③ 열간 압연, ④ 후관 압연, ⑤ 냉간 압연, ⑥ 관련 설비 및 부속 설비

(다) 안전 관리

## ○ 문제점

공업계 교과서는 물론, 대학 교재인 전문 교재도 없는 실정에서 편찬하게 됨에 따라 외국의 전문 교재 10여 권을 참고하여 집필하였으나, 초고를 받아 본 결과 단위 시설보다 장치 시설이 주가 되는 압연 설비 시설의 특성상 고등 학교 수준의 교재 구성에 맞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자체 심의, 공식 심의, 현장 검토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내용, 삽화, 용어 등이 어렵다는 의견과 복잡한 장치 삽화의 단순화 요구가 있었다.

## ○ 대 책

많은 고심 끝에 필자가 직접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집필 책임자를 설득, 서교 호텔에서 5일간 작업에 임했다. 때는 9월 중순 불볕 더위에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에 의존한 환경에서 작업에 참여하였던 집필 책임자 방용진 교수(정년 퇴임), 집필자인 양훈영 교수(작고), 김석윤 교수(정년 퇴임)와 작업 결과를 원고지에 정리해 주신 남승의 교수(현 홍익대학교 부총장)의 남다른 협조가 컸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도 압연 교과서가 공고 현장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그 분들의 노고에 고맙게 생각한다. 23

〈1977~1986 공업·자연과학 편수관〉

## ‘띄어쓰기 편람’을 개발하고서

이 승 구

대한교과서(주) 상임고문

편

집 일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좀 한가한 몸이 되니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몸이 쭈시고 비틀리는 것 같았다. 노는 것도 이골이 나야 한다는 말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뭔가 일을 해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교과서 만드는 일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 1962년이니까 햇수로 35년 만에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다. 일선에 있는 동안 정시에 퇴근하는 날보다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았고, 퇴근하고서도 늦게까지 집에서 일을 안 한 날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늘 시간에 쫓겨가며 일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참고, 활용하면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속된 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참고, 활용할 자료조차 사실은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억에 의존해서 ‘대강 철저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동안 편집·교정을 직접 했거나 관리를 한 책으로 따진다면 숫적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기록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지른 과오로 볼 때에도 또한 기록이 될 것이니, 참괴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저지

른 과오에 대해 조금이나마 속죄를 하고, 내가 현역에 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에게는 겪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선배의 도리라는 생각에서, 또 내 자신의 무료를 달래기 위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실무 실용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에서 ‘교과서 띄어쓰기 용례 조사(5, 6차 1종 교과서)’도 하고, ‘편수 자료의 가나다순, 알파벳순 용례집’도 만들고, ‘띄어쓰기 편람’ 등도 만들게 되었다. 워낙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일이야말로 나같이 조금은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편수의 뒤안길’과 ‘교과서 연구’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어떤 변혁기에 표기의 자료가 제대로 인계, 인수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혼란이 뒤따르고, 더구나 그것이 개인의 노하우나 기억에 의존했을 때에는 전통이 단절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다.

편집·교정을 하는 데는 흔히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장의 쓰레기더미만큼이나 잡다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기초 과학 용어, 응용 과학 용어, 인문·사회 과학 용어, 예·체능 용어, 일반 외래어 표기, 인명·지명 표기, 문장의 호응, 표준어, 맞춤법, 단위계, 띄어쓰기 등등에 대해 어

<p>느 정도 이해해야 교과서를 비로소 만질 수 있고, 그래야 교악(校惡)은 면할 수 있다고 나는 평소에 생각해 오고 이야기해 왔다.</p>	
<p>일찍이 문교부에서는 ‘한글 띄어쓰기’(1949. 2.)를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칙만 가지고서는 실무에 적용시킬 때 모호한 것이 많이 나와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총칙과 세칙으로 되어 있고, 용례가 247개 제시되어 있고, 찾아보기가 붙어 있었으나, 이것만 가지고 국어에 실현되는 여러 띄어쓰기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p>	<p>가지고서는 실무자의 궁금증과 답답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해결시켜 주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새 맞춤법에 따라 보완, 수보(修補)한 것이 정서법 자료의 ‘실용 띄어쓰기’이다.</p> <p>그러나 이것 역시 원칙만 가지고서는 국어 전공자도 수십만에 이르는 어례(語例)를 규정에 맞춰 처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더구나 일반 언중, 일반 편집자에게 어법에 맞게 제대로 처리, 통일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아닐 수 없다.</p>
<p>마침 2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문교부에서는 표기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표기 자료를 편찬해 나갔다. 이미 나온 편수 자료 1, 2, 3도 개정을 서두르고 있었다. 또, 이 무렵에 ‘교과별 외래어 표기 자료’와 이를 알파벳순으로 종합 배열한 ‘외래어 표기 자료’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외래어 표기에서 기념비적인 자료가 된다.</p>	<p>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잣대로 옆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편람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1998년에 우선 5, 6차 1종 교과서 약 40,000 페이지에서 용례 약 55,000개(거듭되는 용례 포함)를 뽑아 가나다순으로 배열해서 책을 만드니 4·6배판 1,176 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되었다. 이 작업은 한국교과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p>
<p>이 때 만들어진 또 다른 표기 자료로는 ‘교정 편람’이 있는데,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사용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만큼 표기사적인 면에서 영향을 끼친 것도 많지 않다.</p>	<p>이 조사, 연구를 통해 교과서에 나오는 어례의 수준과 규모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점과 취약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교과서의 품질 관리의 기초 자료가 부분적으로 완성된 셈이다. 지금 공산품에서도 100만분의 1의 흠결(欠缺)도 인정하지 않는 품질 관리 운동을 벌여 나가는데, 우리 교과서의 품질 관리 실태는 과연 어떠한가를 한 번쯤은 돌이켜보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p>
<p>‘교정 편람’은 용례를 초등 학교 전 교과서와 중·고등 학교 국정 교과서에서 뽑아 이를 규정한 것인데, 이 편람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띄어쓰기의 틀을 잡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장님의 지팡이’ 역할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p>	<p>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억에 의존해서 처리를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표기 근거에 의해서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p>
<p>이 ‘교정 편람’은 1988년 한글 맞춤법이 고시될 때까지 교과서 띄어쓰기의 잣대의 역할을 해 왔었다. 새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는 그 이전의 한글 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보다는 상세화되어 있으나, 이것만</p>	<p>원칙이 있으나, 많은 사람이 같은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일관되게 처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띄어쓰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형식(語形式) 띄어쓰기를 이</p>

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어형식 띄어쓰기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므로, 단어의 형태 분석 이론과 조어법 이론에 정통해야 한다. 그런데 단어의 개념 정의와 단어의 분류 기준, 조어법 이론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언중(言衆)이 이 이론에 따라 실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단어의 개념 규정과 단어의 구분 방식, 허용 규정, 어휘 간의 연계를 제대로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평소에 띄어쓰기 문제를 가독성의 문제로 보고, ① 반드시 붙여 써야 하는 것과 ②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것, ③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으로 이해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그러나 1종 교과서에서는 나름대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시비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이 작업을 통해 용례 처리의 실재를 파악하고, 상호 모순 되게 처리한 것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개선점에 대해서 시사점을 받게 되었다.

이 조사, 연구에서 ‘띄어쓰기 편람’의 제작을 제안하였는데, 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확장, 수보(修補)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마침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7차 교과서를 편찬 중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에서 박차를 가하여 용례의 추출을 다음과 같이 해 나갔다.

첫째, ‘교과서 띄어쓰기 용례 조사(5, 6차 1종 교과서)’에 나오는 용례를 주된 자료로 하고, 이것의 활용된 형태 및 편수 자료의 용어를 보조 자료로 하여 표기 용례를 조사, 선정하고, 그 밖에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용례를

각종 사서 및 자료에서 조사, 선정했다.

둘째, 편수 자료 및 각종 사서에서는 전문 용어로서 특히 한 글자와 두 글자 이상이 결합한 합성어, 그리고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를 조사, 선정했다.

셋째, 구분하기 어려운 조사, 어미,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본용언과 보조 용언, 용언끼리 결합한 합성 용언, 명사에 ‘있다’, ‘없다’가 결합한 형용사, 명사에 ‘같다’가 결합한 형용사, 파생어, 관형사, 접미사, 접두사, 접어, 준접어, 고유 명사에 관계된 용례를 조사, 선정했다.

이러한 조사, 선정 작업은 원고지에 일반 원고 쓰듯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생각이 나는 대로, 새 용례가 발견되는 대로 추가에 추가를 거듭하다가 삭제에 삭제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교정지가 자연히 걸레(?)가 되고, 매번 교정지가 초교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교정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침내 방대한 양이 틀을 갖추게 되고, 교료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교료 준비를 하던 중에 1999년 10월 한글날, 국립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사전 상권이 전시되었다. 전시장에서 사전을 들춰 보니 기존의 사전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교과서의 표기 체계와도 거리가 있었다. 결국, 교료를 보류하고 완간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2월에 가서야 완질을 구해 훑어보니 사이 ㅅ 문제, 합성 명사의 띄어쓰기, 보조 용언, 편수 자료의 용어, 교육과정상의 용어와 다른 표기, 표준어 문제, 외래어 띄어쓰기 등등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다. 결국, 만들어 놓은 자료를 7,500 페이지나 되는 사전과 일일이 비교, 대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달이 넘게 걸려 문제가 되는 것을 약 3,070 개 추출해 냈

다. 이를 교과서 편찬 관계 기관에 알리고, 교과서 표기 문제에 대한 지침을 구하는 동시에, 표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표제어가 교육부의 각종 편수 자료 및 각급 학교 교육과정 등의 교육 용어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교육 용어를 원칙적으로 따른다.				
마침 2000년 2월, 교육부로부터 ‘2000년 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과제 연구 신청서’를 제출해 보라는 통보를 받고, 평가원 인사 두 분, 국어연구원 인사 두 분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연구 신청을 냈고, 5월에 과제 추진을 수탁하게 되었다.					① 표준어				
연구 팀은 개발 연구, 적용 원칙 검토, 용례 검토표 작성 등으로 분담해서 연구를 추진하면서, 다시 표기가 다른 것을 ① 교과서의 용례와 다른 것, ② 사전에 관용어로 등재된 용례로서 교과서에 사용될 빈도가 높은 용례 ③ 합성 명사로 된 용례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표기 용례, 사전, 검토 관점, 연구진 의견, 비교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표를 만들었다.					썩이다(속을 ~.) / 썩히다(음식물을 ~.)				
					깃들다(어둠이 ~.) / 깃들이다(보금자리를 만들어 살다.)				
					넓적넓적(떡을 ~ 썰다.) / 넓적넓적(말대답을 ~잘 한다.)				
					아니요(‘네’,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 아니오(나는 흥길동이가 ~.)				
					끼어들다(사이에 ~.)				
					마 / 마라(술을 먹지 ~.) (‘말아라’는 인정하지 않음.)				
					② 띄어쓰기				
					‘만하다’—종래에 접미사로 보던 것을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라 보조사 ‘만’과 서술어 ‘하다’로 분리해서 처리한다.				
					형만 하다    주먹만 하다    콩알만 하다				
					‘싫어하다’—종래에 보조 동사로 보던 것을 ‘-고 싶다’라는 구에 ‘-어하다’가 붙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종전대로 처리한다.				
					③ ‘사이 ㅅ’				
					표준 국어 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르되, 이를 확대 적용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편수 자료 및 교육과정 등의 교육 용어와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 용어를 원칙적으로 따른다.				
					등꽃길, 귀갓길, … / 성묘길, 취재길, …				
					장밋빛, 포돛빛, … / 살구빛, 버찌빛, …				
					사윗감, 치맛감, … / 당 대표감, 대통령 후보감, …				
					절대값, 대표값, 최소값, …				
					④ 전문 용어 및 고유 명사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원칙				

대로 처리한다. 이에 준하는 일반 용어도 이에 합치되도록 처리한다.

#### ⑤ 문장 부호

가운뎃점—두 인명에서 온 공식과 공법 및 두 지명에서 온 지명과 용어 등에 주로 사용하던 짧은 줄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2)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호 연계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면서, 일관성 있게 통일할 수 있는 쪽을 택한다.

가려 내다      골라 내다

뜯어 내다      떼어 내다

나팔 소리      종 소리

피리 소리      피아노 소리

쌀 장사      책 장사

채소 장사      과일 장사

(3)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편수 자료의 원칙을 따른다.

이 ‘띄어쓰기 편람’에서는 사전과 교육 용어 간의 차이를 나름대로 가름자를 타면서 표제어로 약 53,000 개를 제시하고, 비교 용례 및 활용되는 용례 약 30,000 개(중복 포함)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뒷말로 찾기를 약 13,000 개를 실어 편람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였다. 등재 총 용례가 약 96,000 개, 4·6배판 865 페이지의 분량의 방대한 자료이다. 아쉬움이 없지 않은 자료이지만, 우선 참고, 활용하면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 2차, 3차의 자료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장차 이것이 토대가 되어 국가 수준의 국어 표기 사전이 나오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책을 만드는 일을 잘 아는 사람은 자료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끝으로 첨언 하나를 덧붙이면 손작업으로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그마치 연필 25 자루가 몽당연필이 되고, 20 개월이 넘는 시간을 여기에 허비했다. 우리가 원고지에 글을 옮겨 쓸 때, 8시간 기준으로 200 자 원고지 100 여 장을 쓰니까 글자로 약 20,000 자를 옮겨 쓰는 셈이다. 그리고 한글을 문선(文選)하는 경우에 8시간 기준 14,000 자 정도를 하고, 조판은 국판 기준 20 페이지 정도를 하니까 15,000 자를 하는 셈이 된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 한글일 때 8시간을 기준으로 한 40 페이지는 입력할 수 있으니까 약 30,000 자를 입력하는 셈이다. 원고지에 쓰는 과정과 문선을 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조판은 배가 빨라졌다. 또, 정판(整版)이 쉬워지고, 또 국어 정보 처리를 통해 제2, 제3의 자료 가공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내 자신 이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초창기에 우리 나라 컴퓨터책을 다수 편집하고, 그 방면의 앞선 사람으로 자부했던(?) 사람이, 또 직원들에게는 그것을 못 하면 인사 고과에 반영한다고 야단까지 친 사람이, 그리고 DTP를 목청 높여 외치던 사람이 그대로 연필 세대에 머물러 비효율적으로 일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컴맹 탈출, 연필 세대 탈출을 하지 않고서 그나마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시키는 자리에 안주해 있다가 사회화의 낙오자가 된 것이 아닐까 반성해 본다. 넉넉잡고 몇 달만 하면 될 것을 게으름 피우다가 결국 사회화를 못한 것이다. 이제 컴맹 탈출은 생존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단계가 된 듯싶다. ㉔

## 교과서의 자유 발행보다 검정 확대를 서두를 때

한 명 희

전 교육부 편수국장

### 1. 교과서 제도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일까? 이러이러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쉽게 합의만 되고, 그런 교과서를 개발할 수만 있다면 교과서 정책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교과서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각기 내세우고 있는 좋은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명쾌하게 답을 못한다. 일부 국회 의원이나 학자들이 우리도 미국 교과서와 같이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학습에 필요한 참고자료도 충분히 수록하면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가 되고, 이를 학생에게 대여하여 6~7년 사용하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이다.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는 상하 2권으로 편찬되었는데, 상권만 478쪽(4·6배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국어 교과서에 교과서보다 더 두꺼운 참고서를 발간하여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대여제 실시도 우리의 현실로 볼 때, 그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여제를 실시하려면 한 책을 수년 간 여러 학생이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학생들은 깨끗이 사용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용 교과서를 구입하는 등 대여제를 실시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대여제를 실시할 경우, 수년 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과서는 적은 오류나 하자가 용납되지 않고 있어 매년 교과서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우리 교과서 제도를 자유 발행제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자유 발행제 도입에 앞서, 자유 발행과 검정 제도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자유 발행제가 되면 교과서 값이 오르고, 특정 교과목의 경우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특정 종교나 단체에 편향된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 전학이나 편입시 교과서의 형태와 내용이 너무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때 물론 자유 발행제의 장점도 알려 주어야 한다.

교과서 값이 오른다는 사실은 너무 자명한 일이라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그리고 검정 교과서이든 자유 발행 교과서이든 시장성이

있어야 개발이 되는데, 수요가 적은 일부 교과서는 교과서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검정제 아래서는 최소한 1년 전에 등록을 받기 때문에 검정 출원이 안 된 교과서는 국가가 서둘러 개발하여 적기 공급이 가능한데, 자유 발행제 아래서는 교과서 개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실제 교과서 개발이 안 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경우는 특정 종교의 입장에 따라(예 : 현재는 진화론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조론만을 학습할 수도 있음.) 학습 내용이 편향될 수도 있다. 또, 우리 나라와 같이 인구 이동이 빈번하고 입시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검정 교과서와 같이 그 형태와 내용이 어느 정도는 유사해야 학생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는 법규상 검정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인정 제도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자유 발행제의 장점도 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의 검정 기준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과목당 18종이나 되는 교과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종의 교과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면, 이는 과장된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자유 발행제를 한다고 해서 교과서마다 특색이 있는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또, 학년당 학생 수가 65만 명에 불과한 교과서 시장에서 18종의 교과서가 경쟁 중인데 자유 발행제 도입으로 이보다 더 많은 종류의 교과서가 시장에 범람하고, 그 후 적자 생존의 논리에 따라 몇 종류의 교과서가 남거나 어떤 특정

교과서 하나만 남는다고 가정할 때, 지금의 검정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자유 경쟁에 의한 교과서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대형 출판사가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하거나 특정 교직 단체가 그 조직을 통하여 교과서 관측 경쟁을 할 때 악화가 양화를 축출하는 결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교육이 대처해야 하겠지만,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과서 제도의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가 우리 나라와 유사한 교과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유 발행제가 안고 있는 문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교육부 사회 과학 편수관으로 재직할 때의 일이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 미국 교과서를 분석(한국 교육개발원 주관)한 일이 있는데, 미국 Hunter 고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 “The Human Expression”의 한국 관련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 책의 저자인 Welty 교수에게 이기백 교수와 한우근 교수가 집필한 영문판 한국사를 각 1부씩 보내기로 하고, 당시 미국에 근무하던 우리 교육 원장에게 그 일을 부탁한 일이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육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이사한 Welty 교수 맥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교수님은 사망한 후라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저자는 고인이 되었는데 문제가 많은(물론 한국 입장에서이지만) 그 책은 여전히 교과서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한다.

<p>2.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보다 자유 발행 교과서가 더 좋은 교과서라는 보장은 없다.</p>	<p>할을 도외시한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p>
<p>통일된 교과서로 모든 학생을 가르치는 한, 창의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에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 발행제 하에서도 과목당 단일 교과서 형태의 교과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 제도를 시장 기능에만 맡겨 놓으면 시장성이 없는 경우는 물론 시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 과정에서 교과서의 질보다는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교과서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자유 발행제가 도입된다고 하여 현재의 국정이나 검정 형태의 교과서보다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된다는 보장은 없다.</p>	<p>3. 교과서 자유 발행제는 새로운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출현을 더욱 어렵게 한다.</p>
<p>만일 국정 교과서가 다원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르는 데 부족함이 있고 질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국정) 교과서를 연구 개발 기관으로 하여금 검정으로 출원케 하여 다른 검정 교과서와 경쟁을 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자유 발행제가 도입되더라도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계속 개발하여, 자유 발행 교과서의 한 종으로 여타의 교과서와 경쟁을 시키면, 자유 발행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데 건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본다.</p>	<p>자유 발행제가 실시되면 기존의 교과서 전문 출판사는 그 명성과 판매 조직을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용이하나 새로운 출판사는 기존의 교과서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다. 어떤 저자나 출판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할 때, 검정 제도 아래서는 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현재 우리의 2종협회 같은)하여 그 조직을 통해 견본본을 학교에 보내고, 견본본 전시회 등을 통하여 교과서 시장에 우선 참여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 그 교과서는 제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 발행제 아래서는 아무리 질 좋은 교과서라 해도 홍보 및 판매 조직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중도에 도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로운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펴낸 질 좋은 새 교과서가 중도에 도태되면 기존의 교과서 출판사는 교과서의 질로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판매 조직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과서를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p>
<p>또,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는 창의성을 높일 수 없는데 자유 발행 교과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불신하는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 자료인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사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리인데, 자유 발행 교과서로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검정 교과서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의 역</p>	<p>현재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때, 교육부는 질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건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국정으로 개발한 교과서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 기관(현재 국정 교과서 형태의 1종 교과서는 연구 개발 기관이 각기 다</p>

름) 명의로 검정 교과서로 출원, 여타 교과서와 경쟁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되면 획일화 운운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이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우월적 지위를 은연중에 이용하기 때문에 아니 된다고 할까? 그렇다면 교원단체연합회나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여 그 조직을 활용, 교과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고 가정할 때, 이것도 아니 되는가? 이러한 일들은 자유 발행제 아래서만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다면 자유 발행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4. 현재는 국정의 검정화를 서두를 때이다.

교육에 있어서 집권(集權)은 효율적인 기획, 강력한 집행, 획일적인 통제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고, 분권(分權)은 자주성과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집권과 분권이 적정하게 어우러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집권 쪽으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분권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이는 이 집권과 분권이 적정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그 나라 교육에 보탬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른바 국정 교과서라는 것을 집권 형태의 교과서로 보고 자유 발행 교과서를 분권 형태의 교과서로 편의상 나누어 본다면, 집권 형태와 분권 형태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검정 제도를 보완하여 확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7차 교육과정도 보통 교육에서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수해야 할 공통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본 정신에 따라 초등 학

교 1학년부터 10학년에 해당되는 고등 학교 1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 교육이 때로는 통일성을 지향하고, 때로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서두를 것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1종(국정)으로 못박고 있는 국어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전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는 일일 것이다(물론 검정 출원이 없는 교과서는 지금과 같이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여 편찬한다.). 물론, 국사 교과서와 같이 용어 하나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교과는 검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발행하고, 예·체능 교과 등 일부 교과는 검정 기준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여 발행하면 국정의 검정화도 이루고, 자유 발행제의 장점도 부분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이 시행 중이니 8차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에 맞추어 검정을 확대하자고 미룰 것이 아니라 7차 교육과정 시행 중이라도 국어(고교는 독본)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분간은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든가 아니면 국정 교과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일을 서두를 때이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두고 자유 발행제로의 전환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재는 자유 발행제를 서두르기보다는 검정 제도의 확대를 서두르는 것이 일의 순서이고,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㉔

## 「교과서연구」 편집 회의를 되돌아본다(Ⅲ)

허 강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 I. 들어가는 말

나는 ‘교과서 연구 편집 회의’ 위원으로 이 연구지의 발간 초기부터 제 30 호까지 약 10 년 간 이 일에 참여하였다(나는 이 기간 동안에 한두 번(호) 위원직을 맡지 않은 때가 있었으나 거의 이 연구지와 함께 편집 운명을 같이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회의는 한국2중교과서협회 정관 제 2 조 (목적)에 명시된 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교과서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교과서연구」 전문지를 발간하는 데 필요한 기획 및 편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동안 이 회의와 관련해서 한국2중교과서협회 연혁이나 교과서 연구 편집 회의의 성격과 여기서 하는 일(기획·편집 등)에 대해서는 「교과서연구」 제 30 호(’98. 5. 20. 발행)와 「교과서연구」 제 33 호(’99. 12. 13. 발행)에서 그 상황을 개요적으로, 또 어떤 분야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서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연구」가 창간호부터 제 30 호를 발간하는 동안 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해 여러 영역을 다루었으며, 그 중에서도 교과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리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묶는다면 ‘교과서 체제 및 내용 등에 관한 현상(現狀)과 질적 개선점’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것은 흔히 말하는 ‘교과서 제도’나 ‘교과서 행정’이란 용어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듯 교과서 현상과 교과서의 질적 개선 등에 관한 주제(主題) 논의는 이론·실무 차원에서 꽤 많이 다루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듯이 「교과서연구」지의 기획, 편집에 있어서도 실무면에서 허점(虛點)이나 실수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관계자들의 비난과 질책이 있었으며, 편집 위원들은 냉철한 자기 판단과 고민(고충)을 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된다. 이 같은 일들은 후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밝힐 것을 약속한다.

나는 「교과서연구」 제 30 호 125 페이지에서 ‘8. 특집란의 유의미성’이라는 제하(題下)에 한국 교과서 발행 100돌 기념 특집 행사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졌음을 지적하고, 또 당국의 무성의한 당시의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이야기는 후일에 다시 정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이에 대해 기록하기로 한다.

또, 「교과서연구」 제 33 호 93 페이지에 ‘5. 논의만하고 게재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제하

에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교과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외 네 가지 과제를 들고 이들은 편집 회의에서 논의만하고 사정상 연구지에 게재하지 못했다고 쓴 바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이야기들인지를 적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편집 회의에서 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제기한 주제와 다른 주제들을 협의하면서 논의했던 문제점들도 기억을 되살려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마지막회)에 쓰고자 하는 것은 편집 회의를 되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논의만 하고 게재하지 못한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 교과서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 사항 등을 쓰고자 하는 것이며, 이들을 묶어 그 제목을 ‘편집 회의의 낙수(落穗)들’이라 하였다.

## Ⅱ. 편집 회의의 낙수들

### 1. 한국 교과서 발행 100돌 기념 특집 행사

우리 교과서가 정부에 의해 편찬되어 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지 올해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정부는 1894년 학부(學部)를 설치하고 학부 내에 편집국을 두어 교과서를 편찬하였는데, 그 첫 작품이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이라는 교과서이다.<중략>

근대 교과서가 발간된 지 100년이 되는 금년(1995년)에 교육부는 교과서를 2,099책, 1억 6천5백만 부 생산하여 초·중·고교에 공급하였다. 100년이라는 시간적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그 동안 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정말로 크게 발전하였다(『교과서연구』 제23호, 권두 논문 중에서).

위의 글은 한국 교과서 발행 100돌 기념 행

사 중 「교과서연구」지에서 특집란을 꾸민 것 중 권두 논문의 일부를 전재한 것이다. 특집란에서 ‘개화기의 교과서’, ‘일제침략기의 교과서’, ‘미군정기의 교과서’, ‘정부 수립 이후의 교과서와 그 변천’, ‘앞으로의 교과서 기능’을 게재하였는데, 100돌 기념 행사 중 이 논문이 유일무이하게 잡지 특집 게재라 할 수 있다.

본래, 한국 교과서 발행 100돌 기념 행사는 여러 분야에서 기획하고 실행했어야 했다. 그 분야란 ‘교과서 전시회’도 좋고, ‘학술 행사’도 좋으며, ‘홍보 또는 기념 논문집 발간’ 등도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 전시회인 경우, 교과서·학술 자료, 교과서 육필(한글) 원고, 교과서 연구 자료, 일제 시대 교과서 관련 자료, 교과서 사용 한글 글자체(서체) 자료 등과 함께 교과서 검인정 견본(제출본) 등도 가능 품목에 해당된다.

이 같은 내용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삼성출판사 등에서 지원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전시회 행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2종교과서협회와 한국교과서연구소가 주관하며, 협찬은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대한교과서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술 행사인 경우, 학술 발표회와 기념 강연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학술 발표회인 경우 교과서 이론, 교과서 연구 방법론, 교과서 역사론, 교과서 기능론, 교과서 국제 비교론, 교과서 교육론 등으로 그 영역을 나누어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가령 ‘한국 교과서 발행 100돌을 맞이하여 한 세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하고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열 수도 있다. 또, 포럼 디스커션 형식을 빌려 ‘교과서의 질적 개선에 관한 연설’을 듣고 관심 있는 청중이 이에 대하여 질

문을 하거나 의논하는 것도 뜻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를 적기로 한다.
홍보인 경우, 교양 프로 방송에 교과서에 관한 내용을, 다큐 프로 방송에서는 교과서에 얽힌 이야기 등을 내용으로, 뉴스 프로 방송에서는 ‘한국 교과서 발행 100 돌’ 등을 알림으로써 대국민 홍보를 가능하게 한다.	(1)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교과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념 논문집 발간 등의 경우, 논문집·기념집·잡지 특집 게재가 가능하며, 학생 대상 교과서 백일장을 주최할 수가 있고, 기념 강연회인 경우 연제 및 연사는 교과서 발행 100 돌 기념 행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사료된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멀티미디어 교재의 활용이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도 정보 통신 매체가 일반 사회,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되는 시대에서 학습 형태는 어떤 것이며, 이런 멀티미디어 교재가 쓰이는 가운데에서 교과서란 어떤 형태이어야 하고 어떤 구실을 하게 될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기념 행사는 모두를 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그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서 선택하거나 또는 그 규모를 축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행한 것은 잡지 특집 게재(「교과서연구」 제 23 호)뿐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고, 특히 현장 연구(조사 연구) 부분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진행과 대응책이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와 관계 기관이 교과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였는가 하는 것과, 문화적으로는 역사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적으로는 교육 내용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아쉽기만 하다.	다음은 이론의 실정을 소개한 것으로서, 첫째, 교과서는 텍스트(Text)로서 그 의의가 존재하며,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교과서의 중요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즉, 각 교과마다 교과서는 기본(Base)인 것이고 교과서에서 출발하여 다시 교과서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과정에서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 미디어가 교과서를 보완해 주는 셈이다. 이와 같이 교과서와 전자 미디어가 공존하는 게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과서의 위치라고 한다.
한국 교과서 발행 100 돌은 지났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관련된 분야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한번쯤 반성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둘째, 교과서의 기능은 ① 기초·기본 지식의 습득, ② 학습 의욕의 고취, ③ 자기 주도 학습의 전환, ④ 개별 학습의 대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쇄 미디어인 교과서는 주로 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 밖의 ②~④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
<b>2. 논의만하고 게재하지 못한 것들</b>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제재 중 편집회의에서 논의만 하고 연구지에 게재하지 못한 게 대단히 많다. 그 중 주요 과제 몇 가지	

므로 CD-ROM이나 인터넷 등 전자 미디어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중심적인 핵(Core) 역할을 하면서 전자 미디어 등이 극변에 위치하면서 공존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셋째, 논리적인 사고력과 교과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각 교과는 목표 달성을 중시하고 사고력 신장을 강조한다. 가령, 영어는 전자 메일로 편지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의 문법을 공부한다. 국어는 교과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CD-ROM을 통해 그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 과학은 인터넷으로 수족관 등의 정보를 통해 어류의 특징을 보고 다시 교과서에서 확인한다. 이것은 교과서와 전자 등 미디어를 왕래하면서 학습하는 일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사고력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 (2)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의 체제와 그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학습 미디어의 다양화 현상은 인쇄 미디어인 교과서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고,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하는 것과 앞으로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외적 체제(장정, 판형, 쪽수, 글자 크기, 색도, 사진·삽화 등)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다양한 정보 미디어와 균형을 이루고, 또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보다는 필요성에 준해 판형은 국판에서 4·6 배판으로, 글자 크기는 학교급별로 고정되어 있으며, 색도는 시각 효과(컬러) 측면에서, 일러스트는 문장 표

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수준에서 현상 유지하고 있다.

교과서 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그림(사진·삽화·그래프 등)이 너무 불합리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도표의 배치와 교과서 본문과는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 않다.’, ‘4 색도가 많다.’, ‘교과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교과서의 외적 및 내적 조형(造形)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많으며, 교과서의 체제를 개선할 때는 교육학, 심리학, 디자인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교과서의 체제 개선은 기획·편찬·현장 적용(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과목에 따라, 학생 수준에 따라, 학생 중심의 교과서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교과서의 체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아직은 교육 효과라는 측면에서보다 시각적 관점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검정 교과서는 교육 효과에 앞서 검정 합격에 초점을 두고 제작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에 대한 현장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교과서 체제와 그 교육 효과에 대한 이론·실무적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당국도 전통적인 안정 위주 체제에 머무르지 말고, 학생의 파트너로서 아주 멋지고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 개념의 교과서, 젊은 감각, 세련된 디자인, 충실한 내용 등과 함께 내용은 쉽게, 구성은 단순하게 꾸미는 것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과서는 교육 효과가 높은 고유한, 그리고 특성 있는 상품 개발이 요망되는 것이다.

<p>(3) 교과서와 도서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p> <p>일본에는 10여 년 전(1989. 3.)에 「일본교재 학회」가 설립되었다. 이 학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겼으며, 교재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연구를 행하여 관계 교육 단체와 유대를 긴밀하게 하고, 일본 교육의 진흥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이 학회의 사업은 ① 교재(교과서 및 교과서 이외의 교재 포함)에 관한 연구·조사, 자료의 수집, ② 교재에 관한 연구 발표회·연수회 등 개최, ③ 연구 성과 등의 출판, ④ 교재에 관한 연구 조성과 표창, 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p> <p>이 같은 학회가 설립된 것은 이번의 초·중등 교육 개혁에 있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과서 및 도서 교재의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의 필요성 때문이며, 여기에 참여한 회원은 학자, 현장 교육 실천자(교사), 교재출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 <p>우리 나라는 일본교재학회와 같은 학회는 아직은 없으며,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 교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편찬하는 정부 투자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고, 한국교육학회 교육과정 연구회,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등이 있으나 교과서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개발은 제한적이고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편 실무적 연구 사업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근년에 와서 교과와 관련된 정책 연구의 수행과 함께 교과서 체제 개발 등 실무적 연구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p> <p>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도 교과서와 참고서 교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교재(시정각 교재, 방송 교재, 소프트 교재 등)를 포괄하는 학회의 설립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p>	<p>교재 연구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적·계통적으로 행하고 수업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며, 이것은 실증적 교재 활용에 참여하는 실천가(교사)의 도움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재 작성, 개발에 참여하는 출판 편집·제작자의 실무 참여는 말할 필요가 없는 당연지사인 것이다.</p> <p>(4) 연도별 중·고 교과서 발행자 채택(선정) 책 수 현황표</p> <p>우리 나라의 교과서 생산 현황은 ‘교육부 통계 연감’에서 1종·2종으로 구분한 학교급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총괄 표이기에 자세한 현황을 알려면 1종(국정)은 대한교과서(주)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2종(검정)은 한국2종교과서협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아, 특히 2종의 발행자 채택(선정) 책 수 현황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교과서 발행사별 채택(선정) 책 수를 공개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지난 것이다. 새 시대(민주·개방)에 부응하는 자료 공개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p> <p>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0년도용 초·중·고 교용 교과서 발행자별 채택 책 수(도표 별도)’, ‘소학교 교과서 교과별 발행자 수와 점유율의 추이·책 수’, ‘고등 학교 각 과목별·상위 3사 점유율’의 공개는 물론, 본고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검정 신청 도서에 대한 검정 의견서’를 이 잡지에 공개 제시하는 투명 행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본다. 이 밖에도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 위원 일람’(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분과회,</p>

교과용 도서 분과회, 교과용 도서 가격 분과회)이라든가 ‘교과서 조사관(우리 나라의 편수관) 일람’은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 3. 교과서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 사항

#### (1) 새 교육과정 시행과 교과서 개발

「교과서연구」 창간호(1988. 12.)가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 동안 교육 과정은 제 5차, 제 6차, 제 7차 등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이 때마다 「교과서연구」지는 교육과정을 특집으로 싣고 교과서 개편(검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으며 쟁점 사항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와 관련된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먼저 자율 학습형 교과서 편찬(1995년 1월 자율 학습형 교과서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교육부 지시 사항 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교과서 개발에 있어 1종이든 2종이든 ‘집필상의 유의점 중 공통 사항의 일관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율 학습형 교과서 편찬’은 「교과서연구」 제 21 호(’95. 4. 25.) 논단에서 13명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찬반이 제기되었고, 그 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교과서에서도 그 체제를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꾸미라고 하였는데, 이것과 함께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단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개념에는 차이가 있으나 교과서 편찬 실무상에는 애매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쪽수의 제한(가감의 폭을 현재의 20 퍼센트에서 30~40 퍼센트까지 플러스 쪽으로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개념)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편집·디자인 기법의

도입’의 내용은 광복 후 처음으로 제시한 집필 지침으로서 우리 나라 교과서 체제에 일대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게 한 조치라고 평가되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의 지침은 교과서의 전통적인 안정 위주 체제에서 새 면모를 나타나게 한 과감한, 그리고 개혁성 있는 체제 도입으로 해석하고 싶다. 나는 오래 전부터 편집·디자인 기법의 도입이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질적 개선의 최선책이라 주창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집필상의 유의점 중 공통 사항의 일관성’은 제 5차, 제 6차, 제 7차 때의 내용이 같다는 뜻으로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교과서 개발이 진행되는 데 질적 개선에 대한 수준 높은 제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① 정확·공정성, ② 적절한 교육적 배려, ③ 기초 기본 지식의 습득, ④ 학습 방법과 사고력 신장, ⑤ 알기 쉽고 스스로 공부하게 한다 등의 제시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제 7차 때부터는 여기에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반영,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내용, 실명제 도입 등이 추가된 것뿐이다.

#### (2) 교과서 전문지로서 월간 발행

「교과서연구」 창간호가 1988년 12월 발행 후 제 30 호 발간(1998년 5월)까지를 10년으로 볼 때 해마다 3호씩 발행한 셈이다. 원래 이 연구지는 계간지로 등록하였으나 최소 3회를 발행하였던 것이다. 나는 편집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월간 발행을 주창하기도 했으나 한국 2종교과서협회의 자체 사정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잡지협회 자료를 분석해 보니 조사 대상 60종의 잡지 중 월간 31(53

%), 계간 19(32%), 반년간 4(5%), 비정기 6(10%)으로 나타났다. 여하튼 월간 교과서 전문지로 발간하는 게 내 소원이었다.	<b>Ⅲ. 맺는 말</b>
(3) 교과서 시상 제도 도입	「교과서연구」지가 제 30 호까지 발간된 것은 우리 나라 교육계와 교과서 출판계를 위해 매우 흐뭇하고 기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연구지가 발간 취지에 부응하여 그 동안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해 학문적·실무적 연구 자료를 많이 발표한 것은 무엇보다 경하해야 할 일이고, 이들 자료는 우리 교과서계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나는 신문이나 TV에서 「○○○ 시상식」에 관한 기사나 영상을 보면 교과서에 관한 시상도 있음 직한데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버릇은 내가 출판사에 있을 때 검정 교과서를 기획·편집하면서부터였으며, 그 동기가 검정 교과서를 편찬·발간하는 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많고 그러니 보상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특성 있는 상품 개발의 개념도 심리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구 자료가 기반이 되어 교과서 연구 하부 구조가 더욱 튼튼하게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행히 「교과서연구」 제 31 호부터는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연계되어 이 잡지가 발간하게 되었으니 더없이 기쁜 일이며, 이 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종합 연구 기능’을 발휘하여 교과서 연구 전문지로서 그 권위를 더욱 빛내 줄 것을 기원한다.
교과서가 ① 내용에 관한 사항(내용 선정, 단원 조직 등), ② 글자·지질 선택과 가독성에 관한 사항(서체, 자간, 행간, 여백, 판면율, 지질, 인쇄 효과 등), ③ 조직 체계에 관한 사항(편찬, 삽화, 일러스트레이션 등), ④ 장정에 관한 사항(표지, 면지, 속표지, 제본, 판형 등) 등으로 나누어 볼 때 시상의 대상은 ③, ④ 번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이름이 편집상이 됐든 장정상이 됐든 그런 것은 가칭 교과서 시상 심사 위원회에서 시상 규정을 만들면 된다.	끝으로, 창간호부터 제 30 호까지 「교과서연구」지 발행을 위해 애써 주신 역대 발행인, 회원사, 집필자, 편집 위원, 그 밖의 이 연구지와 관련됐던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교과서 발행 출판인이나 교과서 연구에 헌신한 연구가들을 위한 공로상 또는 특별상 제도를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일은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관 제 4 조(사업)에 ‘교과서에 관한 연구의 조성 및 표창’을 추가하여 위의 시상 제도를 창설하고 주관하였으면 하는 것을 감히 제안하는 바이다.	

# 교과서백서 개발 연구

## 〈연구 보고서 '99-1〉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적인 자료로서 우리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고, 편찬 및 공급과 관련된 제반 절차와 행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과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과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련되는 자료의 정리와 축적이 필요하다.

본 백서는 교육부의 전반적인 교과서 정책과 그에 따른 교과서 연구·개발 현황을 체계적으로 알리려는 목적에서 연구, 집필되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 교과용 도서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00년도를 기준으로 각종 교과서 정책에 대한 방향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과서 내용 및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구축해 나가고, 향후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려는 취지에서 개발되었다.

제Ⅰ장에서는 교과용 도서 전반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교과용 도서의 의미, 교과서의 기능과 조건, 교육 내용과 교과서의 관계,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제도 개관 및 교과서의 의미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공급이라는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책 실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백서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인 제Ⅱ장에서는 교과용 도서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제시하였다. 1종 교과용 도서의 편찬, 2종 교과용 도서의 편찬, 전자 교과서 개발의 방향, 그리고 재외 동포용 교재 개발 및 공급 업무에 대해 다루었다. 아울러, 외국의 교과서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의 교과서 정책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교과서 정책의 과제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교과용 도서 발행의 자율화, 교과용 도서 개념의 확장, 연구·개발형 교과용 도서의 편찬, 교과용 도서 공급 방식의 개선, 교과서 가격 결정 및 공급 제도 개선,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와 교과서 전서관 설치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 …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도순(연구 책임자), 조난심, 이춘식, 홍후조, 김진숙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연구 보고서 '99-4〉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교과서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전제하에 종전의 교과서 제도와는 다르게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외국의 교과서 현상 체제와 편집 디자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교과서 외적 체제와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를 실시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과서 편찬·검정·발행 등에 적합한 새 교과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책 판단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외적 체제 현상 조사 및 국제 비교에 있어서 지질은 일본과 동일한 중질지를 쓰고 있으나, 교과에 따라 모조지 이상으로 상향 개선되어야 하며, 색도 수와 서체는 외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분야였다. 쪽수는 일본과 똑같이 얇은 편이었으며, 도판류 중 일러스트는 우리 나라가 많은 편인 데 비해,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우리 나라 교과서의 긍정적인 체제 요인은 판면율이 낮았으며, 제책에 있어 무선철이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둘째, 교과서 편집 디자인 현상 조사 및 국제 비교에 있어서 표지의 경우, 우리 나라는 보통식 그리드 시스템이었으며, 외국은 프리 방식이었다. 레이아웃은 우리 나라는 조형성이 떨어지고 물리적 균형감 위주인 데 비해, 외국 교과서는 조형성이 우수하고 비례, 리듬, 조화 등의 표현이 뚜렷하였다. 포맷은 우리 나라는 긴장감 없는 여백 사용과 대칭형 등으로 장식성과 기능성 쪽에 문제점이 있었다. 타이포그래피도 우리 나라는 글꼴의 심미성이 취약하였으나, 이에 비해 외국 교과서는 폰트의 조화 등이 우수하였다. 본문은 우리 나라는 보통 그리드 시스템에 일관하였으며, 레이아웃도 대칭형으로 조형성이 취약하였다.

셋째, 학교 제도와 교과서 제도 국제 비교에 있어서 학교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배경 및 국내외 상황 변화 등에 부응하고 있었다. 교과서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등에 따라 자국에 알맞은 자유 발행제, 검정제, 인정제 및 이들의 병용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 …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허강(연구 책임자), 박상만, 홍우동, 현영호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육과정 DB 구축 및 정보 서비스 개시

## 자료 제공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 학교에서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므로 교육과정의 역사는 곧 우리 교육의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DB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서비스의 제공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관련 자료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과정 전문가 및 교육 연구 기관 등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며, 교육과정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교육과정 DB에 담겨진 자료는 광복 이후 1946년 미군정청에서 발간한 교수 요목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공포 또는 고시한 일곱 차례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과 해설서, 기초 연구 자료, 교원 연수 자료, 그리고 교과서 정책 연구 자료와 수탁 연구 보고서 등 44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통해 구축되어진 자료를 다양한 검색을 통해 원문을 검색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인터넷 접속 주소 : [www.kncis.or.kr](http://www.knc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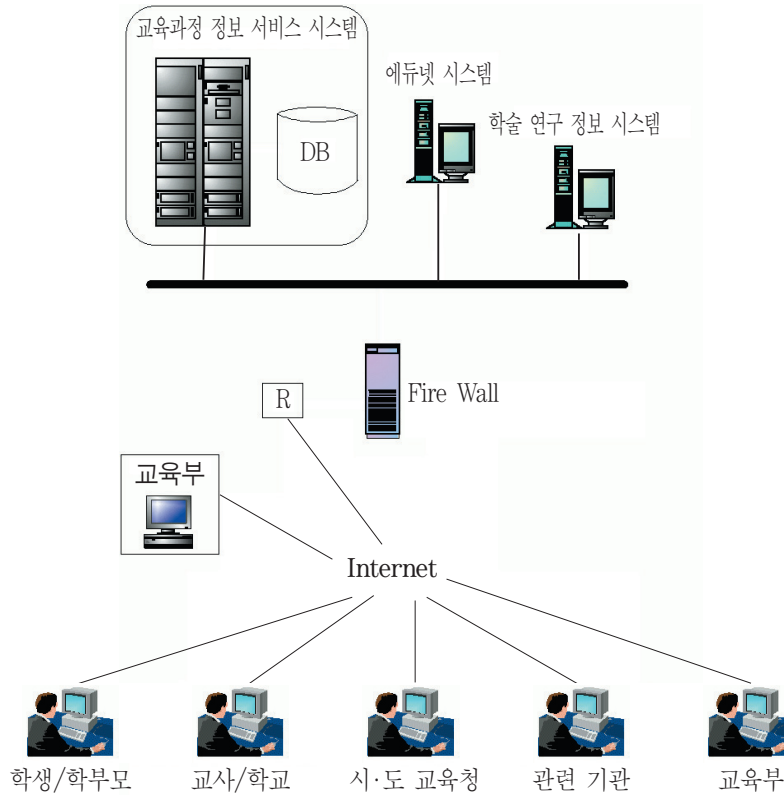
구축된 교육과정 DB는 국가의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증진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인적 자원 개발 등 우리 나라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정보 서비스는 교육과정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작, 배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절감은 물론, 일선 학교, 교원 양성 기관, 연구 기관 및 학회 등의 자료 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되어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각종 교육과정 자료의 연구, 개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 개발과 효율적 업무 수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도 에듀넷 등 관련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교육과정 관련 정보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신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과정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 2000. 6. 현재

대 상	내 용	구축량(쪽수)
교육 과정 관련 자료	교육과정	36,368
	교육과정 해설서	25,476
	교육과정 시·도 편성·운영 지침	9,189
	교육과정 연수 자료	23,312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	70,345
	교육과정 관련 후속 연구	8,501
	교육과정 관련 연구	154,379
교과용 도서 관련 자료	교과용 도서 목록	134
	교과용 도서	50,497
보고서	교육과정 실험·연구 학교 보고서	36,287
	교과용 도서 실험·연구 학교 보고서	7,482
	기타	14,201
지도 자료	교육부 및 시·도 개발 지도 자료	7,500
합 계		443,571

# NEWS

## 연구재단 소식

###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명칭 변경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하여 2000년 9월 14일부터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개정하였다. 그 외 주요 정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익 사업 추가: 교과용 도서 공급업
- 임원의 정수 조정: 상임이사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을 두도록 하고 원장제를 폐지

### ✳ 임원 동정

- 이수일 이사 퇴임

우리 연구재단의 이수일 이사(전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 심의관)가 정부의 인사 발령으로 서울 오금 고등 학교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2000년 8월 31일자로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 조창호 감사 퇴임

우리 연구재단의 조창호 감사(조창호 세무 회계 사무소 대표)는 2000년 10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퇴임하였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 운영과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

- 박기명, 박상돈 이사 취임

우리 연구재단은 2000년 8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박기명(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생산부장)씨, 박상돈(전 한국2종교과서협회 기획부장)씨를 상임이사에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로 취임식을 가졌다.

###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2000년 8월 25일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 방안 추진
- 정관 개정
- 직제 규정 개정
- 인사 규정 개정
- 보수 규정 개정
- 교과서 공급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임원 선임

### ✳ 연구재단 홈 페이지 개설

우리 연구재단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한 연구 자료 검색 등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홈 페이지를 자체 개발하여 2000년 10월 23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 주소 <http://www.kotri.re.kr>

### ✳ 직원 인사 발령

우리 연구재단은 대한교과서(주)에서 취급하여 오던 초·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공급 업무를 2001학년도부터 우리 연구재단이 맡게 됨에 따라 직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00년 10월 1일자로 대한교과서(주)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

- 행정직: 10명
- 공급소장: 136명
- 보조원: 12명

### ✳ 중등 학교 외국 교과서 전시회

우리 연구재단은 2000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중등 학교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 주최하였다. ☎

## 교과서

# 개별 구입 안내

### ✳ 교과서 상설 판매장(공통)

- 장소: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 1동 826-14 진솔문고 내
- 전화: (02) 3466-2536

### ✳ 한국2종교과서협회(초등 영어 및 중·고등학교용 2종 교과서)

- 장소: 서울 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1
- 전화: (02) 3663-4292~3
- 자동 응답 안내 전화: (02) 3663-5409~12  
3663-9120~2

### ✳ 대한교과서주식회사(초·중·고 1종 교과서)

- 장소: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344-12
- 자동 응답 안내 전화: (02) 3475-3800  
(031) 735-8105  
(041) 861-3183

### ✳ 향우산업주식회사(고등학교용 교련 교과서)

- 장소: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13
- 전화: (02) 790-5947

※ 기타 지역별 개별 판매 서점 및 구입 신청 방법은 각 발행사에 문의 바랍니다.

## 교과서 전문 연구지

# 『교과서연구』

###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

교육 제도· 교육 과정· 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 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보내실 곳 : 135-08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otri.re.kr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11,068	3,620	14,688
일반 자료	2,755	—	2,755
계	13,823	3,620	17,443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10:00~17:00
	11~2월	10:00~16:00
토요일	1~12월	10:00~12:00

\*공휴일 휴관

### 교통편

- \*전 철 ▶ 강남역(2호선) 2번 출구로 나와 진솔문고, LG 주유소를 지나 우성<sup>㉠</sup> 사거리 코너 건물
- \*일반 버스 ▶ 17, 66, 68, 78-1, 78-3, 83-1, 97-2, 239-1, 414 역삼동 하차, 33-1, 289-1 우성쇼핑센터 하차
- \*좌석 버스 ▶ 45, 45-2, 46, 736-1, 910, 916, 1005, 1005-1, 1005-3 역삼동 하차

### ● 찾아오는 길 ●

